

북한건설 개발동향

2025년
3,4분기

| 이슈진단 |

-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평가와 전망
- 김정은 시대 농촌발전정책과 농촌주택 건설의 의미

| 건설·개발 주요동향 |

-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황
- 2025년 3,4분기 살림집 건설 현황
- 건설자재 생산 기반 및 기술개발 동향
-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완공

| 건설·개발동향 분석 |

- 분석대상 시설 유형 분포
- 유형별 주요 건설·개발 동향
-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 종합 및 시사점 |

- 주요동향 요약과 시사점
- 유형별 동향분석 요약과 시사점
- 3,4분기 종합 시사점

| 부록 |

- 조사 개요
- '25년 3,4분기 북한건설·개발 동향 자료

NORTH KOREAN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REND

「북한건설·개발동향」은 북한 건설·개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함께 북한의 건설인프라 동향 파악을 위해 북한 등 발행매체(노동신문, 조선신보)의 관련 기사를 시설유형별, 단계별, 지역별로 집계·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북한의 주요 학술논문과 한국의 매체 등도 검토하여 연 2회(8월, 2월) 발간됩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글로벌/북한연구센터

이승지 수석연구원(총괄), 정연우 센터장, 최대식 연구위원, 김두환 연구위원,
송상훈 연구위원, 신수민 기간제연구원, 박성빈 인턴사원

※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필자의 의견을 따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2025년 3,4분기 「북한건설·개발동향」을 발간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은 내부적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9차 당대회를 개최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2025년 3,4분기 북한건설·개발동향〉에서는 평양 화성지구 등 대규모 살림집 건설 완공을 비롯한 전국 살림집 건설 동향과 2차 년도 지방공업 공장의 준공 및 가동 현황, 그리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개발 사업에 주목했습니다. 주요 사업의 흐름을 볼 때, 최근 몇 년간의 정책 흐름과 마찬가지로 2025년 하반기에도 ‘지방 시대’를 향한 구체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생력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건설 자재의 국산화와 표준화를 독려하였고,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가시적인 건설 성과를 내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 건설·개발동향의 더 깊이 있게 통찰하기 위해 이번 호에서는 두 편의 외부 전문가 원고를 수록하였습니다.

먼저, ‘북한의 국가경제 발전 5개년계획의 평가와 전망’(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양문수)은 5개년 계획이 제재와 팬데믹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정비보강’과 ‘내수 기반 성장전략’을 통해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김정은 시대 농촌발전정책과 농촌주택 건설의 의미’(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혁)는 최근 북한이 집중한 농촌주택 건설의 실태와 한계를 파악합니다.

이번 호가 북한의 건설·개발 현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북한건설개발동향 편집팀



CONTENTS

이슈진단

- 006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평가와 전망
- 022 김정은 시대 농촌발전정책과 농촌주택 건설의 의미

건설 · 개발 주요동향

- 046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황
- 049 2025년 3,4분기 살림집 건설 현황
- 053 건설자재 생산 기반 및 기술개발 동향
- 062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완공

건설 · 개발동향 분석

- 068 분석대상 시설 유형 분포
- 070 유형별 주요 건설 · 개발 동향
- 097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종합 및 시사점

- 106 주요동향 요약과 시사점
- 109 유형별 동향분석 요약과 시사점
- 111 3,4분기 종합 시사점

부록

- 114 조사 개요
- 120 '25년 3,4분기 북한건설 · 개발동향 자료

2025년
3,4분기

북한건설 · 개발동향

발행처 LH토지주택연구원 | 주소 3404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전민동) | 전화 042-866-8400 | E-mail sjlee268@
lh.or.kr | 홈페이지 lhri.lh.or.kr | 발행인 정창무 | 편집인 글로벌/북
한연구센터 | ISSN 2951-1488 비매품 | 발행일 2026년 3월 31일
| 디자인·인쇄 (주)에이퍼브

01.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평가와 전망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02. 김정은 시대 농촌발전정책과 농촌주택 건설의 의미

김 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PART 1

이슈진단

I s s u e R e v i e w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평가와 전망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I. 머리말

북한은 2021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개최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년, 이하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당시의 분위기는 5년 전인 7차 당대회 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년, 이하 5개년전략)을 발표할 때와는 전혀 달랐다. 5개년전략 발표 때는 야심찬 경제성장 목표와 함께 공세적, 낙관적 정책기조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5개년계획 발표 때는 엄중한 분위기와 함께 수세적, 방어적 정책기조가 감지되었다.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개년 전략은 목표에 크게 미달했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러한 목표 미달을 초래한 핵심 요인인 유엔 대북제재는 이미 장기화되고 있었고, 코로나19 팬데믹도 발발한 지 1년 남짓 지난 시점이라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새로 출발한 5개년계획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초반부터 휘청거렸다. 그러다가 2022년 8월, 북한은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단계적으로 엔데

믹 상황으로 이행하면서 5개년계획의 목표 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북한은 2022년 러-우전쟁 발발 이후 북러관계 급진전이란 대형 호재를 만났다.

다만 북한은 5개년전략 기간에도 그러했듯이 5개년계획 기간에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을 안은 상태에서 경제를 운영해왔다. 북러간의 군사·경제 분야 협력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경험의 북한의 기대를 충족하는 수준인지 여부는 불확실하고, 북러 밀월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반면 북러밀착 이후 북중관계는 다소 소원해지면서 북중교역은 주춤하고 있었다. 2025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외교를 계기로 북중교역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한 때 크게 상승했지만 여기에도 불확실성은 남아 있었다.

이 글은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년)이 종료된 지 한 달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이 계획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 뒤, 5개년계획 기간의 분야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5개년계획, 나아가 5개년계획 기간의 북한경제에 대한 종합적

인 평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2026년 9차 당대회에서 제시될 새로운 5개년계획에 대한 간단한 전망도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II. 5개년계획 및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과 특징

북한은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의 경제전략을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 5개년계획의 기본 종자, 주제를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당의 경제전략의 목적으로서 “경제사업체제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정비하고 자립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아울러 5개년계획의 전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었다.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령부로서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제대로 감당하며 국가경제의 주요명맥과 전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었다. 또한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동해야 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경제관리 전반에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을 높이고 생산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상업부문에서는 국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통제력의 회복이 중점 추진 과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재정과 금융, 가격을 비롯한 경제적 공간들을 윤희게 이용하여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과제도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시, 군들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사실 8차 당대회가 개최된 2021년의 경제여건 및 대외적 여건은 7차 당대회가 열린 2016년의 경제여건 및 대외적 여건보다 훨씬 나쁜 상태였다. 북한은 이런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지난 7차 당대회 때보다 계획 목표를 매우 낮은 수준, 요컨대 ‘현실적’인 수준에서 설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2021년에 대해서는 2019~2020년 실제 생산수준에서 소폭 증가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2022년에 대해서는 전년 수준의 목표치를, 2023년과 2024년에 대해서는 이보다 소폭 증가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5개년계획의 최종 목표 수치는, 2019~2020년 수준에서 50% 정도 증가한 수치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크다.¹

한편 5개년계획은 전통적인 사회주의경제시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5~7년 단위로 진행되는 중기경제계획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중기경제계획기 사이의 ‘완충기’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 완충기는 “한 단계의 과업이 끝났을 때 ... 다음 단계의 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역량을 보충, 정비, 재편성하는 준비시기”로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2차 7개년계획(1978~84년)과 3차 7개년계획(1987~93년)사이의 1985~86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5개년계획은 과도기적 성격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경제연구포럼 세미나 운영』, 통일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2024, pp.53-54.

아울러 5개년계획은 경제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핵심 슬로건이 ‘정비보강’으로 설정된 것 자체가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당경제, 군경제 등 특권경제의 정비 또는 특권경제에 대한 내각의 관리 강화, △경제의 체질개선, 중앙의 조절통제력 회복 등을 통한 경제운영의 정상화를 지향하고 있다.

2. 5개년계획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가. ‘중앙의 통일적 지도·관리 강화’ 정책

북한은 제재 장기화 상황에서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국가의 경제조직 자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중앙의 통일적 지도·관리 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외부세계의 관찰자들에게 의해 중앙의 통제 강화 정책, 재집권화 정책, 시장 통제 정책 등으로도 불렸는데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중앙의 통일적 지도·관리 강화’ 정책 중에서 시장화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주목할 만하다. 시장은 없애지 않고 유지시키되, 국가가 주체(player)로서 시장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시장의 주도권을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시장의 국가 독점’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시장에 대한 국가 지배의 대표적인 분야는 무역, 상업, 식량(유통)이다. 무역의 경우, ‘유일무역체계 복원’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무역회사 통폐합을 통해 소수의 무역회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위계제를 구축한다. 상업의 경우, ‘사회주의 상업의 복원’ 등을 추진해, 백화점, 국영상점 등 국영상업망을 통한 상품유통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장마당에서 국영상업망 판매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시

킨다. 식량의 경우, 양곡판매소를 통해 식량을 판매해, 식량공급소와 공존시킴과 동시에 장마당에서의 식량 판매를 금지한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무역회사 위계제, 국영상업망, 양곡판매소는 국정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 나아가 시장 메커니즘이 지배하는 영역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시장화에 대한 새로운 정책은 계획경제로의 회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 보면 경제난 발생 이후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이중경제 구조 하에서 경제 전체의 한정된 자원을 두고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하부에 있는 ‘기관/기업소, 주민’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은 경제가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국가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지만 경제가 후퇴하는 국면에서는 국가 입장에서 문제가 매우 커지고, 따라서 위기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장경제 영역에 대한 통제·장악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장악력, 특히 자원 배분에 대한 통제역량을 회복하는 쪽으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 그런데 시장경제를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직접적인 행위자로서 시장경제에 뛰어들어 이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북한정부의 의도, 목적은 크게 보아 국가 고유의 경제적 기능/역할 수행, 나아가 정권 유지를 위한 물질 토대 확보이다. 즉 △국가 재정수입 확충, △인플레이션 억제 및 환율 안정, △주민 보유 외화 흡수, △중앙의 자원장악능력 및 분배권 극대화, △공급 및 공급능력 확충을 통한 생산성 및 생산의 확대 등이다. 그리고 이 중에 국가 재정수입 확충이 중단기적으로 최대 목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나.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북한은 2021년 12월 말, 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농촌강령을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보고를 통해 농촌진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중심과업, 구체적인 실행방도들을 제시하고, 중대조치들을 취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후에 이를 새로운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으로 칭하고 있다.

김위원장은 우리식 농촌발전에서 점령하여야 할 목표로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 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편을 지적했고, 10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알곡생산목표와 축산물, 과일, 남새, 공예작물, 잠엽생산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과학농사제일주의를 제시했으며, 국가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촌혁명강령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농촌생활환경 개편을 설정했다. 농촌생활환경 개편을 위해서는 농촌의 공공서비스, 즉 학교, 진료소, 탁아소, 편의시설 등의 서비스 확충이 중요하지만 이는 현재의 재정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도 덜 들고, 가시적 성과 창출도 용이한 살림집 건설에 집중했다. 특히 살림집을 다수화 경쟁의 경제적 유인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요컨대 제재 장기화 및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식량안보’가 정권 안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대북제재 및 경제침체가 오

래 지속되고, 대북제재의 완화·해제가 요원해진 상황에서 북한은 이른바 ‘장기전’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서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요건으로서의 식량에 주목한 것이다.

다. ‘지방발전 20×10 정책’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을 통해 새로운 지방경제 정책, 즉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앞으로 매년 20개 군에 김화군 수준의 현대적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내에 모든 시, 군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책구상이다.

이어 그는 같은 해 8월 지방공업공장 건설현장 현지지도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함께 보건시설과 과학기술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 건설을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서 보건시설은 큰 규모의 병원을 가리키고, 과학기술보급거점은 ‘과학기술보급중심’에 더해 주민들의 영화관람, 체육문화 생활 등을 할 수 있고, 상업망들과 각종 편의시설들까지 포함된 다기능화된 복합형문화중심이자 문화생활거점²이며, 양곡관리시설은 낱알을 가공하고 보관하는 여러 시설을 통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그 사업대상, 포괄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사업의 성격도 경공업공장 건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건과 과학교육(문화생활)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크게 격상되었다. 그리고 ‘지방발전 20×10 정책’은 2024년 말의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를 통

2 과학기술거점 및 복합형문화중심은 이후 ‘종합봉사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해 공식화/제도화되었고, 정책추진에 있어서 5개년계획 못지않은 권위와 우선순위를 부여받았다. 더욱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종전에 추진했던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 등과 연계되면서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되고, 게다가 김정은 시대의 ‘인민대중 제일주의’와 결합되면서 김정은 시대의 핵심 브랜드 정책으로 부상했다.

3. 경제운영전략의 전환 모색

전반적으로 보아 북한정부는 경제분야에서 큰 그림을 새로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제재의 장기화 상황에 대응해, 5개년 계획을 포함해 전반적인 경제운영전략, 성장전략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종전에는 △대외무역 확대, △시장화 진전, △국영기업의 부분적 회복이라는 3대 축이 선순환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의 상대적 회복을 견인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초기에 그러했다. 그런데 이제 대북제재의 장기화 상황 속에서 대외무역 확대라는 핵심 축의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결국 내수를 기반으로 한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전환은 결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정부도 잘 알고 있다. 소비재와 중간재의 수입대체, 즉 국산화 확대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며, 5개년계획 기간 내에 완료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다. 즉 당분간 대외무역 확대와 국산화 및 내수 확대를 병행해서 추진하되, 해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5개년계획의 키워드인 ‘정비보강’, ‘자력갱생’, 그리고 5개년계획의 과도기적 성격, 완충기적 성격은 이런 맥락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전략의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다음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의 통일적 지도관리 강화’ 정책, 특히 시장화 관련 정책을 통해 민간의 자원분배 몫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고, 중앙의 자원분배 몫을 상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 준조세 수취 강화를 통해 내부 자원, 주민 보유 유흥자금의 동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발전 20×10 정책’을 통해 주민생활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방(지방정부)에게 전가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특히 이런 정책들은 몇 년 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김정은 우상화 정책과도 부합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III. 공식발표를 통해 본 5개년계획의 성과, 한계

1. 2021~2023년의 경과와 실적

2021년, 2022년은 팬데믹에 따른 극단적인 국경봉쇄의 영향으로 대외무역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다가 2022년 8월,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단계적으로 엔데믹 상황으로 이행했다. 동시에 대북제재 및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 5개년계획의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특히 식량 생산과 금속·화학·기계 등 기간산업 재건에 역점을 두면서 2023년부터는 알곡(식량), 전력 등 핵심 물자들의 생산목표 달성을 ‘12개 중요고지 점령’이라 이름 붙이면서 목표 달성을 채근했다. 12개

중요고지의 첫 번째는 알곡(식량)으로서 식량 증산이 최우선적 과제로 제기되었다. 실제로 2022년, 2023년은 북한이 식량증산을 위해 실제로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인 해로 기록되었다.

이후 5개년계획의 목표 달성은 ‘12개 중요고지 점령’이라는 이름의, 보다 구체화된 목표의 달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2024년에는 생산목표의 달성과 설비투자의 진척이 상당 정도 이루어졌다.

북한은 2023년 12월 말에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3년의 실적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위원장은 “당 제8차 대회 이후 한해 한해가 미증유의 기적과 변혁들로 기록되었지만 올해처럼 경이적인 승리와 사변들로 충만된 해는 없었다”며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그는 12대 중요고지뿐 아니라 여타의 여러 산업과 품목에 대해, 더욱이 국내총생산액까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가면서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또 상기의 전원회의를 통해 12개 중

요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 기간공업 부문이 ‘정비보강’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기계공업 분야에서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기술혁신 사례를 특별히 칭찬, 소개했고, 금속공업 분야에서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 용광로 건설을 마무리해 이미 조업에 들어가는 등 2023년을 금속공업부문이 주체화, 현대화 실현에서 크게 약진한 해로 평가했다.

2. 2024~2025년의 경과와 실적

북한은 2024년 12월말의 당 전원회의와 2025년 1월의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2024년 경제실적에 대해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12개 중요고지’에 대해서는 목표달성률과 전년대비 증가율 등 몇 가지 수치도 제시했고, 개별 산업/분야별로 주요 실적을 밝혔다(표 1 참조).

성과 부문에 대한 구체적 적시 및 수치 제시가 2023년보다 약간 적어지기는 했지만 2024년에도 여전히 구체적으로 수치와 함께

표 1 2023~2024년의 12개 중요고지 생산 실적

	2023년의 목표달성률	2024년의 목표달성률	2024년 생산실적의 전년대비 증가율
알곡(식량)	103%	107%	n.a.
압연강재	102%	127%	43%
질소비료	100%	103%	n.a.
전력	100%	101%	15%
석탄	100%	110%	7%
유색금속(비철금속)	131%	106%	n.a.
철도화물수송	106%	108%	n.a.
통나무	109%	104%	n.a.
살림집(주택) 건설	건설중 살림집 109%	목표 달성	n.a.
일반천	101%	101%	8%
수산물	105%	105%	n.a.
시멘트	101%	101%	2%

자료: 북한의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제14기 제12차 최고인민회의 발표 내용, 노동신문, 2023.12.31.; 2024.12.29.; 2025.1.24.

성과를 제시한 분야가 적지 않았다. 이는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의 표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비보강’ 대상공사, 특히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에서는 무엇보다도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 용광로 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주체철 생산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금성트랙터공장 2단계 개건현대화 공사가 마무리된 점도 정비보강 분야의 주된 성과로 평가했다.

농업부문에서도 당초의 알곡(식량)생산목표와 국가알곡수매계획을 모두 달성했으며,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풍년”이었다고 밝혔다. 건설부문의 경우, 평양시에서 지난 2024년 4월에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을 거행하고,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검덕지구에는 160여 동에 1,500여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했다는 것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다만 2025년에는 ‘12개 중요고지 (점령)’에 대한 공식매체의 보도, 최고지도자의 발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6월의 전원회의, 9월의 최고인민회의에서도 ‘12개 중요고지 (점령)’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이는 ‘12개 중요고지의 점령’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해석도 있었지만, 2025년 하반기의 움직임은 보면 전반적인 경제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반론(후술)도 만만치 않았다.

IV. 지표를 통해 본 분야별 실적

1. 경제성장률 추이

한국은행 추정결과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재 실시 전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나타냈다. 201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 전후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더욱이 2016년에는 3.9%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2017년부터 경제는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해 2017, 2018년에 각각 -3.5%, -4.1%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2019년에 하락세가 잠시 멈추었으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경봉쇄의 영향으로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2020, 2021, 2022년에 각각 -4.5%, -0.1%, -0.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다가 2022년 코로나 종식 선언에 따른 방역완화로 북한경제는 바닥에서 탈출했고, 더욱이 2023년, 2024년 연속해 비교적 높은 성장률(각각 3.1%, 3.7%)을 기록했다.

2. 재정분야 실적

북한의 국가재정 상황, 즉 국가 예산 수입·지출의 증가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1, 2022년에 급격히 하락했으나 2023년부터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해, 2024년, 2025년에도 이런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아직도 팬데믹 이전의 수준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이하 모든 예산 수입과 지출의 증가율은 계획 기준, 그림 1 참조).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산수입과 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1% 전후로 주저앉았다.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게다가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그러다가 국경봉쇄 완화 이후 2023년에는 이들 수치가 각각 1.0%와 1.7%로 높아졌고, 2024년에는 2.7%, 3.4%로, 2025년에는

그림 1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국가 예산 수입·지출 증가율 추이(계획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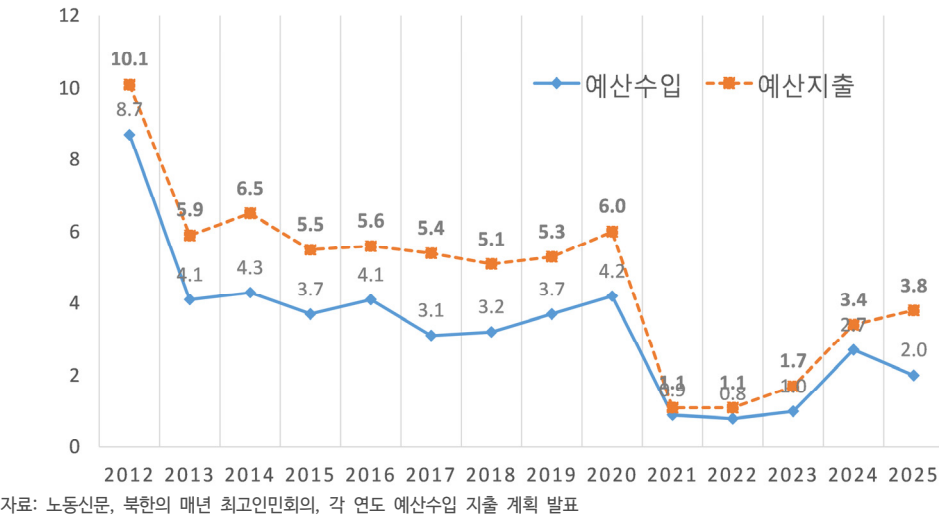


표 2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대중 중간재 수입 추이(단위: 백만 달러, %)

연도	플라스틱	HS 39	가발 재료	HS 6703	섬유류	HS 54+55	비료	HS 31	고무 타이어	HS 4011	당류 및 설탕	HS 17	대두유	HS 150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5년	168,037	-13.1	302	72.3	214,429	-18.3	19,508	-39.1	53,256	-	5,556	-29.8	103,978	-7.4
2016년	204,533	21.7	2,305	663.2	258,226	48.2	37,623	92.9	59,160	11.1	3,779	-32	98,110	-5.6
2017년	231,388	13.1	6,597	186.2	298,485	15.6	36,430	-3.2	36,030	-39.1	38,655	922.9	111,442	13.6
2018년	221,772	-4.2	13,864	110.2	191,519	-35.8	84,780	132.7	29,896	-17	40,011	3.5	135,631	21.7
2019년	274,558	23.8	21,912	58	245,743	28.3	43,164	-49.1	39,551	32.3	44,395	11	122,859	-9.4
2020년	35,790	-87	2,177	-90.1	27,463	-88.8	5,450	-87.4	18,073	-54.3	32,490	-26.8	65,835	-46.4
2021년	36,282	1.4	-	-	14,148	-48.5	24,207	344.1	15,157	-16.1	4,805	-85.2	6,757	-89.7
2022년	117,114	222.8	7,186	-	67,519	377.2	5,425	-77.6	44,272	192.1	30,476	534.2	49,134	627.2
2023년	212,166	81.2	160,412	2132.3	128,385	90.1	82,236	1415.9	41,226	-6.9	73,655	141.7	93,172	89.6
2024년	232,353	9.5	168,899	5.3	158,227	23.2	10,067	-87.7	35,452	-14	28,510	-61.3	96,736	3.8
2025년	245,091	5.5	208,218	23.3	165,209	4.4	3,121	-69	47,825	34.9	45,627	60	127,902	32.2

주: 당류 및 설탕, 대두유는 중간재이면서 동시에 소비재.
자료: 상동

2.0%, 3.8%로 각각 상승했다. 그렇다고 해도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수준(예산수입 증가율 3.7%, 예산지출 증가율 5.3%)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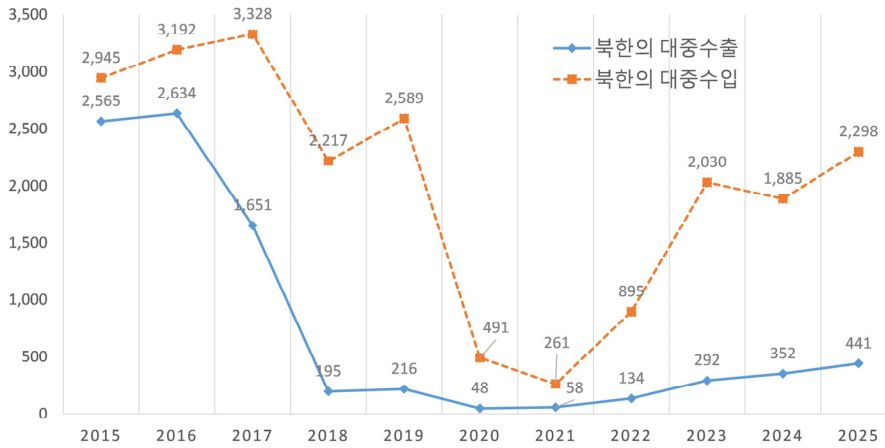
3. 북중무역 실적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중 무역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2

년, 2023년에는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는 다소 주춤했다. 2024년에 북한의 대중수출은 3억 5,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3% 증가했지만 대중수입은 18억 8,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1%의 감소를 나타냈고, 결국 무역총액은 22억 3,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7% 줄었다.

그런데 2025년에는 북한의 대중수출입 모두 크게 증가했다. 2025년에 북한의 대중

그림 2 대북제재 이후 북중무역 추이(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은 4억 4,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4% 증가했고, 수입은 22억 9,800만 달러로 21.9% 증가했으며, 무역총액은 27억 3,900만 달러로 지난해 보다 무려 22.5%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5년 북한의 대중수출입은 팬데믹 직전의 2019년 수준에 육박했다. 2025년에 북한의 대중수출은 2019년보다 104.7%나 증가했고, 대중수입은 2019년의 88.8%에 달했다. 그리고 북중무역 총액은 97.7%에 달했다. 북한의 대중수출은 팬데믹 직전 해(2019년)의 두 배를 넘어섰지만 대중수입은 11.2%나 모자란다는 점이 눈에 띈다.

4. 북러경협 실적

북한과 러시아간의 군사·경제 협력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 무기, 병력 등을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경제적 지원을 받는데, 구체적인 지원 품목과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식량, 즉 밀 또는 밀가루, 옥수수과 원유·정제유를 제공받을 가능성 정도만 거론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가 공식적인 무역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북러 무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입수하기 어렵다. 그런데 러시아 고위 관료의 입을 통해 2023년 북러 무역액이 전년 대비 9배 증가한 3,440만 달러라고 보도된 바 있다.³ 2024년 북러 교역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인력과 물자의 교류에 대한 정황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2024년 북러 간 무역규모는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해 수억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협력의 다른 분야는 북한 노동자 파견이다. 이전부터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던 러시아는 장기화된 전쟁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해졌고, 이에 따라 별목공과 일부 공장에 한정되었던 북한의 파견 노동자 수요가 더 많은 산업과 지역에서 증가

3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담당보좌관이 러시아 관영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뉴스핌, 2024.6.19.).

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2024년에 러시아 각지 건설 현장에 파견한 노동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서, 북한과 러시아는 노동자 파견 시 학생 비자 등을 활용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러시아 관광객의 규모는 북한정부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5. 농업분야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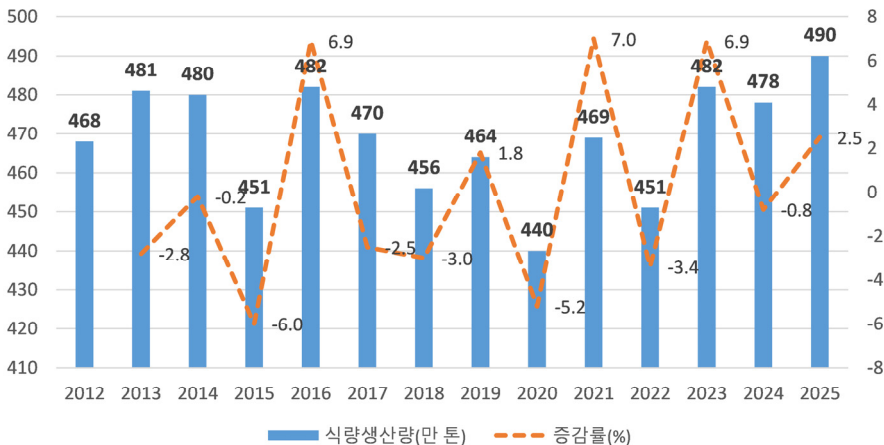
한국의 농촌진흥청 추정치에 따르면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매년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 2023년에 482만 톤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했고, 2024년에는 총 478만 톤으로 전년대비 0.8% 감소했다.⁵

2025년에는 총 490만 톤으로 전년보다 12만 톤(2.5%) 증가했다. 그런데 490만 톤은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많은 생산량이다(그림 3 참조). 종전의 최고 기록은 482만 톤을 기록한 2016년과 2023년이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25년 12월에 개최한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올해(2025년)의 알곡(식량) 수확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6. 산업분야 실적

산업분야의 움직임은 제재 국면 초기(2017~18년)와 팬데믹 국면 초기(2020년)는 제조업, 서비스업 동향에서 차이가 있다. 제재 국면에서 제조업이, 특히 경공업보다는 중화학공업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 반면 팬데믹 국면에서는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특히 정부

그림 3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식량생산 추이



자료: 농촌진흥청

4 연합뉴스, 2025.2.9.

5 한편 2024년의 경우, 한국 농촌진흥청의 추정결과와 북한의 공식보도가 다소 배치되어 눈길을 끌었다. 농촌진흥청은 전년대비 0.8% 감소로 추정했는데, 북한은 2024년 말 전원회의에서 12개 중요고지들이 성공적으로 점령되었다며 “알곡은 107%”이고, “또다시 풍년”이라고 보도했다.

표 3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산업별 생산의 전년대비 증감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GDP	3.9	-3.5	-4.1	0.4	4.5	-0.1	-0.2	3.1	3.7
농림어업	2.5	-1.3	-1.8	1.4	-7.6	6.2	-2.1	1.0	-1.9
광업	8.4	-11	-17.8	-0.7	-9.6	-11.7	4.6	2.6	8.8
제조업	4.8	-6.9	-9.1	-1.1	-3.8	-3.3	-4.6	5.9	7.0
(경공업)	1.1	0.1	-2.6	1.0	-7.5	-2.6	5.0	0.8	-0.7
(중화학공업)	6.7	-10.4	-12.4	-2.3	-1.6	-3.7	-9.5	8.1	10.7
전기가스수도업	22.3	-2.9	5.7	-4.2	1.6	6.0	3.5	-4.7	0.9
건설업	1.2	-4.4	-4.4	2.9	1.3	1.8	2.2	8.2	12.3
서비스업	0.6	0.5	0.9	0.9	-4	-0.4	1	1.7	1.3
(정부서비스)	0.6	0.8	0.8	0.8	0.8	0.1	0.6	0.7	1.2
(기타서비스)	0.5	-0.3	1.2	1.8	-18	-2	2.7	5.5	1.7

자료: 한국은행

서비스보다는 기타서비스⁶가 큰 타격을 받았고, 제조업에서는 중화학공업보다 경공업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이는 수입 동향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제재 국면에서 자본재와 금속류 중간재의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주로 중화학공업의 생산이 대폭 감소했고, 팬데믹 국면에서는 여타 중간재의 수입과 소비재 수입이 중단 및 격감됨에 따라 주로 경공업과 서비스업(특히 기타 서비스업)의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 엔데믹 이후에 2023, 2024년에는 중화학공업의 회복세가 뚜렷한 반면, 경공업 및 서비스업의 회복은 더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2023, 2024년에는 건설업의 성장세도 두드러지고 있다(표 3 참조).

7. 시장 쌀값·환율 분야 실적

북한 시장 쌀값·환율은 2023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2024년부터 매우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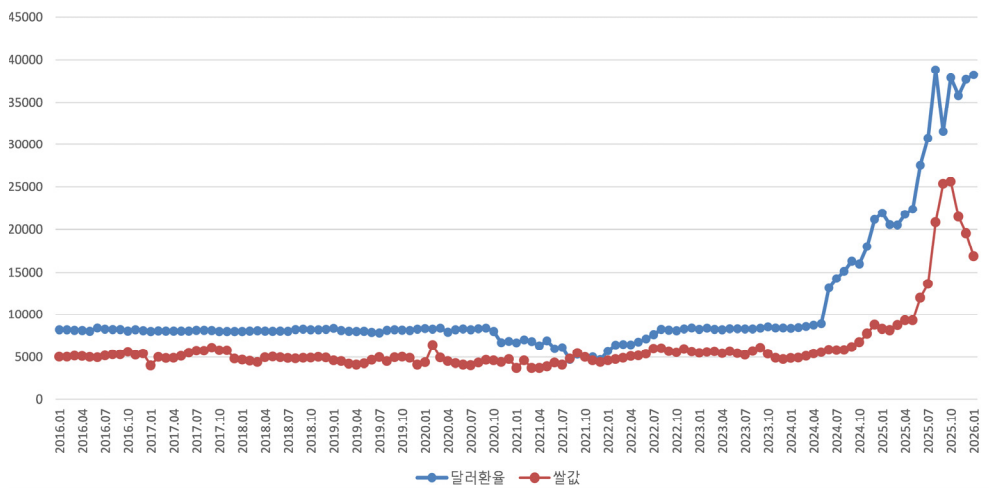
시장 환율은 2024년 들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런 움직임은 하반기에 더욱 뚜렷해졌다. 그러다가 2025년 1~5월에는 이런 불안한 양상이 다소 진정되었으나 6~8월에는 다시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고, 이후 9월부터 다시 진정되었다.

북한의 원-달러 시장 환율(이하 데일리NK 보도, 평양 기준)은 1달러당 8,000원대에서 움직이다 2024년 6월부터 크게 상승하기 시작, 1만 원을 넘어섰고, 이어 12월부터 2만 원을 넘어섰으며, 2025년 7월에는 3만 원을 넘어섰다. 같은 해 8월에 38,8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정체 상태인데 2026년 1월 평균으로 38,2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 쌀값은 긴 호흡에서 보면 시장 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유사하면서도 단기적 변동은 약간 상이한 면도 존재한다.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시장 쌀값은 kg당 5,000~6,000원대에서 움직이다 2024년 11월부터

6 기타서비스업은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 및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을 가리킨다.

그림 4 대북제재 이후 평양의 시장쌀값 및 달러환율 추이(원/kg, 원/달러)



자료: 데일리NK

크게 상승하기 시작해, 2025년 6월에 1만 원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인 같은 해 8월에 2만 원을 넘어섰다. 같은 해 10월에 25,6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후 크게 안정되면서 2026년 1월 평균으로 16,850원을 나타내고 있다.

V. 5개년계획 종합평가

1. 5개년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

2025년 초까지만 해도 연말로 종료되는 5개년계획의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5개년계획의 핵심 목표는 ‘정비보강’이고, 또한 생산목표는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설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2021년, 2022년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외무역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하지만 2022년 8월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상황은 다소 개선되면서 북한은 5개년계획

의 목표 달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25년에 ‘12개 중요고지 (점령)’에 대한 공식매체의 보도, 최고지도자의 발언이 실종되었지만 2025년의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양호할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근거, 정황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북중무역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고, 러우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북러관계도 여전히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최근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건설업도 성과가 나쁘지 않았고, 식량생산도 전년보다 증가했다. 아울러 앞의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2025년 한해 동안에 플라스틱, 가발재료, 섬유류, 고무타이어, 당류 및 설탕, 대두유 등 중간재의 수입은 비료만 제외하고 전년보다 상당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경공업의 생산 실적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5개년계획의 목표는 대체로 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비보강의 경우, 소재분야, 즉 금속과 화학이 핵심으로서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핵심 과제 겸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및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에서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 용광로 공사가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준공됨으로써 주철 생산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했다는 점, 이에 따라 철강생산능력이 종전의 40만 톤에서 80만 톤으로 2배 정도 확충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다만 화학에서는 핵심과제인 탄소하나화학의 정비보강이 예상만큼 진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기계, 전력 분야에서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 개건현대화, 금성트랙터 공장의 2단계 개건현대화, 단천발전소 1단계 공사 등이 핵심적인 정비보강 과제였는데 금성트랙터 공장의 2단계 개건현대화는 2024년에 완료되었고,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 대상은 2026년 1월 19일에 준공되었다. 다만 단천발전소 1단계 공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매체의 보도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기대만큼 진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은 2025년 12월에 열린 당중앙위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은 “가속화된 전진속도, 배가된 자생력”이라며 “올해 경제발전목표들과 함께 5개년계획이 완수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북한은 실제 목표 달성 여부와는 별개로 2025년 말에 가서 5개년계획의 목표 달성을 선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었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미 앞서 5개년전략의 목표 미달성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번의 5개년계획조차 목표 미달이 된다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막을 올린 중기경제계획이 연속해서 목표 미달이라는 비참한 성적표를 거두었음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5개년계획은 반드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해야 했고, 실제로 그러했다.

2. 5개년계획기간의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

우선, 외부의 평가와는 별개로 북한 내부, 특히 지도부가 북한경제의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 것인지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들은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성과와 한계가 뒤섞여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았을 때는 “여러 제약을 감안하면 이만하면 다행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5개년계획이 처음 제시할 때의 분위기는 매우 엄중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난 5개년 전략은 목표에 크게 미달했다”라고 털어놓았는데, 이미 대북제재는 장기화되고 있었고, 코로나19 팬데믹도 발발한 지 1년 남짓 지난 시점이라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혹독한 대내외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들고 있으며, “오늘 우리 혁명앞에 가로놓인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 “오늘 우리 혁명의 외부적환경은 의연 준엄하고 침예하”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향후 5개년계획의 수행이 가시밭길일 것임을, 일종의 위기의식과 함께 예감한 바 있다.

이런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당시 북한이 5개년 계획을 과도기, 완충기 성격의 것으로 설정하고 정비보강을 주된 타겟으로 하되 생산량의 목표를 비교적 현실적·보수적인, 일종의 ‘최소 목표’ 수준으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출발점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쯤 내부에서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버텼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럼 외부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지난 5년간의 북한경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실 북한경제의 현주소 진단은 제재 문제와

도 직결된다. 이는 고강도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달리 보면 북한경제가 대북제재의 장기화를 견디어 낼 수 있는지 아닌지, 즉 제재에 대한 내성, 적응력의 문제와 직결된다.

전문가에 따라 해석/평가의 차이는 있지만 2016~1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재는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에 있어서 하나의 큰 획을 그을 만한 대 사건이다. 김정은 시대 초반의 상대적 회복세는 유엔 제재를 계기로 완전히 꺾이고 이후 북한 경제는 하강 국면으로 진입했다. 또한 2020~2022년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경봉쇄는 북한경제에 추가적 타격을 가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의 엔데믹 이후 북한경제는 바닥에서 탈출했고, 더욱이 2023년, 2024년 연속해 비교적 높은 성장률(각각 3.1%, 3.7%)을 기록했다. 그리고 2025년의 성장률 추정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3년 연속 성장세가 엔데믹에 따른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회복/개선이라는 새로운 추세의 시작인지는 해석상의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굳이 따진다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회복/개선의 조짐이 보이지만 회복의 폭과 수준, 기간은 예상 곤란하다.

그런데 2024년의 북한경제는 한은 추정 GDP상으로는 팬데믹 직전(2019년)의 수준을 회복했지만 대외무역은 그렇지 못하다. 1989년=100으로 놓았을 때 한은 추정 실질 성장률을 통해 계산한 2024년의 GDP는 82.5로서 2019년의 81.2보다 1.6% 상승한 상태이다. 반면 KOTRA 추정 북한의 대외무역은 2024년 연간 27.0억 달러로서 2019년

의 32.4억 달러보다 16.7% 작은 상태이다. 다만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은 북러무역을 고려하면 2024년의 대외무역은 2019년 수준을 회복했거나 근접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재정 수입/지출 증가율(2024년, 2025년 증가율 기준)은 2019년의 재정증가율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

아울러 산업별 생산액 변동을 살펴보면 중화학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은 2024년에 2019년의 수준을 회복했지만,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기타서비스업은 그러지 못했다. 눈에 띄는 것은 중화학공업의 회복세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 기업 관련 노동신문 보도에서 다른 분야(경공업, 광업, 에너지)에 비해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⁷. 다만 이런 중화학공업의 생산증가는 자본재의 생산능력, 즉 공급능력 확보보다는 수요 증가(이른바 전쟁 특수)에 따른 가동률의 급격한 상승, 재고 소진 효과 등에 기인한다는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타서비스업은 2019년 실적보다 크게(12.9%) 모자란 상황이다. 여기서 기타서비스업은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 및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을 가리킨다. 한은의 추정이 '시장화'를 직접적인 관찰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은의 북한 GDP 추정치가 시장화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음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다만 기타서비스업은 시장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기타서비스업의 동향을 통해 시장화 동향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2024년 시점에 북한의 시장화는 아직도 2019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

7 남진욱, “북한의 대외환경 변화와 북한경제 남북경협 연구의 쟁점에 대한 토론문”, 제2차 KINU 북한경제연구포럼 세미나, 2025.8.28.

받는다.

또한 실물 부문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화폐분야는 그렇지 못하다. 2024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시장 환율/물가의 급등세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안정세를 보여왔고, 특히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움직임을 보여왔던 시장 환율/물가가 2024년부터 지금까지 종전의 3배, 4배 수준으로 폭등한 것은 5개년계획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특히 실물부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즉 공급부족 상황이 아닌데도 시장 환율/물가가 급등하고, 그 원인의 하나에 정책적 요인, 즉 '중앙의 통일적 지도관리 강화'정책이 있다고 하면 이는 5개년계획 목표 달성 및 새로운 경제운영전략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시장화의 회복속도가 더디다는 것은 북한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북한의 현 실정이다. 따라서 거칠게 표현한다면 2024년 시점, 나아가 5개년계획 종료 시점(2025년)에서 보면 국가경제 총량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을 수는 있지만 주민들의 소득수준은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24~2025년의 시장물가 급등을 고려하면 주민들의 실질소득 수준은 오히려 악화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추정결과가 사실에 부합한다면 일시적이든 구조적이든 지난 5년간 북한경제에 무언가 변화가 발생했고, 그런 변화는 현재진행형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5년간의 경제정책이 경제총량의 면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러-우 전쟁 특수, 즉 대러 군사협력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이다. 물론 어

느 정도의 규모인지 파악은 어렵지만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둘째, 북중무역이 북중관계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까지 증가했다는 점도 고려 가능하다. 셋째, 제재 회피 행위, 특히 암호화폐 해킹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한 외화 획득 등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국내적으로는 '중앙의 통일적 지도관리 강화' 정책 중 시장 관련 정책의 효과이다. 경제 내 부족한 자원을 단기적으로는 중앙에 집중시키는 효과, 특히 민간의 몫을 줄이고 중앙의 몫을 늘리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적극적 재정금융정책의 효과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물론 이들 5가지 요인 중 어떤 요인들의 기여도가 더 큰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3. 9차 당대회에서 제시될 새로운 5개년 계획 전망

북한은 애초에 5개년계획(2021~2025년)을 수립할 때, 혹은 실행하는 도중에, 첫 번째 5개년계획과 두 번째 5개년계획(2026~2030년)의 역할 분담을, 혹은 단계적 추진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5개년계획은 과도기 혹은 완충기의 성격이 강했다고 하면 새로운 5개년계획은 과도기/완충기의 성격을 털어버리고 통상적인 중기경제계획으로 복귀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달리 보면 두 개의 5개년계획 모두 정비보강과 생산확대 양자를 모두 추구하되, 첫 번째 5개년계획은 정비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두 번째 5개년계획은 본격적인 생산확대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물론 큰 방향은 제재로 인해 파괴된 산업연관의 복구 및 제재 장기화를 염두에 둔 상

황에서 새로운 성장전략의 추진이다. 대북 제재에 의한 충격을 고려하면, 금속, 화학, 기계 공업에 충격이 집중되기 때문에 금속, 화학 공업이 개선되면 그 다음은 기계분야에 집중한다는 계산이다. 다만 화학공업의 개선이 다소 지연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 5개년계획은 기계공업의 생산역량 확충을 주요 테마로 하되, 지난 5개년계획 기간 중 시작되었으나 완료되지 못한 주요 설비투자 사업, 특히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메탄올 및 올레핀 생산공정 건설 완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5개년계획에서 완결짓지 못한 단천발전소 1단계 공사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새로운 5개년계획에서 핵심 품목의 생산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즉 금속 소재 공급능력의 확대를 기반으로 해서 주요 기계설비의 불균형 해소 및 보강을 통해 현행 생산능력에 따른 생산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추진할 가능성이다. 결국 크게 보아 새로운 5개년계획은 정비보강과 생산확대 양자를 모두 추구하되, 첫 번째 5개년계획의 정비보강 성과를 토대로 해서 본격적인 생산확대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도 불확실한 요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양자의 조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또한 생산확대 목표를 어떤 수준으로 설정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

아울러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새로운 5개년계획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기존의 5개년계획의 4년차 시점에 돌출적으로 제기되었고, 더욱이 당이

주도성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내각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5개년계획과의 충돌/혼란 가능성은 충분히 상상 가능하다. 이런 류의 정책과제는 차기의 중기경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것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다. 예컨대 1980년의 10대 전망목표가 그러했다.

한편 9차 당대회에 포함될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김위원장이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우선 지난 8기 13차 전원회의에서는 “탄광마을을 개변하기 위한 사업”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 도농격차를 없애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의 사업이 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탄광지구들까지 개변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선을 또 하나 추가로 전개하는” 것을 ‘중대한 과업’으로 제시했다. 또 이 날 전원회의에서 그는 서해안의 간석지 농장들 중에서 새로 조직되거나 제일 뒤떨어진 농장들을 농촌발전의 새 변혁상을 상징하는 현대적이고 문명한 농촌으로 개변시키는 혁명적 조치에 대해 밝혔다. 북한매체들은 전했다.⁸ 이에 앞서 그는 2026년에도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공장 건설을 지속할 것이며, 특히 2025년에 시범적으로 3개 시,군에 현대적인 병원을 건설했는데 2026년에는 신규로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병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건설, 서해안 간석지 농장 개변, 탄광지구 개변 등을 새로운 5개년계획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이를 인민대중 제일주의와 결합시키면서 김정은 본인의 시대의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으로 더욱 발전시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평양 5만

호 주택건설에 이어 평양에서도 신규주택 건설을 지속하고, 더욱이 지방도시 및 농촌에서의 주택 건설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 전반의 과업으로 과학기술, 정보화를 강조하고, 나아가 경제 전반의 비전으로 ‘지식경제’ 또는 ‘수자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 전반의 정보화, 상업 정보화, 금융 정보화 등은 김정은 시대에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브랜드화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AI),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한 경제운영을 목표로 내세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5개년계획 기간에 추진했던, 전반적인 경제운영전략, 성장전략의 대전환은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내수를 기반으로 한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은 결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5개년계획기간에 ‘정비보강’전략이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북한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에도 대외무역 확대와 국산화, 내수 확대를 병행해서 추진하되, 해외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로운 전략 추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 △‘중앙의 통일적 지도관리 강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4. 북한경제의 중단기적 전망

현 시점에서 북한 경제정책의 최대 특징

은 김정은이 종전과는 달리 크고 많은 사업을 이것저것 벌이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경제분야뿐 아니라 군사분야에서도 발견된다. 북한의 군사력 강화 노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김정은은 핵능력 고도화,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 등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최근 몇 년동안 매우 적극적,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슬로건 하에 노동력차 해소, 인민생활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각종 개발 사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⁹

사실 김정은 집권 초기 경제정책상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무리를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특징이 퇴색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다. 또한 경제운영에 있어서 최근에 부쩍 ‘속도’를 강조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성과에만 매달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아울러 하노이 노딜 이후 ‘중앙’, ‘통제’, ‘규율’을 더욱 강조하는 분위기이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있었던 약간의 경제합리성은 퇴색되고 전반적으로 경제정책에 정치논리의 개입과 퇴행적 요소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가의 재정난은 재정공급 부족이 유일한 원인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자금 수급상황, 즉 재정 수급 상황은 엄밀히 따지면 재정공급뿐 아니라 재정수요의 함수이기도 하다. 즉 재정수요와 재정공급 양쪽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엔데믹 이후의 북한은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확대로 재정수요가 종전보다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는 군사분야의 재정수요까지 합

9 2025년 12월 31일자 노동신문의 1면에 게재된 기명(리유정) 논설은 2025년의 각종 개발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매우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다. 즉 “이 해(2025년)는 준공으로 시작하여 준공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격동의 해인 동시에 우리 조국 역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준공의 대경사들을 많이도 기록한 말그대로 준공의 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는 것이다.

친다면 재정수요의 확대 추세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런데 재정공급은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부족 상황은 향후 핵심 변수들의 추이에 따라서는 현재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우선 외부의 자금, 재정, 자원 공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북중관계이다. 지난 2025년 9월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외교 직후에는 이를 계기로 북중경협을 앞으로 크게 늘릴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과연 북한이 기대하는 만큼 중국의 대북 지원과 경협이 실현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라는 신중론에게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이다. 물론 북한도 중국으로부터의 지원 및 경협 획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둘째, 북러관계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무기 지원, 군대 파견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제분야에서의 반대급부는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가 시간이 갈수록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러우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는 돈바스 지역에 대한 전후재건에 북한 노동력 파견 등을 통해 북한경제는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도 불확실성이 없지는 않다.

요컨대 중, 러로부터 북한이 기대하는 지원, 경협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자원 유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내부로부터의 동원 극대화가 대안이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재정금융, 중앙의 통일적 지도관리 강화 등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들 또한 한계는 비교적 명확하다. 그렇다면 최근 일부 양곡판매소, 지방의 일부 3대대상 건설에서 전해지듯이 돈주(錢主)의 자금을 동원하는 여러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중앙의 통일적 지도관리 강화 정책과 충돌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편 러우전쟁 종료 후에는 지난 몇 년간의 성장방식도 취하기 어렵다는 고민에 봉착할 것이다. 즉 엔데믹 이후 몇 년간의 경제성장세는 중화학공업의 성장이 주도했는데 이는 공급능력, 특히 자본재의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특수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고민도 존재한다. 더욱이 대외무역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내수 위주 성장 전략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정비보강', 국산화 등에 힘을 기울였고 철강 등의 분야에서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새로운 5개년 계획은 화학과 기계가 중심공업이 될 가능성이 큰데 기계공업은 철강보다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훨씬 높다는 고민이 있다.

새로운 5개년계획 수립 당시의 의도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북한정부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정책의 한계, 부작용이 보다 심각해지면 추진 속도를 잠시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고, 상황에 따라서는 전략의 부분적 수정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현재의 정치적 여건상 당분간은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기존의 전술/전략을 고수하는 경직성이 우선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 남진욱, 2025, "북한의 대외환경 변화와 북한경제 남북경협 연구의 쟁점에 대한 토론문", 제2차 KINU 북한경제연구포럼 세미나 (2025.8.2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 『북한경제연구포럼 세미나 운영』, 통일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 양문수, 2025, "북한경제 2024년 평가와 2025년 전망", 『수은북한경제』, 2025년 봄호.
- 양문수, 2025, "북한의 5개년계획 평가", 『KDB북한개발』, 통권 35호(2025년 겨울호).
- 이석기, 2025, "2020년대 북한의 산업", 『KDB북한개발』, 통권 34호(2025년 여름호).
- 한반도경제협력원, 2025, "2025년 북한경제 연례평가", 2025년 12월.
- 농촌진흥청, 연도별, 북한 식량생산량 추정 자료.
- 한국무역협회, 연도별, 북중무역 통계.
- 한국은행, 연도별, 북한 산업별 생산의 전년대비 증감률.
- 노동신문, 2023.12.3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 노동신문, 2024.12.29.,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발표 내용.
- 노동신문, 2025.1.24., 제14기 제12차 최고인민회의 발표 내용.
- 노동신문, 2025.12.12.,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
- 노동신문, 2025.12.31., 기명(리유정) 논설.
- 뉴스핌, 2024.6.19.,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담당보좌관 인테르팍스 통신 회견 관련 보도.
- 데일리NK, 연도별, 평양 시장쌀값 및 달러환율 보도.
- 연합뉴스, 2025.2.9., 국정원 북한 파견 노동자 관련 보도.

김정은 시대 농촌발전정책과 농촌주택 건설의 의미¹

김 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I. 들어가며

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당의 강령으로, 새로운 단계로 견인하는 창조적 변혁의 가치로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한다는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 노선이고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는데서 중요한 대상이 농촌의 정주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북한은 2021년 12월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농촌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농촌발전 전략에는 농업생산과 더불어 모든 농촌마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농촌건설에서 농촌주택을 가장 선차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 제시했으며, 농촌건설을 위한 설계 및 건설역량 강화와 시멘트 우선 공급을 비

롯한 건자재 지원까지 상세하게 제시했다.²

북한이 5개년 계획에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농촌주택 건설을 농촌발전 전략의 선차적 과제로 제시한 것은 낙후한 농촌의 정주 여건이 농업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의 열악한 농촌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면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농촌의 위기, 지방의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대내외적인 악영향을 고려할 때 농촌주택 건설은 열악한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김정은 체제 이후 강화된 건설 정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 건설인 것이다.

북한의 농촌주택 건설은 크게 4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농촌주택 보급 사업은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으나, 농촌주택 공급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데 있다. 둘째, 대부분의 농촌주택이 1960~1970년대 사이 지어진 주택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셋째, 농촌주택은 다른 주

¹ 본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연구과제 “N2025-0010”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힘

² 노동신문(2021.12.29.),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택 건설과 달리 비교적 건설이 용이하고 건설에 필요한 건자재 수요도 적다. 넷째, 농촌주택 건설은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설 대상이라는 점이다. 종합적으로 농촌주택 건설은 농촌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된다.

따라서 본 글은 최근 5개년기간 북한이 추진한 농촌주택 건설 현황과 성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북한의 농촌주택 누적 공급현황과 실태를 일차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지난 5개년 동안 북한의 농촌주택 건설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셋째, 정부의 정책에 따른 농촌주택 건설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II. 북한의 농촌주택 공급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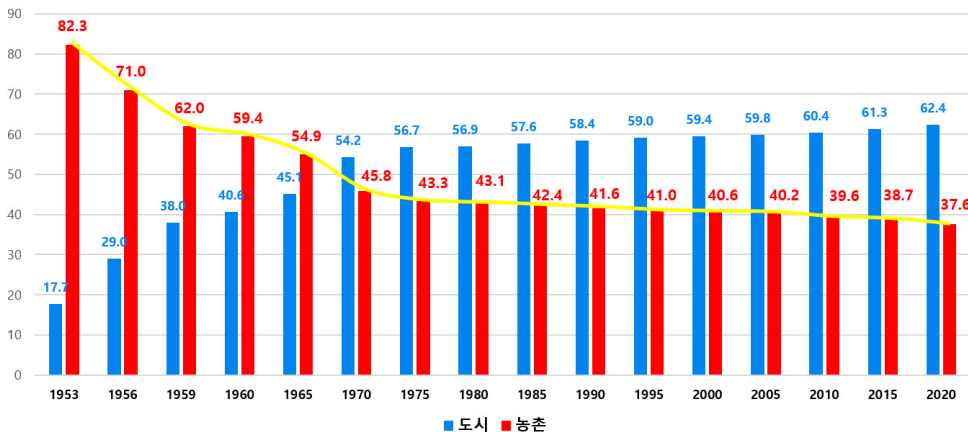
1. 농촌인구비율 변화와 영향

북한의 농촌주택 건설은 농촌인구의 변화

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북한의 농촌 인구는 1949년 기준 전체 인구의 69.4%를 차지해 적지 않은 농촌인구가 있었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으로 수많은 도시인구가 산간지역,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전후 북한의 농촌인구 비율은 82.3%까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농촌인구 증가세는 전후 복구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1956년 71%, 1959년 62%, 1960년 59.4%로 점차 감소했다.³

북한의 농촌인구 감소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촌마을(리단위)을 협동농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농촌인구는 1965년 54.9%, 1970년 45.8%까지 계속해서 감소한 반면 도시인구는 1960년 40.2%, 1965년 45.1%로 빠르게 증가해 1970년 54.2%로 도시와 농촌 간 인구 비율이 역전되었다. 북한이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촌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농촌인구의 거주이전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농촌인구는 1975년 43.3%, 1990년 41.6%, 2000년 40.6%, 2010년 39.6%, 2020년 37.6%로 감소세가 둔화되었다.⁴

그림 1 북한의 농촌인구비율 변화 추이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 참조.

3 국립출판사(196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통계집: 1946~1960”, 평양: 국립출판사, p. 13.

4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북한통계」, KOSIS, <출처: <https://kosis.kr> (검색일: 2025.11.14)., 참조.

물론 농촌인구의 감소세에도 북한 전체 인구의 증가를 고려하면 농업생산에 필요한 절대적인 인구는 일정 수준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번 농장원이 되면 평생 농장원으로 살아야 하고 후손들도 농장원으로 살아야 하는 계급 간 이동의 통제는 농촌으로부터의 이탈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농촌과 비교되는 도시의 삶이나, 변화에 대한 동경이 농촌 청년들 사이에 확대되면서 농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기는 오늘날 북한당국의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2. 농촌마을 구성과 주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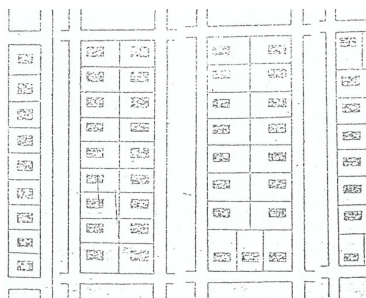
북한의 농촌마을 건설은 기본적으로 정원형과 자유형으로 구분하고 대지의 형태나, 특성에 따라 설계하고 건설하도록 정하고 있다. 농촌마을의 구성은 중심부락에 농촌마을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편의시설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시설에는 당위원회, 인민위원회, 당력사연구실, 선전실, 학교기관, 문화회관, 사회급양기관, 행정

경리 기관, 구락부, 우편국, 병원 시설, 작업반, 상점, 농목장, 농기계작업소 등을 포함하며, 급수량, 전력 부하량 등을 포함해 농촌부락 면적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외곽에 위치한 농촌마을(작업반)에는 탁아소, 유치원을 설치하도록 표준화하고 있다.⁵

농촌마을은 구성은 기본적으로 인구에 따라 마을의 규모가 정해지는데 통상 1개의 중심부락과 20~30호의 작업반 마을, 필요에 따라 50가구 정도의 작업반 단위의 자연부락으로 농촌마을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⁶ 방형 구조의 정원형 농촌마을 계획은 북한의 농촌에서 평야 지역에 위치한 농촌마을 구성에 적용하고 있으며, 자유형 농촌마을 계획은 일반적으로 비탈지형이 많은 중산간, 산간 지역의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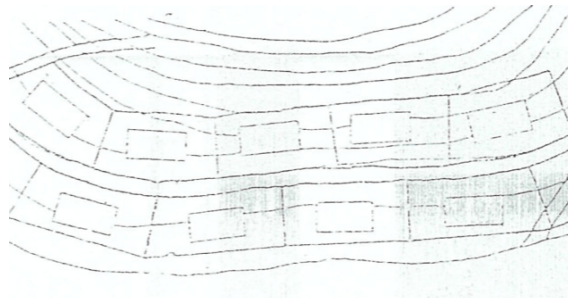
[그림 2]의 정원형 농촌마을과 자유형 농촌주택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농촌주택 예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김정숙군 신상리 농촌마을(작업반 단위) 모습을 보면 1동 1세대 기준으로 조성된 정원형 농촌주택으로 1960년대~1970년대 조성된 대표적인 농촌마을 형태를 가지고 있다. 반면 강원도 원산시 송천동에 위치

그림 2 정원형, 자유형 농촌마을 건설 계획 예시(1동 1세대 기준)



정원형 주택구획의 예시(1동 1세대)

출처: 교육도서출판사(1963), 『농촌건설계획』, 캡처



자유형 주택구획 예시(1동 1세대)

5 교육도서출판사(1963), “농촌건설계획”, pp. 24-37.

6 교육도서출판사(1963), “농촌건설계획”, pp. 63-64.

그림 3 '60~'70년대 정원형 농촌주택(1동 1세대)



※ 랑강도 김정숙군 신상리 농촌마을 모습(위: 사진, 아래: 위성영상)
출처: 통일뉴스(2016.07.31.) 캡처, Google Earth Pro(2018.7.17.) 참조.

그림 4 1970년대 자유형 농촌주택(1동 1세대, 1동 2세대)



※ 강원도 원산시 송천동 농촌마을 모습
출처: Google Earth Pro(2019.11.14.) 캡처

한 자유형 주택구획은 정원형과 달리 지형적 특성에 맞춰 분산되어 건설되었으며, 정원형보다는 산골 경사도가 높은 위치에 조성되어 있다. 특히 지형적인 한계로 주택마다 별도의 흙길을 조성하고 경사도가 높아 비구획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주택별 구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주택, 측사(돼지우리), 퇴비사, 장독대, 텃밭, 우물, 마당, 출입문, 담장 등으로 구성된다. 택지 규모는 평균 1동 1세대 기준 250㎡(건축면적 21평), 1동 2세대 기준 480㎡(건축면적 45평)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형 농촌주택을 보면 주택, 변소(화장실), 텃밭, 창고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특징은 택지 면적이 1동 1세대의 경우 340㎡~370㎡~470㎡, 1동 2세대의 경우 725㎡~825㎡~1,254㎡로 정원형보다 택지 면적이 평균 80~100㎡가 더 넓게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농촌마을 구성은 농촌의 현실과 차이가 있다. 실제로 평야에 조성된 1동 1세대 기준 250㎡(건축면적 21평)에 2세대가 생활하거나, 1동 다세대(하모니카집)는 건축면적 190㎡를 나누어 5가구(가구당 10~12평)가 생활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택지의 기준이 일정하게 적용된 경우는 농장이나, 지역의 정치적 위상, 상징성, 지역 내 위상에 따라 마을 구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자유형의 경우 반대로 주변의 농지를 불법으로 확장해 택지의 실 규모는 크게 확인되는 등 전반적으로 택지조성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농촌주택 건설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물론 북한은 전후 건설과 함께 1950년대 말 농업협동화를 추진하면서 일부 농촌주택 건설을 추진했으나, 1960년

대부터 농촌주민의 도시로의 이동을 통제하고 농촌 정주를 안정화하기 위해 농촌주택 건설 정책을 본격화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리단위 협동농장(생산단위)으로 재편하고 협동농장 관리운영을 기업적 방법으로 전환했다.

농촌주택건설은 협동농장(리단위)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국가가 주택건설 비용을 선 부담하고 후 보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농촌주택 건설을 위해 군을 단위로 농촌건설대를 조직하고 1960년대 중반부터 읍내 농촌주택 건설을 추진했으며,⁷ 1970년대에는 협동농장 단위의 농촌마을을 개선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읍 단위는 기본적으로 농촌의 도시화를, 협동농장 마을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농촌의 문화주택 건설로 추진되었다.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은 읍 단위와 협동농장 단위(농촌마을) 건설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읍 단위 건설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 당기관, 인민반 단위의 주거지, 생활 관련 공급시설, 편의시설, 읍 단위 생필품 생산을 위한 지방공업(공장)을 조성한 것과 달리 협동농장 단위의 농촌 마을은 주거, 문화회관, 탁아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2~3개 농장에서 1개소 규모)가 정주여건 개선 사업의 전부다. 물론 규모가 큰 협동농장(리단위)과 달리 떨어져 있는 작업반 규모의 부락에는 탁아유치원, 사상교양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의 시대별 농촌주택 건설계획은 1950년대 60만 세대 건설, 1960년대 제1차 7개년('61~'67+3년) 기간 120만 세대, 1970년대(6개년계획, 2차 7개년계획) 240만~310만 세대, 3차 7개년('87~'93) 계획 105~140

표 1 북한의 주택건설계획 및 실적(도시, 농촌 포함)

기간	계획(세대)	실적(세대)	%
5개년계획(1957-60)	60만(농20)	15만	25
1차 7개년 계획(1961-67) 3년 연장	120만	80만(농 30만)	67
6개년 계획 (1971-76)	100만	88만(농 47.2만)	88
2차 7개년계획(1978-86)	140~210만	70~105만 추정	50
3차 7개년계획 (1987-93)	105~140만	16만	11~15
계	525~630만	260~304만	48~51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북한 농업기반동향 분석』, (2023)

만 세대 건설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추진된 농촌건설 사업은 국가 경제발전 방향과 대외관계 변화로 성과가 저조한 수준에서 머물렀다. 1960년대 대외관계 악화(사회주의권), 1970년대 대외무역 악화(1차 오일쇼크, 원자재 가격 상승 등)가 1980년대까지 이어지고 중공업 중심의 국가 경제발전 전략으로 인해 농촌은 도시와 달리 상대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1950년대부터 시작해 1990년대 초반 사이 계획한 전체 살림집 건설 목표는 525만~630만 세대로 전체 건설량은 525만 세대의 49.5%(260만)에서 630만 기준 48.2%(304만)에 그쳤으며, 농촌주택에만 한정할 경우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시기 농촌주택 공급현황을 보면 1960년대 후반 30만호(읍단위), 1970년대 협동농장(리단위) 47만 2,000호, 1980년대 16만 호, 1990년대 5만 540호, 2000년대 11만 3,600호, 2010년대 10만호로 총 농촌주택 누적 보급량은 119만 6,140호가 건설되는 데 머물렀다.⁸

이러한 결과는 2010년대까지 농촌주택 누적공급량이 60% 수준에 그치고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농촌의 위축이 점차 가시화되는데 있었다. 북한의 도시는 시장화의 확산으

로 일정정도의 경제문화적 변화가 확산된 반면 농촌은 국가 통제의 강화로 인해 노후화가 지속되면서 농촌으로부터의 이탈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지난 5개년계획 기간(2021-2025) 낙후한 농촌을 개변하기 위한 농촌주택 건설사업을 본격화했다.

Ⅲ. 김정은 시대 농촌주택의 변화와 특징

1. 농촌마을 선 모델화 후 확산 전략

북한의 농촌혁명 강령의 배경에는 열악한 농촌환경 문제가 있다. 먼저, 농촌주택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농촌주택의 누적 공급량은 2010년대 기준 3년 기준 약 119만 6,140세대로 수요량 199만 3,000호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농촌주택 부족 문제는 농장원들의 상당수가 부모집에서 2대~3대가 함께 동거하거나, 리 단위마다 조성된 합숙(기숙사)이나, 작업반실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등 세대원이 구성되더라도 주택이 부족해 상당한 시간을 무주택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8 한국농어촌공사(2023), 『북한 농업기반동향 분석』, pp.98~99

둘째, 농촌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건설된 농촌 문화주택 수는 약 77만 2,000호로 2025년 기준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62%, 최소 25년 이상의 농촌주택을 포함할 경우 무려 78.9%에 달한다. 농촌주택의 부족과 함께 주택 노후화 문제는 농촌주민의 정주 여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농촌으로부터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농촌주택의 상하수도 문제도 열악한 농촌의 정주 여건을 보여준다. 북한의 생활용수 사용(약 60억톤 규모)은 전체의 약 60%가 강, 하천수, 지하수 35%, 저수지 약 5%를 이용하며,⁹ 안전한 식수 사용 인구 중 도시는 71.3%(상수도 공급) 농촌은 44.5%(지하수) 수준이다.¹⁰ 문제는 농촌의 경우 읍내의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농촌주택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하천수, 우물을 사용하거나, 쪼랑으로 지하수를 이용해 질병 발생 위험이 높다. 특히 농촌에는 하수시설이 대부분 갖춰져 있지 않고 위생시설(화장실)도 11.4% 수준에 불과해 폐수가 그대로 강 하천이나, 지하로 유입되면서 오염원으로 이어져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도시와 달리 농촌은 시장화의 접근성이 낮고 농장 중심의 집단촌을 구성하는 생활구조로 문화, 정서적으로 뒤쳐져 있다. 도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수요가 많아 시장화가 빠르게 정착되면서 문화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농촌은 인구밀도가 낮고 제한적인 수요로 인해 시장화가 정체되고 문화시설들이 부족하며, 도시로의 이동이 통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농촌주민

의 도시에 대한 동경이 확산되면서 농촌으로부터의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 농촌의 열악한 정주 환경은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5개년 계획과 관련해 농촌을 비롯한 시, 군 주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고 뒤떨어져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멘트를 보장할 것을 발언한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제8차 당대회에 이어 북한이 2021년 12월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농촌주택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한 이유도 낙후한 농촌을 개선하지 않으면 농업생산을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의 농촌 주택 건설은 2014년 완공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온실농장을 표본으로 삼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장천남새온실농장을 전국 ‘농촌문화 건설의 본보기’로 내세워 농촌마을 건설의 표본으로 강조하고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¹¹ 2014년 완공된 장천남새농장의 구성을 보면 약 50ha 면적에 665개동의 남새온실, 400여 세대(농장원 약 1,300여명)의 농장마을, 농업과학기술선전실, 혁명력사연구실, 사적실, 농장관리위원회, 장천원, 문화회관, 인민병원, 소학교, 등 공공시설이 설치되었다.

1동 1세대 기준 농촌주택의 구성을 보면 총 면적은 약 295㎡, 주택면적은 75㎡(지붕 기준)로 야외는 텃밭, 온실, 메탄가스탱크, 배수로, 태양열물가열기(태양열온수기), 창고와 위생실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주택의 실내는 안방(침실), 중간방, 작은방(옷장 등), 거실, 부엌, 세면실로 구성된 것

9 교육도서출판사(1990), 『조선지리지전서: 경제지리』, p. 42.

10 DPRK(20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25.

11 통일뉴스(2015.6.30.), “북 김정은,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찾아..‘농촌문화건설 본보기’”

시설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명시했다.¹³ 농촌발전법 제4장 농촌마을건설은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장이 농촌마을 건설계획을 작성하고 수행하며, 50년, 100년을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의 질적 보장, 경관조성, 정치성 보장, 건설 역량과 수단의 구비, 지방의 경제 생산기지 운영 등 농촌주택 건설에 필요한 조건들을 포함했다.¹⁴

물론 부락의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리단위에는 기본적으로 농장관리위원회, 리당위원회, 인민위원회 통합청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교양 시설에는 역사연구실, 선전실, 기술보급실, 도서관, 문화회관, 목욕탕, 상점(큰 규모), 교육시설에는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1~2개 리 통합운영), 보건시설에는 병원과 진료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즉 농촌건설에 대한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농촌공간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농촌발전법과 함께 산간지역 농촌주택 건설의 표본을 2022년부터 삼지연시 농촌마을 수준으로 대상화했다.¹⁵ 삼지연시는 2018년부터 재개발 사업에 착수해 2021년까지 총 3단계의 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군에서 시로 승격되어 산간 도시의 현대적인 농촌주택을 건설했다. 대표적으로 삼지연시 외곽의 증흥농장, 농산농장을 비롯해

통남구, 보서구, 리명수구, 포태구 등 노동자구 일대에 현대적으로 건설한 농촌마을을 전국의 산간 지역 농촌주택 건설의 표본으로 제시한 것이다.

북한의 삼지연시 수준의 농촌마을 건설 목표는 2022년부터 도 단위 대상건설로¹⁶ 제시되었으나, 대북제재의 지속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약 8,000세대의 농촌주택을 건설하는데 그쳤다.¹⁷ 농촌주택 건설이 크게 진척되지 못한 이유는 지역의 건설인력과 기능공 부족, 건설에 필요한 건설자재와 건설장비 공급의 부족, 중앙의 대상건설에 대한 선차적 동원 등으로 도 단위의 농촌주택 건설에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지는 등 농촌주택 건설에 한계가 존재했다.¹⁸

북한의 농촌주택 건설에서 나타난 특징은 과거의 일률적이고 단조로운 형태의 농촌주택 건설과 달리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가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정방형을 유지하면서도 건축양식을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과거 60~80년대 조성된 농촌주택이나, 장천남새농장과는 차별화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2022년에 발표한 농촌살림집 건설 유형만 100종류에 달하고 주택형식만 300가지에 달하는 등 지형적, 지대적 특성에 맞게 건축 형태를 달리하는 등 농촌주택 건설을 삼지연시와 비슷하게 현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⁹

13 국가정보원(2024), 『북한법령집』, pp. 1231-1233.

14 국가정보원(2024), 『북한법령집』, pp. 1241-1242.

15 민주조선(2022.1.27.), “농업근로자동맹은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부대가 되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6 대상건설은 기본적으로 국가계획경제 기간에 달성해야 할 목표에 포함된 건설 대상을 의미해 국가적 차원의 건설 역량이 동원되며, 도 단위 대상건설은 도 차원에서 건설해야 할 대상으로 지역 건설 역량이 동원되는 건설사업을 의미

17 LH연구원(2024), “북한건설개발동향”, p. 61.

18 rfa(2022.11.14.), “북, 농촌 살림집건설에 가정주부들까지 동원”

그림 6 희천 지산농장 제4작업반 농촌주택 유형별 외부 형성안



출처: 통일뉴스(2022.08.17.), “북, 농촌살림집 건설 강력 전개” 캡처

그림 7 지산농장 주택준공 모습(1동 6세대 아파트, 1동 2세대)



※ 왼쪽 소형아파트(지산리 읍내), 아래의 위성영상 모습, 오른쪽 사진은 1동 2세대 단층형 농촌마을(지산농장 남새4작업반) 모습
출처: 자주시보(2023.05.13.), Google Earth Pro(2023.4.16.) 캡처

노동신문에 소개된 희천시 지산농장 남새 제4작업반 농촌살림집 건설 형성안을 보면 산간지대를 대상으로 한 단층살림집 형성안만 71가지에 달하고 외부형성안의 주택형태는 대부분 1동 1세대, 1동 2세대로 구성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산농장 4작업반 마을은 2022년 형성안이 공개된 이후 1년 뒤인 2023년 5월 12일 공사가 완료되었다. 공사가 완료된 지산농장(리단위) 주택(소형아파트)과 4작업반 조성 모습을 위성영상과 비

교해 보면 산간 지역에 위치한 농장관리위원회 지구는 3층 높이의 1동 6세대 농촌형 소형아파트가 건설되었고 4작업반 마을은 1동 2세대 단층집이 건설된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 농촌주택 건설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택지의 변화다. 과거 1동 1세대 기준 택지의 총면적은 250㎡ 수준이었던데 반해 2014년 이후 택지 면적이 250~340㎡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주택 건축면적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건설된 평양시 순안구역 천동리(읍내)에 건설된 택지면적은 250㎡, 천동리 작업반 마을은 300~340㎡, 순안구역 산양리 작업반 마을은 340㎡(작업반 마을)로 읍내보다 작업반 마을의 택지면적이 순차적으로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건설시기, 건설지역, 건설지대에 따라 택지면적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택지의 규모는 1동 다세대 주택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과거 1동 2세대 기준 택지면적은 약 480㎡ 수준이었다면, 2020년대를 전후로 택지 면적이 약 500㎡~540

㎡, 최대 740㎡(평양)으로 증가했다. 또한 1동 4세대는 과거 약 720㎡에서 약 1,000㎡(세대당 250㎡)로 확인되어 대체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동 6세대 3층형 소형아파트(자산농장)의 경우 대지면적은 500㎡에서 약 530㎡~550㎡, 건축면적은 층별 2세대 180㎡로 세대당 90㎡(27평)으로 확인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농촌주택의 택지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텃밭은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1동 1세대 농촌주택 면적은 과거 40~60평에 달하던 텃밭이 18~30평으로 축소되었다. 건축면적은 과거 70~80년대 조성된 원주시 송천동 69~70㎡(21평)보다 증가해 최대 110㎡(33평)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촌형 아파트의 경우는 과거와 달리 텃밭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나, 아파트 앞뒤 마당에 소규모 텃밭을 마련한 모습이 확인되는 등 전반적으로 택지의 구조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에 건설된 북한의 련포남새

그림 8 2022년 완공된 련포온실농장 모습



출처: 오늘의 조선(2022.12월호)

온실농장을 살펴보면 제도적으로 보장된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련포 남새온실농장은 일반 농장의 2배에 달하는 약 1,000여 가구의 대규모 남새농장이다. 주요 시설을 보면 생산시설(남새온실), 농장관리위원회, 남새기술보급실, 기술연구실, 문화교양실(력사연구실, 혁명사적실), 문화회관,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추정) 등 제도적으로 규정한 시설들이 배치되었다.

련포남새온실농장은 련포비행장을 철거하고 평야에 조성된 대표적인 남새온실농장이라는데 있다. 남새농장은 2022년 10월 10일 준공되었는데 온실농장 전체 규모가 280ha에 달하고 평야에 건설되어 체계적인 구획화가 이루어져 있다. 농촌주택지구 총면적은 26.7ha에 달하고 농촌주택 지구의 기반은 마을로 통하는 아스팔트도로와 외관상 확인되지는 않으나 우수로를 비롯해 지하배수망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련포남새

온실농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된 대규모 농장마을로 전국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리단위나, 작업반 단위 농촌마을 건설과 규모나 시설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농촌주택 유형에서 유사성을 보여준다.

어촌마을의 표본으로 건설된 락원군 락원포마을은 작업반 규모의 어촌마을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농촌주택 건설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락원포마을은 행정구역상 함경남도 낙원군 세포리 상촌마을로 약 70가구의 작은 어촌마을로 마을주민들의 대부분이 농산반과 양식업(바다양식사업소)에 종사한다. 지난 2025년 2월 14일 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마을 재건을 위해 착공식을 진행한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8월 30일 바다가양식사업소와 락원포 어촌마을이 완공되었다.²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착공식, 건설현장 현지지도, 준공식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기울여왔던 건설사업으로 어촌마을 건설을

그림 9 락원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마을 구성 현황



출처: 조선중앙통신(2025.7.14.)

20 조선중앙TV(2025.8.31.),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 성대히 진행”

대표하는 시범지구라는 점이 주목된다.

락원포바다가양식사업소 재건과 함께 건설된 어촌마을은 기본적으로 양식사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주택지구와 농장에 종사하는 농산작업반 농장원 주택지구로 구분되어 있고 마을을 중심으로 공공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락원포 어촌마을의 구성을 보면 좌측에는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와 전용부두가 위치해 어촌마을의 어업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쪽에는 세포농장 2작업반이 위치해 하나의 농어촌을 구성하고 있다.

주거지역은 마을 중앙의 배수로를 기준으로 동쪽은 양식사업소 노동자들이 주거하는 공간, 서쪽은 세포농장 2작업반 농장원들의 주거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공공시설로는 탁아소, 병설유치원, 상업 및 편의봉사건물 등이 중앙에 배치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본보기로 내세우고 지속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건설 경과를 보고받은 대상이라는 점에서 건설에 필요한 건자재, 건설장비, 건설군인을 비롯한 건설기술자, 기능공 등이 대거 동원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건설의 질적 부분 특히 건설계획, 건설단계, 마감단계까지 질적으로 상당 부분 보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IV. 나오며: 김정은 시대 농촌주택 건설 성과와 전망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으로 본격화한 농

촌주택 건설은 중장기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 격차를 줄이는 것이고 이러한 중장기 목표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한다. 북한이 매년 계획한 농촌주택 건설의 정량적인 목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농촌주택 건설 성과를 판단하는데 한계도 상존한다. 다만, 북한이 지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농촌살림집 건설계획을 ‘2022년의 두배이상인 58,000여세대’로 밝히고²¹ 있어 이를 근거로 매년 건설계획을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의 주요 건설성과 경과를 보면 2024년 6월 10일 기준 1,500여개 마을에 80,700여 세대가 건설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7일 기준 ‘2024년 한 해 동안 141개 시, 군에서 41,600여 세대의 농촌주택이 건설’된 것으로 발표되었다.²² 2025년도 농촌주택 건설에서는 4월 기준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이 제기된 지난 3년간 1,500여 개의 농촌마을에 80,000여 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되었다고 발표했으며,²³ 같은 해 11월에는 ‘올해 완공되어 입사하거나, 완공될 살림집 수가 총 32,000여세대’, 12월에는 ‘1,900여개 마을을 건설했다’고 밝히는 등 농촌주택 건설 성과를 제시했다.²⁴

한편, 북한의 농촌주택 건설 동향과 관련해 LH토지주택연구원의 『북한건설개발동향』에 따르면 2022년 약 8,000세대, 2023년 2만 4,100여 세대가 완성되었으며, 2024년 기준 6만 9,700세대가 건설 중으로 확인되었다.²⁵ 이러한 수치는 북한의 언론매체를

²¹ 노동신문(2023.12.3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²² 노동신문(2024.6.10.), “날마다 전해지는 새집들이 소식으로 온나라가 흥성인다.”; (2024.10.7.), “날과 달을 이어 련일 펼쳐지는 사회주의농촌의 천지개벽풍경”

²³ 조선중앙통신(2025.4.10.),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의 농촌마을”

²⁴ 노동신문(2025.11.25.), “당의 은정속에 끝없이 펼쳐지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 조선중앙TV(2025.12.8.), “20시 보도”

²⁵ LH토지주택연구원(2024), “북한건설개발동향”, 2024년 1.2분기, pp. 60~61.

표 2 농촌 강령에 따른 농촌주택 건설 목표 및 건설 현황

연도	건설목표	건설주택수	달성률	마을수
2022	26,000	8,000	30.8	1,900
2023	58,000	24,100	41.6	
2024	58,000	41,600	71.7	
2025	58,000	32,000	55.2	
합계(4개년)	200,000	105,700	52.9	

※ '22년, '24~25년의 건설목표는 제8기 9차전원회의 내용을 토대로 추정

출처: LH토지주택연구원(2024), “북한건설개발동향”;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제공한 살림집 신규건설 현황(2020~2024).; 한국농어촌공사(2024), 북한농업기반동향; 노동신문(2023.12.31., 2024.10.07., 2025.2.18. 11.25.), 조선중앙통신(2025.04.10.), 조선중앙TV(2025.12.08.), 20시 보도 참조.

통해 농촌주택 건설 동향을 조사한 내용으로 세부적인 대상별 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다만 북한의 발표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북한의 농촌주택 건설계획이 지연되고 건설 대상이 누적되고 이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치의 차이로 판단된다.

북한이 제시한 농촌주택 건설계획을 기준으로 4개년 간 추진한 건설 성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이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목표를 전년의 2배 이상인 58,000여 세대로 계획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2022년 건설 목표는 최소 26,000세대로 추정된다. 그러나 LH연구원에서 추정한 건설성과를 보면 약 8,000세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 목표 26,000세대 기준 30.8% 수준에 머물렀다. 북한의 목표 대비 저조한 성과는 2020년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가 2022년 5월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농촌주택 건설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도 농촌주택은 24,100여 세대가 건설된 것으로 판단된다.²⁶ 이러한 건설성과는 2023년 농촌주택 건설계획 대비 약 41.6%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북한의 코로나19가 종식되고 2023년

부터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이 한층 강화되면서 전년 대비 3배 수준의 농촌주택을 건설했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북한이 제시한 건설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2024년도 농촌주택 건설은 2023년 기준을 적용하면 농촌혁명 강령이 발표된 이후 가장 많은 건설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24년에 건설된 농촌주택 수는 총 41,600세대로 58,000세대 건설 목표 대비 71.7%에 달하는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2% 수준, 2022년 대비 520%에 이르는 건설 성과라는데 주목된다. 다만, 이러한 성과는 2023년도 건설계획의 일부가 지연되다가 2024년도에 완공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2025년도는 2024년과 마찬가지로 58,000세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목표 대비 달성률은 55.2%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 대비 농촌주택 건설수나, 달성률과도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은 2025년 4월 ‘올해 전국 건설중인 농촌주택이 2만세대가 넘고 올해 계획한 농촌주택건설 계획을 완수하면 10만 세대가 넘는 농촌주택 건설을 완성하게 된다’고 발표했다.²⁷ 11월에는 ‘올해 완공되기

26 LH토지주택연구원(2024), “북한건설개발동향”, 2024년 1.2분기, pp. 60~61.

나, 완공될 살림집 수가 3만2천여세대!’라고 강조해 2024년 계획에서 공사가 지연되어 2025년에 완공한 건설수가 12,000세대 달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2026년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4개년 동안 농촌주택 건설계획 20만 가구 대비 달성률은 52.9%로 북한의 농촌주택 건설 목표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에 머물렀다. 농촌주택 건설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배경에는 지역 단위의 건설 역량 부족과 분산으로 인한 건설 지연에 있다. 기본적으로 농촌주택 건설은 지역 단위의 주택건설사업소를 제외하면 건설 능력이 부족한 농장, 공장, 기관, 기업소의 농장원, 노동자가 동원된다. 여기에 현재 지방공업 건설 20승 10정책, 평양5만세대 살림집 건설, 전국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주요 공장 기업소 개건현대화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사업들과 재난재해로 인한 대규모 복구인력 차출이 농촌주택 건설역량을 약화 또는 분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북한의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으로 시작된 농촌마을 건설은 지리적 조건에 맞게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는데 있다. 장천농장과 련포남새온실농장은 지리적으로 넓은 평야에 조성되면서 농촌주택의 배열과 생산단지의 접근성, 주택 단지들의 구획화가 실현됨으로써 체계적인 대규모의 농장마을 형태를 보여준다. 한편, 산간 지역의 농촌주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삼지연시의 농촌마을과 락원포의 어촌마을로 중산간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시범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농촌주택의 시설별 구성은 과거와 유사하

지만 김정은 체제 이후 농촌주택 현대화에 따른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텃밭을 줄이거나, 조경으로 구성하는 모습, 태양광, 태양열을 활용한 자연에너지 확보, 취사용 메탄가스를 매설하거나, 구멍탄을 활용한 부엌 구조, 타일형 내외장제 사용 등은 김정은 체제에서 나타난 농촌주택 구성의 현대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농장원의 직주근접을 통해 농업 활동성을 높이는 한편, 농촌주민들에 대한 민심을 달래고 도농간 생활 및 문화적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당위성을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한 관심(표본화 대상)으로 건설된 농어촌 주택은 도 단위의 농촌주택 건설과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도 단위 대상건설로 추진된 농촌주택 건설은 외형적 측면에서 현대적으로 조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의 건설역량 부족과 성과주의로 인해 주택 건설이 줄속으로 추진되면서 마을길, 전력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문제, 주택의 질적 하자로 인해 개보수가 진행되는 문제, 하부시설 미설치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⁸

결과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사회주의 농촌강령에 따라 본격화한 농촌주택 건설은 국가적 대상건설인지, 도 단위의 지역적 대상건설인지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에 따라 짧은 기간 수많은 건설인력과 기능공이 동원되고 건설장비와 건자재가 우선 공급되지만, 지역 차원의 건설은 건설인력과 기능공 확보가 어렵고 지역 차원의 건자재나, 장비가 제한되면서 주택의

27 조선중앙통신(2025.4.10.),

28 RFA(2024.2.2.), 양강도 농민들, ‘빛좋은 개살구’ 새 살림집에 불만.

하자로 이어지는 등 분명한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농촌주택 건설은 전반적으로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앞으로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건설이 예고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건설정치는 낙후한 농촌을 재건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치·사회적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북한의 농촌주택은 노후화가 심각하고 주택공급률도 낮지만 반대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대내외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통해 체제의 정당성, 정책적 당위성을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다. 사회적으로는 주민들로 하여금 농촌주택 건설을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체제를 결속하는 사회적 의미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 북한의 농촌주택 건설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도 분명하다. 첫째는 농촌주택 건설이 상당 부분 생산성이 높은 농장을 우선으로 지원하면서 뒤떨어진 농장에는 차별화로 이어지게 된다. 북한의 농촌주택 보급 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농업생산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농촌주택 보급도 곡물생산량이 높은 농장을 우선 지원해 실질적인 곡물생산량이 낮은 농장의 역차별로 이어진다. 특히 곡물생산량이 높은 농장들은 대체로 농자재를 우선 공급받거나, 좋은 농

경지를 가진 농장들이고 생산성이 낮은 농장은 척박한 농경지가 많고 농자재도 부족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역차별이 가중되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농촌주택 건설이 당적 통제와 강화로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에서의 건설 공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질적 저하가 발생한다. 북한은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농촌주택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앞으로 건설해야 할 여러 분야의 건설 사업들이 다수가 예정되어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장기간 건설로 인한 노동력의 피로 누적 현상이 농촌주택 건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현재의 농촌주택 건설 속도는 부족한 농촌주택 수요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북한의 농촌주택 누적공급량은 2025년 현재까지 약 130만 호 수준에 그치고 있어 누적수요량 약 199만호 대비 65.3%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 건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농촌마을을 재건하는 사업에 집중되어 신규 주택수 증가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뿐만아니라 농촌주택 노후화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5년 이상 된 주택수가 무려 75.5%에 달하고 45년 이상인 주택수는 60%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수준으로 주택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종합하면 농촌주택 건설은 정치·사회적 측

표 3 북한의 농촌주택 누적공급 현황

건설시기	누적공급량(천호)	누적수요량(천호)	누적공급률(%)	누적노후주택(%)
1960~1970	772.0	1,603	48.1	59.3
1980~1990	982.5	1,930	50.9	75.5
2000~2010	1196.1	1,993	60.0	91.9
2020~현재	1301.8	1,993	65.3	100

출처: 한국농어촌공사(2023, 2024), “북한 농업기반동향”, 노동신문(2022~2025), 조선중앙통신(2023~2025), LH토지주택연구원(2024), “북한건설개발동향” 참조

면에서 성과가 있으나 농촌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려면 적어도 약 70만호의 농촌주택을 신규로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보다 3배 이상 많은 지역의 건설역량을 투입해 매년 10만 호를 건설해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에 10년 뒤 노후주택 약 60%가 55~75년까지 증가해 그 수가 77만 2천 호에 달해 실수요를 공급이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으로 촉발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은 제한적인

성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시대의 농촌마을 건설은 실수요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수준에서 농촌주택 건설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60%에 가까운 노후한 농촌주택을 향후 5개년 계획기간(2030) 완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4만 호를 건설해야하고 지금까지 5년간 투자한 건설 역량을 매년 투입해야 가능한 수치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당 위성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결속을 다지는 수준에 그쳐 농촌주택 건설은 지연되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국가정보원, 2024, 『북한법령집 上』.
- 국립출판사, 196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통계집: 1946~1960』, 평양: 국립출판사.
- 교육도서출판사, 1963, 『농촌건설계획』.
- 교육도서출판사, 1990, 『조선지리지전서: 경제지리』.
- 김일남 외, 1991, 『조선농업사 4』, 평양: 농업출판사.
- 한국농어촌공사, 2023, 『북한 농업기반동향 분석』.
- 한국농어촌공사, 2024, 『북한 농업기반동향 분석』.
- LH토지주택연구원, 2024, 『북한건설개발동향』, 2024년 1·2분기.
- 국가데이터처, 『북한통계』, KOSIS, <https://kosis.kr> (검색일: 2025.11.14.).
- DPRK, 20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 노동신문, 2021.12.29.,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 노동신문, 2023.12.3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 노동신문, 2024.6.10., "날마다 전해지는 새집들이 소식으로 온나라가 흥성인다".
- 노동신문, 2024.10.7., "날과 달을 이어 련일 펼쳐지는 사회주의농촌의 천지개벽풍경".
- 노동신문, 2025.11.25., "당의 은정속에 끝없이 펼쳐지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
- 민주조선, 2022.1.27., "농업근로자동맹은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부대가 되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 조선중앙TV, 2025.8.31.,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 성대히 진행".
- 조선중앙TV, 2025.12.8., "20시 보도".
- 조선중앙통신, 2022.9.7.,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진행".
- 조선중앙통신, 2025.4.10.,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의 농촌마을".
- 조선중앙통신, 2025.7.14.
- 통일뉴스, 2015.6.30., "북 김정은, 강천남새전문협동농장 찾아.. '농촌문화건설 본보기'".
- 통일뉴스, 2016.7.31.
- 통일뉴스, 2022.8.17., "북, 농촌살림집 건설 강력 전개".
- RFA, 2022.11.14., "북, 농촌 살림집건설에 가정주부들까지 동원".
- RFA, 2024.2.2., "양강도 농민들, '빛좋은 개살구' 새 살림집에 불만".

PART 2

건설·개발 주요동향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rends



I.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황

종이공장 1개소 포함 총 21개 시·군에서 건설사업이 전개되었으며, 12월 중 모든 대상이 준공됨. 일부 지역에서 지방공업공장과 함께 보건봉사소, 양곡관리소 등을 병행 건설하였고, 향후 이런 복합 건설 방식을 확대할 추진 계획. 공장 완공과 더불어 생산 품목 다양화와 품질 개선 작업도 추진 중

1. 《지방발전 20x10 정책》 개요

- (발표·확정)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최초로 공표하였고, 이후 1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책을 공식 확정하고 인민군 투입을 결정
- (핵심 목표) 10년 동안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세우는 것
 - 소규모 표준형 공장을 전국에 고르게 배치함으로써 생활필수품의 안정적인 공급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
- (추진체계) 과거와 달리 ‘중앙-군대-지방’이 명확히 역할을 분담하는 중앙집권적 방식
 - 중앙: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가 지휘를 맡아, 자금, 인력, 자재를 책임 보장하며 표준 설계와 설비 배치를 지원
 - 군대: 조선인민군 제124연대가 건설의 주역으로 동원
 - 지방: 각 시·군은 공장 운영과 유지를 담당하며, 특히 원료기지(기름작물, 종이원료림, 지역 특산 원료 등) 조성에 주력
- (집행 원칙) 노력·부지·에너지 절약형 건설, 자재(시멘트, 강재, 목재 등) 우선 배정과 수송 조직화, 행정 절차 간소화와 기한 준수, 기술 인력 양성, 관리기구 정비, 원료기지 조성 and 품질 향상 등

2. 2차 년도(2025년) 추진 현황

- (1차 년도 성과 마무리) 2024년에 착공한 공장들은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에 완공
 - 성천군(2024.12.20.), 재령군(2025.01.07.) 등지에서 준공식이 열렸으며, 평균 공기는 약 10~11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됨
- (인프라 복합 구축) 2025년부터는 공장 건설에 국한하지 않고 보건시설, 과학기술 보급소, 문화시설, 양곡관리 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통합 구축하기 시작
 - 이는 정책의 범위를 교육과 문화 등 지역 생활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건설 규모와 결과) 총 21개 시·군에서 지방공업공장 20개, 종이공장 1개, 병원 1개, 종합봉사소 3개, 양곡관리소 1개를 착공
 - 2025년 12월 15일 강동군, 신양군, 대관군 등을 시작으로 12월에 모든 대상을 준공

표 1 '지방발전 20×10 정책' 1·2차 연도 대상 시·군과 착공, 준공일

구분	2차 년도 (총 21곳, '25년 착공, '25년 준공)			1차 년도 (총 20곳, '24년 착공, '25년 준공)		
	시·군	내용·착공일	준공일	시·군	착공일	준공일
평양직할시	강동군	지방공업공장(2. 28) 병원, 종합봉사소(2. 6)	12.15			
남포특별시	룡강군	지방공업공장, 병원(2. 9)	12.29	온천군	3. 7	1. 20
평안남도	신양군	지방공업공장(2. 24)	12.15	성천군	2. 28	'24. 12. 20
	북창군	지방공업공장(2. 27)	12.18	속천군	3. 7	1. 8
	은산군	종이공장(2. 28)	12.28			
평안북도	대관군	지방공업공장(2. 25)	12.15	구성시	3. 7	1. 30
	염주군	지방공업공장(2. 27)	12.26	구장군	3. 11	1. 24
				운산군	3. 11	2. 7
함경남도	정평군	지방공업공장, 종합봉사소(2. 24)	12.24	함주군	3. 11	1. 18
	신포시	지방공업공장(2. 25)	12.19	금야군	3. 11	2. 3
함경북도	길주군	지방공업공장(2. 27)	12.23	경성군	3. 7	1. 12
	부령군	지방공업공장(2. 28)	12.15	어랑군	3. 7	1. 31
황해남도	배천군	지방공업공장(2. 27)	12.20	재령군	3. 11	1. 7
	장연군	지방공업공장(2. 28)	12.18	은천군	3. 11	1. 14
황해북도	곡산군	지방공업공장(2. 24)	12.20	은파군	3. 7	1. 10
	황주군	지방공업공장, 양곡관리소(2. 26)	12.16	연탄군	3. 11	1. 16
	개성시 개풍구역	지방공업공장, 종합봉사소(2. 28)	12.26	장풍군	3. 11	2. 1
강원도	세포군	지방공업공장(2. 25)	12.20	고산군	3. 11	1. 29
	철원군	지방공업공장(2. 27)	12.18	이천군	3. 11	2. 9
자강도	랑림군	지방공업공장(2. 25)	12.15	우시군	3. 11	1. 25
	장강군	지방공업공장(2. 27)	12.18	동신군	3. 11	2. 5
양강도	김정숙군	지방공업공장(2. 28)	12.20	김형직군	3. 11	2. 11

3. 종합과 시사점

- (정책 성과) 2024년 20개, 2025년 21개(종이공장 1개소 포함) 지방공업공장을 계획대로 건설, 완공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보건시설, 생활문화시설 등을 함께 구축하고 있음
 - 평양시 강동군(병원, 종합봉사소), 남포시 룡강군(병원), 개성시(종합봉사소)와 함경남도 정평군(종합봉사소), 황해북도 황주군(양곡관리소)은 복합 개발의 시범 사례가 됨
- (종합개발 모델로 진화) 향후 ‘생활인프라를 포함하는 종합개발’로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
 - 2025년 말 김정은 위원장이 준공을 앞둔 지방공업공장들 시찰에서 “명년도부터 지방 건설에서는 보건시설과 종합봉사소를 비롯하여 추가대상들”을 건설할 것으로 언급¹
- (생산·품질 관리 강화) ‘생산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한 사회주의 경쟁 독려
 - “전국의 20개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사회주의 경쟁을 벌리며 인민소비품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함²
 -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강조하면서, 모범 군으로 운산군과 연탄군이 생산물 가지 수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데 진일보하고 있고, 은천군과 이천군, 경성군 등도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더 많이 만드는 목표를 내걸고 질 좋은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함
 - 황해북도 연탄군 사례를 소개하면서, 식료품공장, 옷공장, 일용품공장에서 다종다양하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군 자체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천, 자크, 단추 등 자재는 평양방직공장 등 국내 생산단위들과 주문계약 방법으로 보장한다고 함³
- (전략적 의미)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중 건설부문의 두 전선인 ‘경제토대 강화를 위한 산업 건설’과 ‘인민 물질문화적 수요 보장 건설’ 중 전자를 전국화·지방화 방향에서 확장하고 구체화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자력갱생’의 기초에서, 지방 주민의 일상적 편의와 기본 소비재 공급을 전면에 내세우는 ‘생활 중심 전략’을 확장하는 의미
- (강점과 성과) 이전 지방 산업정책과 달리,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국가적 지도사업 체계’ 하에서 ‘중앙이 자금, 노력, 자재를 보장’하는 특징을 가지며, 현재까지 건설과 운영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계와 과제) 단기적으로, 지방공업공장 운영을 위한 전력, 설비, 인력, 원료의 보장과 품질 확보가 관건일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대외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필요’를 넘는 ‘경제발전’ 전략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노동신문(2025.12.10.),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지방공업공장들의 실태를 현지로해”.

2 노동신문(2025.07.18.), “새 지방공업공장들에서 벌어지는 사회주의경쟁”.

3 노동신문(2025.07.23.), “새로 일떠선 지방공업공장을 찾아서”.

II. 2025년 3,4분기 살림집 건설 현황

평양시 5만 세대 건설 마지막 사업인 화성지구 4단계 건설사업 마무리. 농촌살림집 사업은 2025년 25천 세대, 5개년 계획 기간 총 10만 5천 세대 가량 건설한 것으로 추정. 일부 지역에서 노동자합숙, 노병살림집 등 사업도 진행되었고, 농촌살림집 등에서 종합봉사시설 설치도 병행. 검덕지구 25천 세대 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살림집 사업 부문에서 5개년 계획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임

1. 평양시,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거리 건설사업 마무리 단계

- 평양시에 5년간('21~'25년) 5만 세대 살림집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을 준공(2025.04.16)하고, 4단계 사업까지 마무리
- 2025년 2월 16일 착공한 화성지구 4단계 사업은 하반기에 마무리 단계 진행¹

표 1 2021년 이후 평양 새거리 건설사업 현황(2025년 12월 기준)

구분	사업명 / 위치	사업기간	사업내용	세대 수	비고(입사대상 등)
평양시 5만 세대 건설 사업	송화거리/평양 남측의 상대적으로 낙후한 농촌지역	2021.3.23. 착공 2022.4.12. 준공	5만 세대 첫 사업, 80층 초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1만 세대	1만	철거지역 주민, 공장 종업원, 무의무탁자 순
	화성지구 1단계/ 금수산태양궁전과 백화원초대소 인근	2023.4.16. 준공	5만 세대 두 번째 사업	1만	국방과학원 연구사들, 평양시 각 부문과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들
	화성지구 2단계 (림흥거리)	2023.2.15. 착공 2024.4.16. 준공	5만 세대 세 번째 사업	1만	일반 로동자, 영예군인, 전쟁로병, 제대군관 등
	화성지구 3단계	2024.2.23. 착공 2025.4.16. 준공	5만 세대 네 번째 사업	1만	교육, 보건, 상업, 급양봉사, 기술, 오락봉사 시설을 갖춘
	화성지구 4단계	2025.2.16. 착공 2026.2.16. 준공	5만 세대 다섯 번째 사업	1만	도시행정구역의 기능 확보
별도 사업	경루동지구/ 본평양 지역의 보통강변	2022.4.14. 준공	5만 세대와 별도, 12만㎡ 부지에 800세대 건설	800	모범 노력혁신자, 공로자, 과학인재 등 근로자들
	서포지구(전위거리)/ 평양의 북쪽 관문지역	2023.2.25. 착공 2024.5.14. 준공	5만 세대와 별도	4,100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육자 가정과 다자녀 세대 등
	대평지구	2021.9월 시작 2023.5.21. 준공	5만 세대와 별도, 다층, 고층 살림집, 학교, 진료소 등	1,400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민들

¹ 2026년 2월 16일에 4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곧이어 2월 19일에 화성지구 5단계 사업을 착공했음. SPN(2026.02.17), “北 화성지구 4단계 살림집 준공...김정은 “9차 당대회서 보다 웅대한 목표 명시””, 연합뉴스(2026.02.19.), “北, 평양 화성지구 4단계 준공 이틀 뒤 5단계 사업 착공”.

그림 1 화성지구 4단계 야간 전경



출처: 뉴스1 (2026.02.17.), “北,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야간 경관 강조한 화성지구” (원출처: 노동신문)

2.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2단계 건설사업

- 검덕지구 2단계 사업: 5개년 계획기간(‘21~’25년) 동안 2만 5천 세대 살림집 건설 계획
 - 처음 2년 동안 1만여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한 이후, 2023년에도 다층 및 소층 살림집 수천 세대를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노동신문, 2023.08.25)
- 검덕지구에 매년 5,000세대 살림집 건설 중이며, 2025년에도 지속 추진
 - 2025년 8월에도 “검덕지구에 건축양상이 서로 다른 수백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고”있다고 보도(노동신문, 2025.08.07.)

그림 2 검덕지구 전경



출처: 뉴스1 (2025.06.23.), “北 검덕지구, 50~60년대 낡은 주택 없애고 '천지개벽' 선전” (원출처: 노동신문)

3. 농촌살림집 건설 사업

- 2024년 6월 기사²에서는 지금까지 완공, 마감단계, 진행 중인 모든 농촌살림집이 113,700여 세대라고 했는데, 2025년 2월 기사³에서는 지난 3년간 1,500여 개 농촌마을에 8만 700여 세대를 건설했고, 현재 2만 세대 넘게 건설 중이라고 함
- 노동신문 기준, 2025년 3, 4/4분기 농촌살림집 완공 사업은 약 24,400세대로 추정
 - 완공 기사 건수는 평안북도와 자강도가 각각 19건으로 가장 많고, 추정 완공 세대 수는 자강도가 4,600세대, 평안북도와 함경남도가 각각 4,100세대 순
- 종합하면, 4년간 총 10만 세대 이상의 농촌살림집을 건설한 것으로 보임
 - '24년까지 80천 세대, '25년에 25천 세대로 가정하면 총 10만 5천 세대 건설

표 2 2025년 3, 4/4분기 농촌살림집 완공 기사 건수와 지역별 현황(노동신문 기준)

시·도	주요 사업 지역	기사 건수	세대 수(추정)
평양직할시	역포·순안·형제산 구역, 강동군, 강남군 등	6	900
남포특별시	대안·천리마·강서·항구 구역 등	5	1,000
라선특별시	라진구역, 선봉구역	1	300
평안남도	순천·안주·평성 시, 평원·문덕·회창·허천 군 등	8	1,300
평안북도	신의주·구성·정주 시, 운산·선천·창성·태천 군 등	19	4,100
자강도	희천·만포·강계 시, 우시·성간·위원·전천·시중 군 등	19	4,600
황해남도	은천·송화·배천·룡강·안악·삼천 군 등	6	1,100
황해북도	송림시, 승호·곡산·수안 군 등	5	900
강원도	원산·문천 시, 고성·판교·금강·천내·안변·법동 군 등	8	1,400
함경남도	함흥시, 홍원·장진·락원·금야·영광·북청·부전 군 등	14	4,100
함경북도	청진·김책·회령 시, 경성·경원·어랑·무산·연사 군 등	16	2,800
량강도	운흥·백암·보천·대흥단·김정숙·김형직·김형권 군 등	10	1,900
합계		117	24,400

* 세대 수 추정에서 100 미만은 반올림하였음

그림 3 나선시 선봉구역 두만강동 농촌살림집 전경



출처: 뉴스1(2025.11.22.), “북한, 농촌진흥 선전...나선시 올해 계획한 살림집 결속”(원출처: 노동신문)

2 노동신문(2024.06.10.), “날마다 전해지는 새집들이 소식으로 온 나라가 흥성이다”.

3 노동신문(2025.02.18.), “사회주의 농촌이 변모된다: 1. 세계질 올리는 새집들이 경사의 노래소리”.

4. 기타 도시생활시설 사업

□ 기숙사, 노병주택 등

- 황해북도 사리원방직공장 노동자합숙(로동자궁전) 준공(노동신문, 10.28)
 - 7층으로 된 합숙에는 숙소 호실, 식당, 도서실, 요리실습실 등 갖추
- 함경북도 청진학생교복공장 노동자합숙 건설(노동신문, 11.25)
- 함경북도 명간군 읍지구 10여 세대 전쟁로병 살림집 건설(노동신문, 11.11)

□ 봉사시설 등

- 평양직할시 대동강반 여객봉사기지 조성
 - 대동강반에 유람선 이용객을 위한 평천려객역사에 봉사시설 조성
 - 1층에는 목욕탕 구비, 2층에는 상점과 식당(150명 규모)
- 나선시 선봉구역 구룡평젓소염소목장 농촌살림집 공공시설 구비(노동신문, 11.09)
 - 백 수십 세대 살림집, 문화선전실, 사무청사, 종합편의시설, 탁아소, 유치원, 합숙 등 조성

5. 종합과 시사점

- 살림집 사업 부문에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초과 달성
 - 평양시 살림집 사업을 매년 1만 호씩 진행했고, 검덕지구도 5천 호씩 건설 중으로 보임
 - 2022년부터 추진한 농촌 살림집 건설도 전국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매년 확장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기사를 바탕으로 2022년 약 10천, 2023년 약 25천, 2024년 약 45천, 2025년 약 25천 세대로, 4년간 총 10만 5천 세대 가량 건설한 것으로 추정됨
 - 2025년 3, 4/4분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노동자합숙, 노병주택 등도 건설하였으며, 농촌 살림집에 종합편의시설, 탁아소 등을 갖춘 공공시설을 병행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한 2021년 이후, 북한은 살림집 사업에서 건설의 ‘물량 증가’와 함께 사업 ‘범위(공간과 대상) 확대’, ‘제도 정비’를 추진, 실행하였음
 - (물량 증가) 평양시에서 매년 1만 세대 건설사업을 진행, 이는 려명거리(4,800세대)의 두 배를 넘는 물량이며, 전국적 총 건설물량도 매년 증가 추세
 - * 5개년 계획 기간 연간 전국 살림집 건설 총수는 6만 호 내외로 추정되며, 남한의 연간 주택건설 준공 건수(약 40만 호)를 고려, 1천 명 당 주택 건설 수는 남한의 1/4 수준
 - (공간 확장) 평양 중심부에서 외곽 지역으로, 수도에서 지방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살림집 사업을 공간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 (대상 확대) 기존 핵심 근로자와 과학자, 교육자 대상 살림집 사업 위주에서 일반 근로자, 철거민, 농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살림집 사업을 본격화
 - (제도 정비) 「살림집 관리법」 채택(2023년 10월)으로 관리체계, 배정원칙, 공동주택 관리 강화 등을 제도화하였음

III. 건설자재 생산 기반 및 기술개발 동향

지방건설, 농촌건설에 필요한 마감건재를 자급자족하기 위해 신규 또는 개건하여 마련한 생산기지 현황을 살펴보고, 건설 기술 관련 북한의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하였음

1. 건설자재 생산 기반 현황

- 주택·지방공장 건설, 농촌 현대화 등에 집중하면서 북한 건설업은 최근 수년간 활발한 생산활동을 보여 2024년에는 12.3%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김미연, 2025)
 - * 2025년에는 전년 대비 농촌 주택 건설 호수가 줄어 성장세는 다소 줄었을 것으로 예상
- 2025년 건설자재의 경우 지방발전 정책대상 확대 등에 따라 수요 위축은 크지 않았고, 지방에 중소규모 건설자재 공장이 대대적으로 신설되거나 확장됨(이석기, 2026)
 - ‘지방발전 20×10 정책’,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 따라 지방공업공장과 농촌주택 건설 등을 지속하기 위해 지방 건설자재 공급 능력의 확대가 필요하였음
 - 2025년 전국적으로 40여 개의 마감건재 건설기지가 건설되고, 60여 개 마감건재 생산 기지의 생산능력이 확장된 것으로 파악됨
- 각 시군은 지방건설, 농촌건설에 있어 살림집과 공공건물, 생산건물들에 필요한 마감건재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이를 통해 지방에 마감건재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자급자족하고 자기 지방의 자원으로 질 좋은 마감건재를 개발리용하여 건재품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실현 도모
- 2025년 신축(개건)이 완료된 주요 마감건재 공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음
 - 평안남도에서는 기와, 보도블록, 스투트 등을 생산하는 순천건재공장이 11월에 준공되었고, 자강도 강계보도블록공장이 12월에 준공되어 보도블록, 흙관을 생산함
 - 황해남도 해주기와공장이 12월에 준공되어 여러 기와와 보도블록 생산이 가능해졌고, 강원도에서는 철령타일공장, 원산건재공장이 12월에 준공됨
 - 함경남도 함흥시세멘트공장에 기와생산기지가 준공되었고, 함경북도의 경성타일공장, 양강도의 해산건재공장, 해산기와공장 등의 개건이 완료됨

053

그림 1 2025년 하반기 개건이 완료된 마감건재 공장



현대화된 순천건재공장 모습



개건된 경성타일공장 모습

출처: (좌) 뉴스1, 2025년 11월 29일자, “北, 순천건재공장 현대화 공사 완료”,
(우) 연합뉴스, 2025년 12월 6일자, “북한, ‘경성타일공장’ 개건 준공”

표 1 2020년 이후 지역별 주요 마감건재 공장 건설(신규, 개건) 실적

분 류	지 역	연 도	기업소명	비 고
벽돌, 타일, 기타 건재	평양직할시	2024년	평양도자기공장(개건)	외벽타일
	남포특별시	2023년	룡강석재가공공장	
		2022년	온천타일공장	
	나선특별시	-		
	평안남도	2025년	순천건재공장	기와, 보도블록 등
		2024년	온천타일공장(개건)	
		2023년	평성건재공장(확장)	색물탈, 외장재 등
		2020년	개천타일공장, 평성돌가공업소	
	평안북도	2023년	신의주갈기공공장(개건), 선천군타일공장	
		2022년	관산군건재공장	
		2020년	룡천건재공장	
	자강도	2025년	강계보도블록공장	보도블록, 휴관
		2022년	회천시마감건재공장	
		2021년	강계시건재공장, 자강도타일생산기지, 회천시타일공장	
		2020년	회천시건재공장	
	황해남도	2025년	해주기와공장	기와, 보도블록
		2022년	배천군건재공장	
	황해북도	2024년	경암타일공장	
		2020년	경암건재공장	
	강원도	2025년	철령타일공장, 원산건재공장	
	함경남도	2025년	함흥시세멘트공장(개건)	기와분공장
		2023년	광명성제염소타일분공장, 정평군산상건재공장(개건)	
		2022년	단천건재공장	
		2021년	성천강타일공장	
		2020년	함경남도건재공장	
	함경북도	2025년	경성타일공장(개건)	
		2022년	경성타일공장	
	양강도	2025년	해산건재공장(개건), 해산기와공장(개건)	
		2023년	해산타일공장, 해산기와공장(개건)	
		2020년	해산마감건재공장	
유 리	평양직할시	2022년	력포유리병공장	
기타 제품	평양직할시	2023년	은정구역건재일용품공장	

출처 : 산업연구원 북한 산업기업DB와 LH 북한 건설·개발 동향DB 내용 재구성

2. 건재 관련 최근 기술개발 동향

- 북한 경제에서 건설부문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공법, 건재, 설비, 관리방식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해당 기술개발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2024년 발간 「기술혁신」에 포함된 문헌 중 건설 관련 논문을 별도로 정리하고, 건재를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간략히 검토함
- 문헌 상의 부문을 기준으로 건설, 운송, 채취, 기계, 정보 등에 대해 총 81건이 건설과 관련이 있었고, 자재(건재)와 관계된 것은 총 12건이었음
 - 각 논문을 별도로 설정한 분야와 유형에¹ 따라 분류한 결과, [표 3]과 같이 토목 분야 관련 문헌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 분야 문헌은 23건으로 집계됨
- 건설 관련 논문 81건에 대한 제목과 해당 분야 등 개략적인 정보는 [표 4]와 같음

표 2 문헌 상의 부문에 따른 건수

문헌 부문	구 분	건 수
건설국토·운수 (61건)	건 설	55
	수 송	6
기계·금속·채취· 건설·전력 (19건)	건 설	10
	채 취	5
	기 계	4
전자정보(1건)	정 보	1
총 계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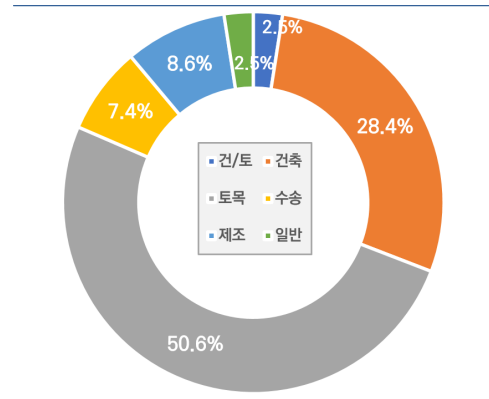


표 3 분야·유형별 관련 문헌 건수 (총 81건)

분 야	유 형	건 수
건 축	계 획	2
	구 조	2
	자 재	4
	공 법	6
	설 비	9
	소 계	23
건축/토목	공 법	2
제 조	자 재	7

분 야	유 형	건 수
토 목	자 재	1
	공 법	30
	설 비	1
	관 리	9
	소 계	41
수 송	수 송	6
일 반	공 통	2
총 계		81

1 분야는 일반, 건축, 토목, 수송, 제조 등으로, 유형은 계획, 구조, 자재, 공법, 설비, 수송, 관리, 공통 등으로 분류함

표 4 건설 관련 문헌 목록(2024년 발간 「기술혁신」)

구분	코 드	제 목	페이지	부문	분야	유형
2024년 1월호	24-01-①	건물구조유형에 따르는 지진피해예측방법	31	건설	건축	구조
	24-01-②	그라펜산화물과 규산졸을 리용한 복합혼화재와 세멘트건재의 질개선	32	건설	건축	자재
	24-01-③	실리카질방수제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복합활성첨가제 제조	33	건설	건축	자재
	24-01-④	주로표식신검출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	34	건설	토목	공법
2024년 2월호	24-02-①	물길굴건설용 버력적재기	30-31	건설	토목	공법
	24-02-②	지방산염복합물계 다기능방수제의 제조와 시공방법	31-32	건설	건축	자재
	24-02-③	탄가스정화체의 설계를 위한 새로운 구멍형성기술	32-33	건설	건축	설비
	24-02-④	나노복합산화물을 리용한 탄가스정화체	33-34	건설	건축	설비
2024년 3월호	24-03-①	지하구조물건설에서 굴자름면의 형태변화가 굴안정성에 주는 영향	7	채취	토목	공법
	24-03-②	원심통풍기설계를 위한 류체력학적수값모의방법	19	기계	건축	설비
	24-03-③	공기조화장치에서 폐공기열뿔프를 리용한 열회수체계	20-21	기계	건축	설비
2024년 4월호	24-04-①	화력발전소에서 솔바킹에 의한 증기루설방지	13	건설	토목	설비
	24-04-②	전자중합촉랑기에 의한 삼각높이촉랑의 믿음률과 조정계산방법	14	건설	토목	공법
	24-04-③	모형예측수법에 의한 세멘트회전로 소성대의 화염중심위치조정	14-15	건설	제조	자재
	24-04-④	류체해석프로그램을 리용한 진수정에서의 흐름특징분석	15-16	건설	토목	공법
	24-04-⑤	대외건설에서 공공건축형성의 특징	16-17	건설	일반	공통
	24-04-⑥	분수노출설치지구	43-44	건설	토목	관리
2024년 5월호	24-05-①	소규모다기능체육관의 평균흡음률과 최적잔향시간 설정	44-45	건설	건축	계획
	24-05-②	가로보가 없는 도로다리에서 보격자법에 의한 내역계산	45	건설	토목	공법
	24-05-③	광재습보온판생산을 위한 건조로	46	건설	제조	자재
	24-05-④	전기난방용전자기체폐제의 제조 및 특징평가	46-47	건설	건축	설비
	24-05-⑤	함형보다리시공에서 콘트리트휘틀판의 합리적인 치수선정	39	건설	토목	공법
2024년 6월호	24-06-①	건물의 환기부하보장에서 공기열원뿔프의 합리적인 적용	40	건설	건축	설비
	24-06-②	중간차차가 있는 1단견인감속기	40-41	수송	수송	수송
	24-06-③	전동차전용다리의 하중특징	41-42	건설	토목	공법
	24-06-④	액체화합시약부림용 수지내산뿔프	42	수송	수송	수송
	24-06-⑤	정력학적탄소성해석에 의한 적체건물의 내진안전성평가	31	건설	건축	구조
2024년 7월호	24-07-①	원형물길굴피복옹회틀조립설비	32	건설	토목	공법
	24-07-②	연재-진흙계폐설물을 세멘트부가물로 리용	32-33	건설	제조	자재
	24-07-③	백색연재선별기의 합리적인 설계정수 결정	33-34	건설	건축	설비
	24-07-④	자연환기를 리용하여 건물의 령방보장용 전기에네르기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	34	건설	건축	설비
	24-07-⑤	촉차최량화산법에 의한 계단식저수지들의 최량운영계획작성 및 실현방법	35	건설	토목	공법
	24-07-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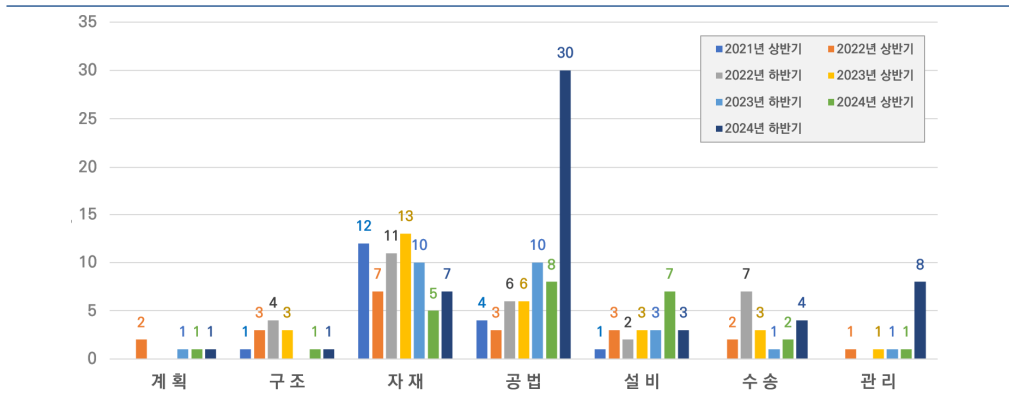
구분	코 드	제 목	페이지	부문	분야	유형
2024년 7월호	24-07-⑦	강수량예보에 의한 계단식저수지들의 방수능력평가 및 수문조작방식결정	36	건설	토목	공법
	24-07-⑧	급수망에서 압력축정에 의한 관로의 파손위치결정방법	37	건설	토목	관리
	24-07-⑨	급수관로의 물이 새는 위치에서 수력특징모의	38	건설	토목	관리
	24-07-⑩	운하수송에서 항과 부두배치에 영향을 주는 기본기술경제적지표계산방법	39	수송	수송	수송
2024년 8월호	24-08-①	강관발대수직막대의 돌출길이가 높은 중막휘틀지지체계의 지지능력에 미치는 영향	26-27	건설	건/토	공법
	24-08-②	도로건설에서 석비레를 아래기초층재료로 리용	27	건설	토목	공법
	24-08-③	마그-람정성에 의한 세멘트회전로소결대용 생벽돌제조방법	28	건설	제조	자재
	24-08-④	서로 다른 동발들을 결합한 복합동발	29	건설	토목	공법
	24-08-⑤	공기혼입공에 의한 무늬이흐름의 바닥공기포함도변화특징과 공기혼입공사이거리결정	30-31	건설	토목	공법
	24-08-⑥	에너지기감쇄률이 높은 V형계단식급류부구조	31	건설	토목	공법
	24-08-⑦	수세진압효과가 좋은 감쇄턱을 가진 계단식급류부	32	건설	토목	공법
	24-08-⑧	차동특징의 웃수실을 가진 조압수조	32-33	건설	토목	공법
	24-08-⑨	압력해소관을 결합한 뽕뽕배출관로역지변	34	건설	토목	공법
	24-08-⑩	농촌살림집취사용버거가소로	34-35	건설	건축	설비
2024년 9월호	24-09-①	무연탄광들에서 품질평가지표를 리용한 석탄원가저하방법	3-4	채취	토목	관리
	24-09-②	채굴공정단위들의 월생산자원보장계획작성을 위한 한가지 방법	4-5	채취	토목	관리
	24-09-③	대단면강도굴진에서 도갱의 붕락을 막기 위한 저진동발파방법	30-31	건설	토목	공법
	24-09-④	연결된 부력통을 리용한 철근공크리트대형보의 시공방법	31-32	건설	토목	공법
	24-09-⑤	세멘트-중합물계야외색바닥재료의 제조 및 시공방법	32	건설	토목	공법
	24-09-⑥	수동식공크리트바닥미장기계	33	건설	건축	공법
	24-09-⑦	노소-명반에 의한 물유리의 변성방법과 방수특징개선	33-34	건설	건축	공법
	24-09-⑧	석재가공을 위한 경계석절단기	34-35	건설	제조	자재
	24-09-⑨	직선철길구간에서 수평가로힘을 줄이기 위한 방도	35-36	건설	토목	공법
	24-09-⑩	선박기관크랭크축의 표면청화방법	36-37	수송	수송	수송
	24-09-⑪	선박기관용 연유절약기의 보호체계구성방법	37-38	수송	수송	수송
2024년 10월호	24-10-①	탄광에서 갱도종류에 따르는 감가상각기간규정의 정확성평가방법	3-4	채취	토목	관리
	24-10-②	석탄버럭에 의한 환경오염의 특징	4-5	채취	토목	관리
	24-10-③	철근공크리트단순보다리의 상부구조시공에 조립식받침틀 리용	31	건설	토목	공법
	24-10-④	선행굴진에 의한 물길굴시공방법	32	건설	토목	공법
	24-10-⑤	아치형지붕구조를 가진 대형건축공간에서 예술공연보장을 위한 예술조명모의체계도	33	건설	건축	계획
	24-10-⑥	화강석돌가공품의 피막제거용 산소-수소혼합가스발생기	34	건설	제조	자재
	24-10-⑦	해저에 설치한 해양심층수 취수관의 안정성계산방법	35	건설	토목	공법
	24-10-⑧	해양심층수 취수관의 류동안정성을 높이는 철근말뚝	35-36	건설	토목	공법

구분	코 드	제 목	페이지	부문	분야	유형
2024년 10월호	24-10-⑨	해당심층수 취수정의 바닥시공방법	36-37	건설	토목	공법
	24-10-⑩	전압수감방식의 불꽃간극기를 리용하는 접지보호	37-38	수송	수송	수송
	24-10-⑪	압착가공방법에 의한 레우고착용볼트가공	39	건설	토목	공법
	24-10-⑫	과부하운전을 하는 단독계통 수력발전소에서 조속기-려자기통합조종체계의 구성방법	43-44	정보	토목	관리
2024년 11월호	24-11-①	측정불확정성을 고려한 기존구조의 콘크리트세기추정	10	건설	건축	공법
	24-11-②	확장볼트에 의한 철근콘크리트보의 밀면늘이보강방법	11	건설	건/토	공법
	24-11-③	적체건물에서 하중전달경로를 변화시키는 증축방법	11-12	건설	건축	공법
	24-11-④	건물보수의 결심채택에서 가치공학법의 응용	12-13	건설	건축	공법
	24-11-⑤	농촌살림집건설용 1t이동식기중기의 전복안정성	13-14	건설	건축	공법
	24-11-⑥	세멘트크링카랭각기의 합리적인 운영정수결정	14	기계	제조	자재
	24-11-⑦	비굴착식관로수복용 후란지성형기	15	기계	토목	공법
2024년 12월호	24-12-①	굴피복을 위한 분무콘크리트혼합물의 합리적인 배합비결정	34-35	건설	토목	자재
	24-12-②	건물에너지분석에 건물정보모형 리용	36	건설	일반	공통
	24-12-③	사물인터넷과 지리정보체계에 기초한 지능원림체계 확립	36-37	건설	토목	관리
	24-12-④	경소마그네사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대책	37-38	건설	건축	자재
	24-12-⑤	건설시공측량에서 경위의에 의한 수준측량가능성분석	38	건설	토목	공법

- 2021년 이후 건설 관련 논문들의 추이를 유형 기준으로 검토하면 [표 5]와 같음
 - 전체 건수 가운데 공법 관련한 문헌이 31.2%를 차지한 가운데, 자재 관련한 논문도 전체의 30.2%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표 5 「기술혁신」 수록 건설 관련 문헌의 유형별 건수 추이

구 분	2021년 상반기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건 수	비 율
계 획		2			1	1	1	5	2.3%
구 조	1	3	4	3		1	1	13	6.0%
자 재	12	7	11	13	10	5	7	65	30.2%
공 법	4	3	6	6	10	8	30	67	31.2%
설 비	1	3	2	3	3	7	3	22	10.2%
수 송		2	7	3	1	2	4	19	8.8%
관 리		1		1	1	1	8	12	5.6%
공 통				4	6	1	1	12	5.6%
총 계	18	21	30	33	32	26	55	215	100%



• 존재와 관련된 문헌 12건의 기술개발 주요 내용을 정리함

[24-01-②] 그라펜산화물과 규산졸을 리용한 복합혼화재와 세멘트건축재의 질개선

- 그라펜산화물과 규산졸이 세멘트의 수화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개발한 복합혼화제를 리용하여 세멘트건축재의 질을 개선함
- 복합혼화제는 그라펜산화물복합콘크리트감수제에 규산졸과 트리에타놀아민을 첨가하여 제조하였으며, 비소성타일생산에 적용하여 구부림세기(1.5배), 누름세기(1.4배)를 높이고 타일의 광택과 물견딜성을 개선함

[24-01-③] 실리카질방수제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복합활성첨가제 제조

- 방수효과가 높고 원가가 현저하게 낮으며 사용하기 편리한 실리카질방수제용 복합활성첨가제를 제조하였음
- 활성첨가제는 물유리 농도 30%에 불순물을 제거한 후 탄산나트륨염과 알루미늄나트륨염을 일정 비율로 첨가하여 제조하며, 세멘트, 이산화규소, 물유리, 탄산나트륨염, 알루미늄나트륨염, 물을 50:1.1:0.1:0.1:30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24-02-②] 지방산염복합물계 다기능방수제의 제조와 시공방법

- 혼한 원료들을 가지고 방수성이 좋은 마감건축재인 지방산염복합물계 방수재를 제조하는 방법과 시공방법을 검토함
- 지방산염복합물계 방수재는 원료 조성상의 특징으로부터 방수성이 좋고, 보온 및 방음 효과, 콘크리트 세기 증가도 가능한 다기능복합재료로서 원료의 계량 및 배합, 소수성 피막형성, 건조, 포장 등의 제조공정을 거침

[24-04-③] 모형예측수법에 의한 세멘트회전로 소성대의 화염중심위치조정

- 모형예측수법으로 세멘트회전로 소성대에서의 화염중심위치조종을 정확히 실현하여 크링카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함

- 회전로 소성대에서의 온도는 송풍량, 배풍량에 의하여 조종되며, 두가지 랑들사이의 관계에 의해 화염의 중심위치가 변하면서 크링카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예측수법을 적용하여 당초 온도편차가 30℃ 이상이었던 것을 4~5℃로 줄이고 크링카의 구부림세기와 누름세기를 표준값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됨

[24-05-④] 광재습보온판생산을 위한 건조로

- 광재습보온판생산공정에서 생산된 광재습보온판을 건조하는 건조로로서 건조실, 재순환판담바, 재순환판, 인입공기조절용담바, 전열기, 공기배출판, 배출공기조절용담바, 송풍기 등으로 계통이 구성된 건조로를 새롭게 설계제작함
- 신규 건조로는 건조로통과시간 30분, 전열선입구와 출구공기온도 각각 56℃, 178℃, 광재습보온판너비와 두께 각각 1,000과 40mm 등의 기술적특징을 보유함

[24-07-③] 연재-진흙계폐설물을 세멘트부가물로 리용

- 세멘트생산에서 연재-진흙계폐설물을 부가물로 리용하면 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임
- 연재-진흙계폐설물 첨가시 세멘트몰탈의 세기는 일반세멘트몰탈의 세기보다 높으며, 이는 연재-진흙계폐설물이 세멘트몰탈속의 공간을 메워주는 충전제적역할과 함께 폐설물속 활성화성분들이 세멘트속 유리석회와 반응하여 에트링기트생성물을 형성하면서 구조를 보다 치밀하게 해주기 때문임

[24-08-③] 마그-람정석에 의한 세멘트회전로소결대용 생벽돌제조방법

- 마그네샤크링카와 파마그벽돌, 람정석을 해당한 배합비율로 섞어 비소성법으로 생벽돌을 제조함으로써 긴장한 에네르기문제를 해결하고 세멘트회전로소결대용 내화벽돌 제조원가를 낮추어 세멘트크링카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함
- 제조한 벽돌을 세멘트회전로의 소결대에 안붙임하면 운영과정에 생벽돌이 소성되면서 스피텔광물(M2S, MA)들이 형성되어 특징이 좋은 내화벽돌이 되며, 이러한 세멘트회전로의 수명은 종전의 2.3배 이상으로 크링카생산량을 높일수있음

[24-09-⑧] 석재가공을 위한 경계석절단기

- 석재가공설비 국산화를 위해 대상석재가공공장 연석가공공정 경계석절단기 설계
- 경계석절단기는 크게 본체, 문형기동, 주축승강장치, 주축매듭, 테블이송장치, 테블(크기 2,500×1,800), 조종함 등으로 이루어짐

[24-10-⑥] 화강석돌가공품의 피막제거용 산소-수소혼합가스발생기

- 화강석돌가공품의 피막을 제거함으로써 건축물의 미학적측면을 살리고 남은 화강석돌

을 재생리용하기 위한 산소-수소혼합가스발생기를 연구함

- 산소-수소혼합가스발생기는 전해조, 폭발안전장치, 가스포집기, 기액분리기, 정류장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시간당 5m³의 피막을 제거할 수 있음

[24-11-⑥] 세멘트크링카랭각기의 합리적인 운영정수결정

- 세멘트크링카랭각기의 합리적인 운영정수를 결정하는것은 설비의 열효율을 높이고 정상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기술담보가 되며, 크링카 온도는 크링카 이송속도, 송풍량, 송풍기 능력과 위치 등의 영향을 받음
- 크링카 이송속도는 적정하게 낮추고, 송풍량은 크링카 1kg당 2m³가 합리적이며, 크링카 이송구역 내 송풍기의 풍량비율을 적정히 조절하도록 함

[24-12-①] 굴피복을 위한 분무콩크리트혼합물의 합리적인 배합비결정

- 굴피복을 위한 분무콩크리트혼합물에서 첨가제에 따르는 혼합물의 세기 및 부착특징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배합비를 결정함
- 첨가제로서 경화촉진제, 점결제는 분무콩크리트 세기를 높이고, 부착특징도 현저히 개선할 수 있으며, 세멘트와 모래, 물의 배합비는 1:3:0.5로 할 때 경화촉진제와 점결제의 첨가량은 세멘트량의 0.5%와 1% 수준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남

[24-12-④] 경소마그네사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대책

- 경소마그네사는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내부벽체마감시공, 가구생산에 광범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내수성이 약하다는 결함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MgO와 MgCl₂의 배합비, 생산공정과 양생조건의 선택, 변성제로서 무기변성제와 유기 변성제 리용 등을 검토하고, 서술에 의한 백화현상을 없앴음

IV.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완공

2024년 7월, 홍수로 인한 압록강 하류 범람으로 신의주 및 위화도 일대가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이후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을 하면서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 시작. 2025년 2월 착공 후 약 1년 만인 2026년 2월 1일 준공식 진행. 농장, 살림집, 병원 등이 결합된 농촌발전 모델로 제시. 기존 대규모 온실과 달리 가공공장, 저장시설, 원림 경관이 대폭 강화된 모델로, 향후 중국으로 생산물 수출 등 국경 개방 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 있음

1.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조성 배경

- 2024년 여름, 평안북도 및 자강도 지역에 대규모 홍수 발생으로 압록강 하류인 신의주 지역에 상당한 피해 발생. 해당 지역의 복구 및 재건 사업 직후, 2025년 2월부터 압록강 범람지역(위화도) 일대에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 계획을 밝힘.
- 온실농장 건설은 2019년 중평온실농장(함경북도) 건설로부터 2022년 연포(함경남도) 온실농장, 2024년에는 평양 강동 온실농장 건설에 이르기까지 북한 당국이 인민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 개선을 위한 대표적 시설로 조성
- 온실농장은 단순히 현대적 온실 건설뿐 아니라 농장 단지 내 살림집, 복합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 모델의 하나로 이해됨
- 신의주 온실농장은 기존 농장에 비해 규모적인 면에서 대규모 시설로 계획되었으며, 온실 재배 작물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을 포함한 농장 노동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좀 더 발전된 지역발전 모델로 이해할 수 있음
- 특히, 지방발전 20×10 정책과 함께 지방의 부흥과 생산력 증대를 통한 자력갱생의 기반 시설로 온실농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임

그림 1 위성자료로 본 신의주 위화도 온실농장 부지



출처: 데일리 NK, 2025.02.27., "신의주 대규모 온실농장 상습 침수 위험지에 짓는다" <https://www.dailynk.com/20250227-3/>

2.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조성 경과

- 2025년 2월 10일, 온실농장 공사 착공
 - 2024년 압록강 하류 수해 지역 복구 및 살림집 재건 사업 준공(2024년 12월) 시, 김정은 위원장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신의주 지역에 아시아 최대규모(450 정보, 약 135만평) 온실농장 건설 계획 발표 이후 2월 10일, 온실농장 공사 착공식에 김정은 위원장 참석.

“나라의 국경관문인 신의주시 하단리와 의주군 서호리지역에는 최대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기지가 지방진흥의 활기차고도 거목적인 진일보를 상징하는 창조물로 일떠서게 된다. 450정보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중심건설착공식이 2월 10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노동신문, 2025.02.11일자)

“이곳에는 최근년간 건설한 대규모온실농장들을 다 합친것보다 더 방대한 면적에 각이한 유형의 남새온실들과 남새가공공장, 저장시설뿐 아니라 남새과학연구중심과 시험재배온실들, 수백세대의 살림집과 려관, 편의봉사시설들까지 일시에 일떠서게 된다” (노동신문, 2025.02.11일자)

- 평양 살림집 건설에 주력 투입되었던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군인들이 온실농장 조성에 투입
- 상반기 중 수백동의 온실, 종업원 살림집, 공공건물 등 공사 추진
 - 2월 착공 이후 약 6개월 내 건설 대상 골조공사 마무리 및 내부 공사 진행
 - 2025년 8월, 김정은 위원장 현지 지도에서 제9차 당대회까지 완공할 것을 강조

“착공후 반년도 안되는 기간에 모든 건설대상들의 골조공사를 전부 결속하고 미장과 타일붙이기, 온실구획의 구내도로성충공사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안아온 인민군장병들은 그 기세를 증폭시켜 트라스설치와 각종 시설공사, 지대정리실적을 계속 끌어올리고있다.”

(노동신문, 2025. 07. 30일자)

- 2025년 10월, 김정은 위원장 추가 현지 지도를 통해 건설 속도전 독려 및 새로운 지방발전의 성과가 될 것을 강조
 - 10월 17일, 마감단계에 들어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 사업 현지 지도
 - 건설실적 90% 수준으로 유리토양온실구역, 남새과학연구중심, 서호 분장 등을 직접 현지 지도
 -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에 대해 ‘지역경제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하기 위한 또 하나의 거창장 창조사업’임을 강조
- 2025년 11월, 전체 사업량의 97% 수준 진행으로 완공단계 진행
 - 농장 지구 조정 및 방풍림 조성을 위한 지대정리 완료
 - 저류지 지대 정리 완료 단계 및 수백 정보 잔디심기 완료 단계
 - 농장 지구 간선도로와 온실 구획 내 도로포장작업 완료 단계, 온실과 남새과학연구중심, 여관, 편의봉사시설,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 그 외 수백세대 살림집들의 전력 및 급배수 계통에 대한 시운전 진행 중

- 2026년 1월, 김정은 위원장 현지 지도 및 건설자들 격려
- 2026년 1월 17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 5,000명이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장에서 대합창 공연 진행. 새로운 건설 성과 완료를 앞두고 정치문화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해석
- 2026년 2월 1일,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준공식 진행
 - 착공 1년 만에 약 450 정보 규모의 대규모 온실농장 완공
 - 온실 뿐 아니라 노동자 살림집과 여러 복지 시설을 포함하여 농업단지 구역 조성으로, 중국 단둥시와 마주하고 있는 신의주시 압록강 하류 섬 지구에 완공
 - 2025년 8월, 9월, 10월, 1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 방문으로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에 각별한 관심. 재난 현장을 새롭게 변모시킨 것에 자부심 강조

“우리시대의 비약적 발전상을 직관해주는 귀중한 부흥의 재부…위화도 지구의 경이적인 전변은 우리 당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산 증건… 믿음직한 계승자들이 있어 조선혁명은 영원히 필승 불패할 것”
(노동신문, 2026. 02. 02일자)

그림 2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준공식과 완공 후 내외부



출처: 한겨레, 2026.02.02., "축구장 625개 크기 '신의주 온실농장' 준공... 김정은 "천년 흥수에도 끄떡없어"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42831.html>



출처: SPN서울평양뉴스, 2026.02.28., "北, 신의주온실농장을 재난 극복의 상징으로 부각"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25>



출처: 뉴스 1, 2026.02.28., "北, '섬지구에 펼쳐진 변혁상'...신의주온실 종합농장 조명" <https://www.news1.kr/photos/7772785>



출처: 중앙일보, 2026.02.02., "北, 신의주 온실공장 준공... 김정은 '당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창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996>

3. 시사점

- 2019년 이후 인민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해 도입한 대규모 온실농장의 가장 최신 성과물이자 대형 성과물로, 특히 2024년 홍수 피해가 컸던 압록강 하류 지역을 재건, 새로운 도시 경관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재난 극복의 상징으로 부각
 - 최근 조성된 온실농장(증평, 련포(연포), 평양 강동)들도 200정보 이상의 대규모 온실농장으로 규모와 시설 면에서 점진적으로 현대화, 기술화되고 있음을 강조
 - 특히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은 최근 조성된 온실농장 중 가장 대규모 시설로, 다양한 온실 뿐 아니라 살림집, 병원 및 종합봉사시설 등을 겸비함으로써 재난 지역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려는 노력이 특징적
 - 재난 지역이 현대식 종합농장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내부 동요 관리 및 지금까지 유지해온 자력갱생 노선을 강조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부각 목적으로 해석
- 기존 농장과는 차별적인 시설의 배치와 신의주라는 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 자원으로서의 활용 및 국경 경제의 매개체로 활용될 가능성 전망
 - 공식적으로 북한 매체를 통해 언급된 바 없으나, 종합온실농장이 국경도시 신의주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특징과 기존 대규모 온실농장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던 가공공장, 저장시설 그리고 관광적 요소로 볼 수 있는 원림 경관에 집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향후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진다면 중국으로의 농작물 수출 및 국경 개방 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 있음
- 건설개발 분야의 기존 전략대로 대규모 인력(청년 및 군인)을 투입하여 속도전 전략 추진. 건설 착공에서 완공까지 1년 내 시간 소요 강조
 - 온실종합농장 건설의 주요 인력으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 활용. 이들은 평양시 주요 살림집 건설에 참여한 인력이며, 살림집 및 건축물 건설에 익숙한 인력으로 지역 군인 인력과 더불어 청년 전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원과 장비 부족을 대규모 인력 투입과 속도전으로 극복하려는 기존의 건설 전략을 그대로 보여줌
 -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차례에 걸친 현지 지도와 완공 이후 제9차 당대회에서 주요 성과로 발표
 - 다만, 건설 자재와 장비 등의 공급은 평안남북도 그리고 자강도 등 인근 지역에서 건설 자재를 직접 제작 및 확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지역의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지방발전 20×10 추진 전략과 맥락을 같이 함

PART 3

건설 · 개발동향 분석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rend Analysis



I. 분석대상 시설 유형 분포¹

- 2025년 3.4분기 건설개발동향 관련 최종 분석대상(‘개발’ 기준)보도 건수는 426건
- 가장 높은 빈도로 집계된 시설유형은 도시생활시설(135건)이었으며, 공장시설(84건), 교육복지시설(53건), 농림어업시설(45건), 문화휴양시설(29건) 순이었음
- 하반기 특징상 상반기 대비 보도건수가 약 2.8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 대비 약 1.3배 증가했음

표 1 분석대상 사업의 시설유형별 기사 건수 분포

시설유형	개발사업 기사 건수
교통물류시설	14
공급시설	15
발전시설	12
발전시설 외	3
공장시설	84
도시생활시설	135
살림집	125
살림집 외	10
국토지역개발	25
특구/개발구	1
특구/개발구 외	24
문화휴양시설	29
교육복지시설	53
광업자원시설	11
농림어업시설	45
환경방재시설	15
합 계	426

1 조선일보 등 다른 신문의 기사가 대부분 노동신문 기사와 중복되어, 노동신문에 한정하여 기사를 분석하였음.

표 2 유형별 주요사업 목록

시설유형	주요사업	대표출처* 일자
교통물류시설	■ 함경북도, 수성천 다리 신규 건설 ■ 황해남도, 해주시~재령군 도로포장 완공 ■ 평양직할시, 평양해운사업소 평천여객 역사 준공 ■ 함경남도, 단천시 금골청년역 개건 준공	07.15 08.10 11.29 12.14
공급시설	■ 자강도, 우시군 3호발전소 완공 ■ 평양직할시, 계통연결형 태양빛발전소 시범건설 완공 ■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 ■ 평양직할시, 동평양화력발전소 3호 보일러 대보수 완료	09.13 10.29 11.21 12.02
공장시설	■ 전국, 2차 지방공업공장 준공 ■ 전국, 마감건재생산기지 조성, 개건현대화 ■ 전국, 고려약공장 건설	12.16 외 09.24 11.05 외
도시생활시설	■ 전국, 수천 세대 농촌살림집 완공 ■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살림집 사업 완공 ■ 평양시, 화성지구 4단계 사업 마무리 단계 ■ 강원도 원산시, 현대적인 고층살림집 새로 건설, 완공	09.24 11.24 10.15 11.01
국토지역개발	■ 함경남도, 낙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 준공 ■ 황해남도, 해주시 도소재지 면모 일신 ■ 양강도, 삼지연시 5개 호텔 신규 건설 완공 ■ 평안북도, 애도간석지 1구역 공사 완공	08.31 10.20 12.23 ◎12.19
문화휴양시설	■ 강원도, 통천군 자산리 해수욕장 준공 ■ 남포특별시, 서해갑문 해수욕장 개건 및 물놀이장 증설 ■ 평양직할시, 빙상관 개건 ■ 자강도, 강계시 외산지구 강계 동물원 조성 ■ 함경남도, 함흥경기장 개건 준공	07.24 07.26 08.15 09.07 12.01
교육복지시설	■ 평양직할시, 평양종합병원 준공 ■ 평양직할시, 김일성종합대학 실험교육중심 전국본보기로 조성 ■ 평안남도, 100여개 학교 및 분교, 유치원 신설 및 개건 완료 ■ 남포특별시, 룡강군병원 준공	10.07 11.15 12.11 12.30
광업자원시설	■ 평안남도, 홍천탄광 싸이로식 석탄저장고 완공 ■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250만산 대발파 진행 ■ 양강도, 백암탄광 니탄가공분사업소 신규 조성 ■ 황해남도, 삼천탄광 새 갱 조성 개발 ■ 서부지구 여러 탄광 벨트콘베이어 공사 개건 완료	08.24 10.02 10.19 10.23 12.31
농림어업시설	■ 전국, 올해 계획된 16만여 정보 논 관개공사 완료 ■ 자강도, 강계시 121호 임업연합기업소 새 임지 개발 ■ 자강도, 검은고니사 및 타조사 건설 ■ 황해남도, 신원군 종어장 개건공사 완료	07.01 09.08 10.25 11.24
환경방재시설	■ 양강도, 삼수군 주요 강하천 정리 및 사방야계공사 완료 ■ 함경남도, 단천시 해안방조제 공사 완료	10.21 11.05

* '대표출처' 노동신문 기사 일자임. ◎표기는 조선신보 기사임.

II. 유형별 주요 건설·개발 동향

1. 교통물류시설

- 함경북도, 수성천 다리 신규 건설(노동신문, 07.15)
- 황해남도, 해주시~재령군 도로포장 완공(노동신문, 08.10)
- 평양직할시, 평양해운사업소 평천여객 역사 준공(노동신문, 11.29)
- 함경남도, 단천시 금골청년역 개건 준공(노동신문, 12.14)

가. 함경북도, 수성천 다리 신규 건설(노동신문, 07.15, 5면)

- (내용) 함경북도에서 수성천에 길이 400여m의 다리를 새로 건설하여 청진시 수남구역과 송평구역을 오가는 사람들의 교통상편의를 더 잘 보장해줄수 있게됨

나. 황해남도, 해주시~재령군 도로포장 완공(노동신문, 08.10, 4면)

- (내용) 황해남도가 몇달동안 해주시와 재령군사이의 수십km에 달하는 방대한 도로포장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용벽공사, 물도랑정리 등을 마감단계에서 내밀고있음

다. 평양직할시, 평양해운사업소 평천여객 역사 준공(노동신문, 11.29, 4면)

- (내용) 대동강기슭에 대기홀, 영예군인방, 애기어머니방, 손집보관실, 상점, 식당 등으로 꾸러진 평양해운사업소 평천여객역사가 현대적으로 건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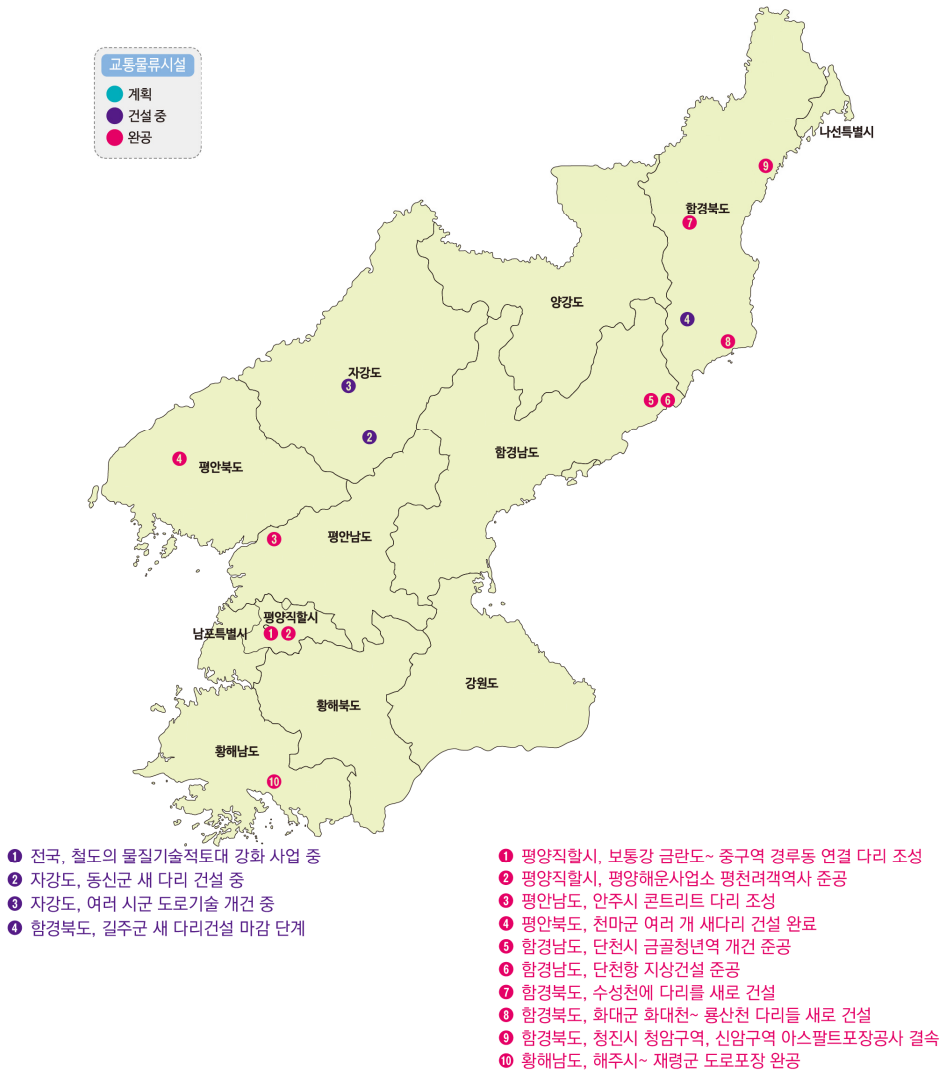
라. 함경남도, 단천시 금골청년역 개건 준공(노동신문, 12.14, 4면)

- (내용) 단천철도분국 금골청년역사의 내외부가 산간지대의 특징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객봉사기지로 손색없이 꾸러짐

표 3 2025년 하반기 완료 교통물류시설 목록

시설구분	지역	교통물류시설 완료 사업	계재일
교량	함경북도	수성천에 길이 400여m 다리 새로 건설	2025.07.15
교량	평양직할시	보통강 금란도~중구역 경루동 연결 다리 조성	2025.08.05
도로	황해남도	해주시와 재령군사이 수십km 도로포장	2025.08.10
교량	함경북도	화대천(백수십m), 룡산천 다리 낙달동안 건설	2025.09.04
도로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신암구역 기본도로 아스팔트포장 결속	2025.10.17
교량	평안남도	안주시 수백m길이 콘크리트다리 완공	2025.10.20
교량	평안북도	천마군 천창군민다리, 고막골다리 등 다리건설과 서고2다리개건공사 동시 완료	2025.11.25
해운역사	평양직할시	평양해운사업소 평천여객역사 준공	2025.11.29
항만	함경남도	단천항 지상건설 완공	2025.12.03
철도역사	함경남도	단천시 금골청년역 개건 준공	2025.12.14

그림 1 교통물류시설 건설개발 동향



2. 공급시설

- 자강도, 우시군3호발전소 완공(노동신문, 09.13)
- 평양직할시, 계통연결형 태양빛발전소 시범건설 완공(노동신문, 10.29)
-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노동신문, 11.21)
- 평양직할시, 동평양화력발전소 3호보일러 대보수 완료(노동신문, 12.02)

가. 자강도, 우시군3호발전소 완공(노동신문, 09.13, 5면)

- (내용) 우시군은 송전선공사, 제방공사 등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배수문들도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여 중업원살림집들과 함께 중소형발전소를 새로 일떠세움

나. 평양직할시, 계통연결형 태양빛발전소 시범건설 완공(노동신문, 10.29, 5면)

- (내용) 동대원구역 대신동과 대동강구역 옥류1동 일부 아파트들의 지붕위에 각각 수십 kW 능력의 계통연결형태양빛발전소들을 건설하여 국가전력망을 통해 공급
 - 김일성종합대학 지능태양빛전지제작소, 평양시송배전부에서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자연에너저기로 주민들의 취사, 난방을 보장하고 있음

다.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노동신문, 11.21, 1면)

- (내용) 강원도에서 중점과업으로 내세우고 총력을 기울여온 6개 수력발전소중 마지막건설대상인 회양군민발전소의 준공식이 11월 20일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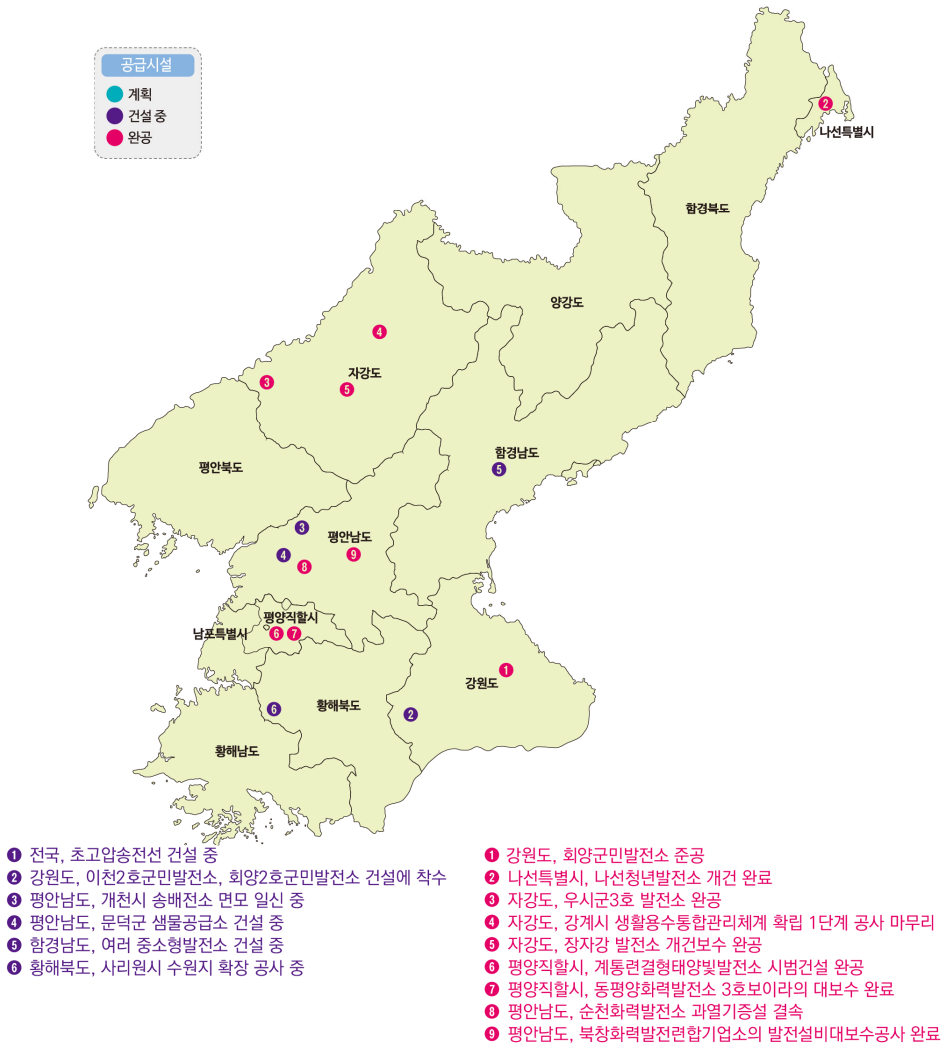
라. 평양직할시, 동평양화력발전소 3호보일러 대보수 완료(노동신문, 12.02, 1면)

- (내용) 동평양화력발전소가 두달 남짓 기간에 3호보일러를 대보수하여 열생산설비들을 정비하고 제진계통을 보강하여 석탄 연소률을 높이면서 작업환경을 개선함

표 4 2025년 하반기 완료 공급시설 목록

시설구분	지 역	공급시설 완료 사업	계재일
발전시설	자강도	우시군3호발전소 완공	2025.09.13
발전시설	평안남도	순천화력발전소 과열기중설 계속	2025.10.09
발전시설	평안남도	북창화력발전전연합기업소 발전설비대보수공사 완료	2025.10.15
발전시설	평양직할시	계통연결형태양빛발전소 시범건설 완공	2025.10.29
발전시설	나선특별시	나선청년발전소 개건 완료	2025.10.31
수도가스	자강도	강계시 생활용수통합관리체계 확립 1단계 공사 마무리	2025.11.05
발전시설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	2025.11.21
발전시설	평양직할시	동평양화력발전소 3호보일러의 대보수 완료	2025.12.02
발전시설	자강도	장자강발전소 개건보수 완공	2025.12.16

그림 2 공급시설 건설개발 동향



3. 공장시설

- 전국, 2차 지방공업공장과 종이공장 준공(노동신문, 12. 16 外)
- 전국, 마감건재생산기지 조성, 개건현대화(노동신문, 09. 24)
- 전국, 고려약공장 건설(노동신문, 11. 05, 5면)

가. 전국, 2차 지방공업공장과 종이공장 준공(노동신문, 12. 16, 7면 外)

- (내용) 함경북도 부령군 등의 지방공업공장 20개소와 종이공장 1개소 완공

시·도	시·군	내용·착공일	준공일
평양직할시	강동군	지방공업공장(02.28), 병원, 종합봉사소(02.06)	12.15
남포특별시	룡강군	지방공업공장, 병원(02.09)	12.29
개성특별시	개풍구역	지방공업공장, 종합봉사소(02.28)	12.26
평안남도	신양군	지방공업공장(02.24)	12.15
	북창군	지방공업공장(02.27)	12.18
	은산군	종이공장(02.28)	12.28
평안북도	대관군	지방공업공장(02.25)	12.15
	염주군	지방공업공장(02.27)	12.26
함경남도	정평군	지방공업공장, 종합봉사소(02.24)	12.24
	신포시	지방공업공장(02.25)	12.19
함경북도	길주군	지방공업공장(02.27)	12.23
	부령군	지방공업공장(02.28)	12.15
황해남도	배천군	지방공업공장(02.27)	12.20
	장연군	지방공업공장(02.28)	12.18
황해북도	곡산군	지방공업공장(02.24)	12.20
	황주군	지방공업공장, 양곡관리소(02.26)	12.16
강원도	세포군	지방공업공장(02.25)	12.20
	철원군	지방공업공장(02.27)	12.18
자강도	랑림군	지방공업공장(02.25)	12.15
	장강군	지방공업공장(02.27)	12.18
량강도	김정숙군	지방공업공장(02.28)	12.20

나. 전국, 마감건재생산기지 조성, 개건현대화(노동신문, 09. 24, 5면)

- (내용) 각 도와 시, 군에서 지방건설에 필요한 마감건재생산토대 조성
 - 황해남·북도, 함경남도 성천강타일공장, 함경북도, 자강도 강계건재공장 등

다. 전국, 고려약공장 건설(노동신문, 11. 05, 5면 外)

- (내용) 전국에서 고려약공장 건설 및 개건 현대화
 - 양강도 운흥군 고려약공장 준공(11.05), 갑산군 완공(12.22)
 - 자강도 만포시, 랑림군, 고평군과 자성군 등 10여 개 고려약공장 건설(11.11)
 - 평안북도에서 수십 개 고려약공장 개건현대화(12.04)
 - 함경남도 함흥고려약공장 개건 준공(12.06), 강원도 원산고려약공장 마감단계(12.17) 등
 - 평안남도, 증산군, 녕원군, 숙천군, 안주시, 개천시 등지에서 고려약공장 건설(12.15)

그림 3 공장시설 건설개발 동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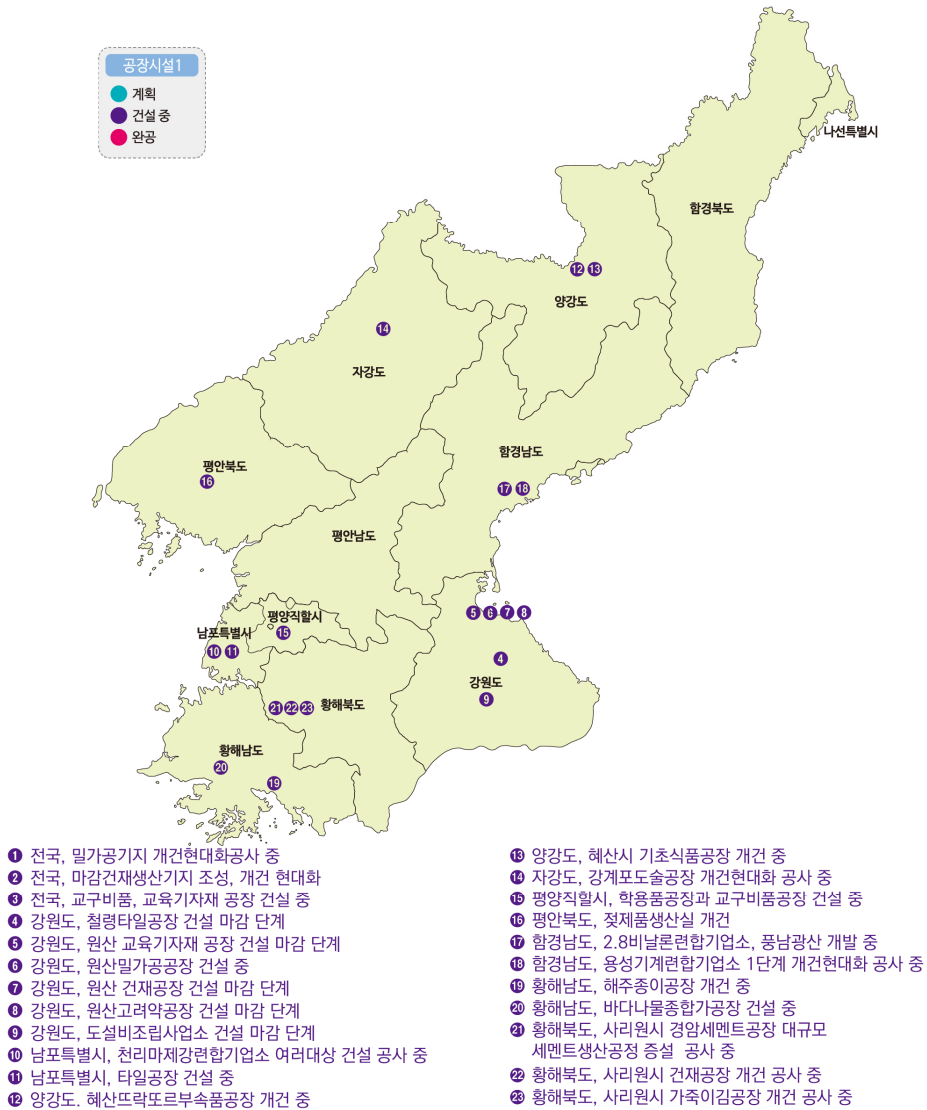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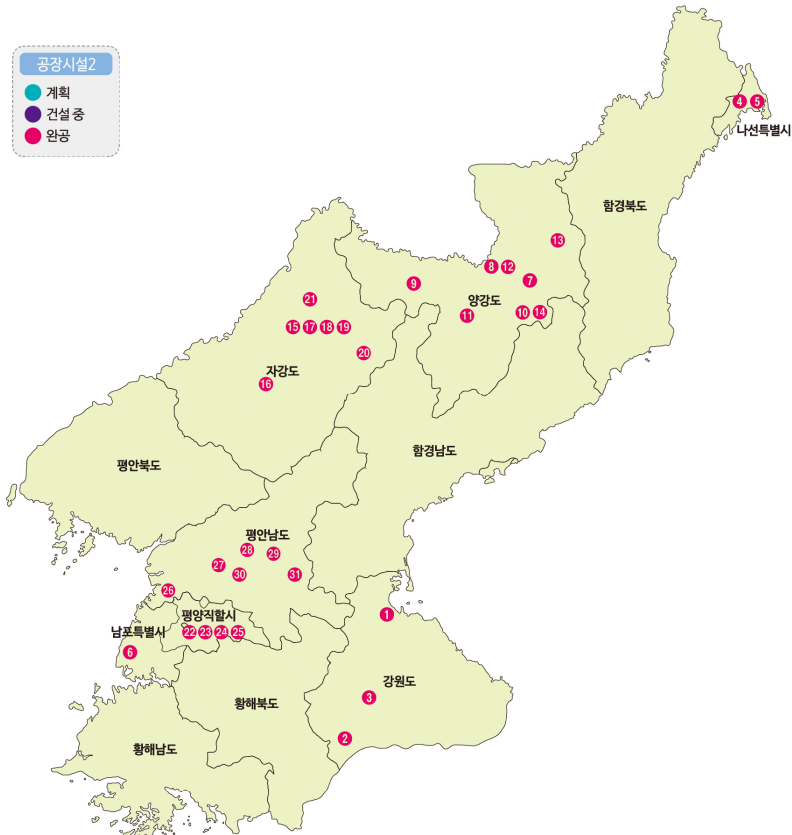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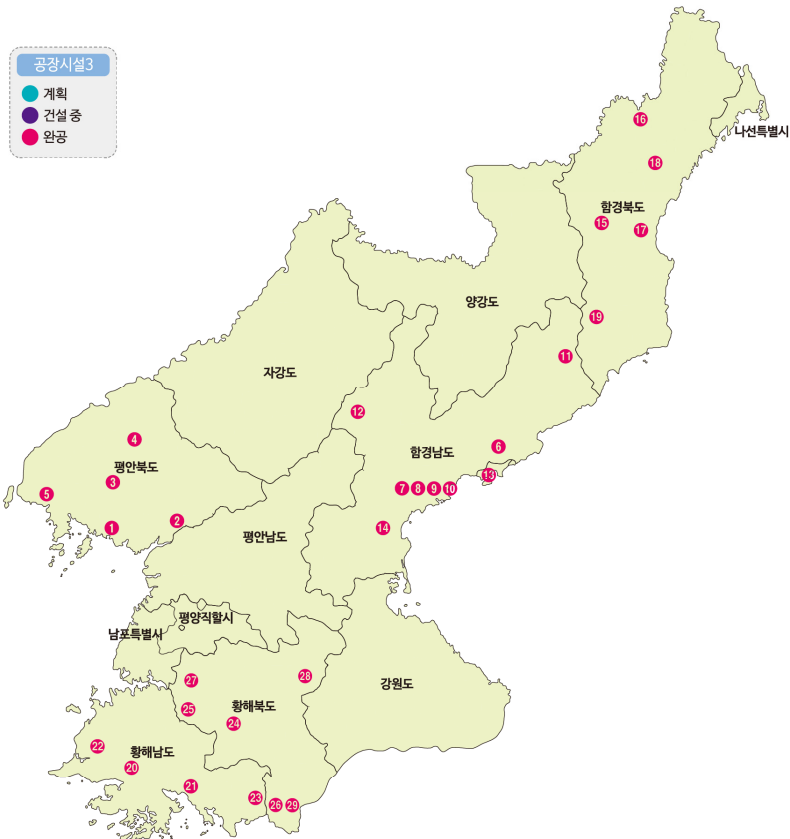
그림 4 공장시설 건설·개발 동향(2)



- 1 강원도, 원산철도차량공장 화학부속품 생산 토대 새로 마련
- 2 강원도, 철원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3 강원도, 세포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4 나선평별시, 농기계작업소 개건현대화 및 조업식
- 5 나선평별시, 나선평합성소재공장 개건현대화
- 6 나선평별시, 지방공업공장 준공
- 7 양강도, 운흥군 고려약공장 건설
- 8 양강도, 해산연결농기계공장 개건 결속
- 9 양강도, 김정숙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10 양강도, 갑산군 고려약공장 신규 건설 완료
- 11 양강도, 도 타일공장 건설 준공
- 12 양강도, 해산시 해산 건재공장 및 해산 기와공장 개건 완료
- 13 양강도, 백암군 건재생산지지 건설 준공
- 14 양강도, 갑산군 건재생산지지 건설 준공
- 15 자강도, 강계건재공장 개건완료

- 16 자강도, 여러 시군들 고려약공장 건설
- 17 자강도, 강계뜨락뜨락부속품공장 개건
- 18 자강도, 강계가죽이김공장 신규 건설
- 19 자강도, 강계보도블록공장 신규 건설
- 20 자강도, 남원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21 자강도, 장강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22 평양직할시, 학생신발공장 신규조성
- 23 평양직할시, 민들레종이공장 개건 준공
- 24 평양직할시, 강동군 지방공업공장, 종합봉사소 준공
- 25 평양직할시, 학생교복공장 신규조성
- 26 평안남도, 한천수산물산업소 첫질가공공장 개건
- 27 평안남도, 순천건재공장 개건 준공식
- 28 평안남도, 시, 군고려약공장을 개건현대화
- 29 평안남도, 북청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30 평안남도, 은산군 종이공장 완공
- 31 평안남도, 신양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그림 5 공장시설 건설개발 동향(3)



- | | |
|--------------------------------------|-----------------------------|
| ① 평안북도, 광산군, 선천군 소석회생산기지 건설 | ①⑥ 함경북도, 회령시 농기계작업소 개건 |
| ② 평안북도, 박천군 양랑곡관리소 설비 현대화와 새 가공설비 설치 | ①⑦ 함경북도, 경성타일공장 개건준공 |
| ③ 평안북도, 고려악공창들 개건 현대화 | ①⑧ 함경북도, 부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 ④ 평안북도, 대관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①⑨ 함경북도, 길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 ⑤ 평안북도, 염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②① 황해남도, 강철공장 신설 |
| ⑥ 함경남도, 북청군 과일가공공장 개건 | ②② 황해남도, 해주기와공장 건설 준공 |
| ⑦ 함경남도, 함흥련결농기계공장 개건 준공 | ②③ 황해남도, 장연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 ⑧ 함경남도, 함흥시세멘트공장에 기와보공장 신규 준공 | ②④ 황해남도, 배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 ⑨ 함경남도, 함흥밀가공공장 개건준공 | ②⑤ 황해북도, 시, 군들에서 젃제품생산설개건 |
| ⑩ 함경남도, 함흥고려악공장 개건 준공 | ②⑥ 황해북도, 사리원설비조립사업소 면모 일신 |
| ⑪ 함경남도, 단천시 철길자갈생산기지 건설 | ②⑦ 황해북도, 개성시 농기구공장 개건 |
| ⑫ 함경남도, 장진군 감자가루생산공장 신규 건설 완료 | ②⑧ 황해북도, 황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 ⑬ 함경남도, 신포시 지방공업공장 준공 | ②⑨ 황해북도, 곡산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 ⑭ 함경남도, 정평군 지방공업공장 및 종합봉사소건설 완공 | ②⑩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구역 지방공업공장 준공 |
| ⑮ 함경북도, 원료기지사업소 일신 | |

4. 도시생활시설

- 전국, 수천 세대 농촌살림집 완공(노동신문, 09. 24)
-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살림집 사업 완공(노동신문, 11. 24)
- 평양시, 화성지구 4단계 사업 마무리 단계(조선중앙통신, 10. 15)
- 강원도 원산시, 현대적인 고층살림집 새로 건설, 완공(노동신문, 11. 01)

가. 전국, 수천 세대 농촌살림집 완공(노동신문, 09. 24, 5면)

- (내용) 9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수십개 시, 군들에서 수천 세대의 농촌살림집 완공
 - 2021년 모든 시, 군들에 지방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려단을 조직하도록 조치하고, 그로부터 4년 가까운 세월이 흐름 시점에서 건설려단들의 능력에 차이가 있음
 - 직할시들과 각 도들의 종합순위를 보면 평양시, 라선시, 평안북도, 함경남도가 앞서고
 - 시, 군, 구역들로 보면 랑강구역, 선봉구역, 정주시, 운산군, 함주군, 금야군, 정평군, 단천시 등이 모범적임
 - 농촌건설정책 집행에서 시, 군 건설려단들의 기능공대렬 강화가 관건임을 명심해야

나.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살림집 사업 완공(노동신문, 11. 24, 3면)

- (내용) 단천시 룡천동, 새문화동, 본산동, 전진2동, 대흥1동에 살림집들이 일떠섬
 - 검덕지구를 국가적인 본보기 산간도시, 광산도시로 전변시키는 사업
 - 작업공정을 로력절약형, 자재절약형으로 전환하고, 지방원료에 의거하여 자체로 생산한 블록으로 도로공사와 하천주변, 산기슭 옹벽공사도 성과적으로 마무리 함
- (주체) 단천지구광업총국, 함경남도

다. 평양시, 화성지구 4단계 사업 마무리 단계(조선중앙통신, 10. 15²)

- (내용)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마감 공사 추진
 -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지휘부에서는 질보장을 위한 검사체계를 세우고 시공, 감독일꾼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고 원림경관조성사업도 진행
- (주체) 평양시 살림집 건설지휘부, 사회안전성려단, 성·중앙기관 제1려단, 평양건설위원회려단 평진건설관리국련대, 이밖에 성·중앙기관 제3여단, 철도성대대 등

라. 강원도 원산시, 현대적인 고층살림집 새로 건설, 완공(노동신문, 11. 01, 2면)

- (내용) 항구문화도시 강원도 원산시에 현대적인 고층살림집들이 새로 일떠섬
- (주체) 원산건설사업소, 송도원건설사업소, 원산시건설려단 등 건설자들

2 SPN(2025.10.15.), “北,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내외부 마감공사 진행”에서 재인용. 한편, 4단계 사업을 2026년 2월 16일 준공한 직후, ‘5단계’ 건설사업에 돌입(연합뉴스, 2026.02.19., “北, 평양 화성지구 4단계 준공 이틀 뒤 5단계 사업 착공”).

그림 6 도시생활시설 건설개발 동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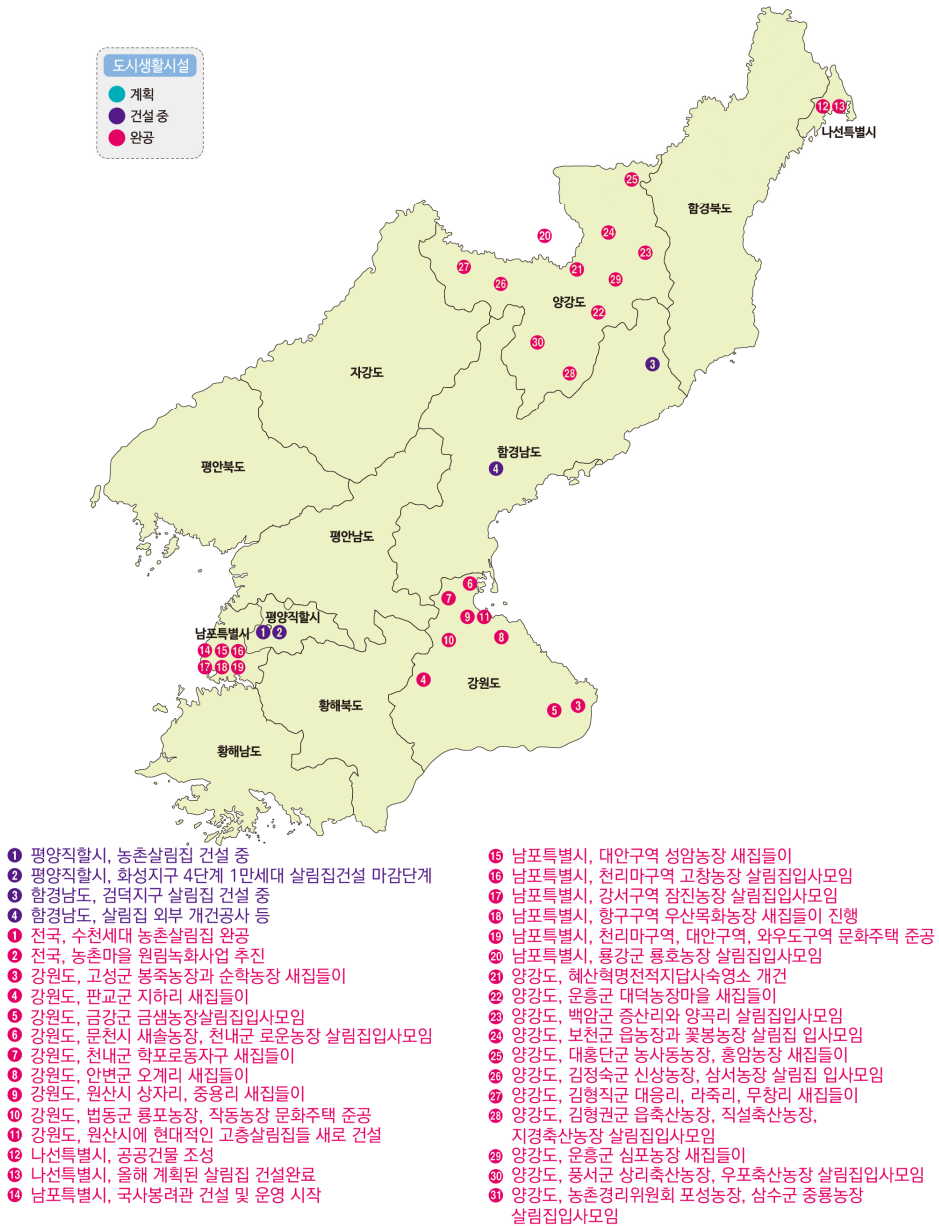


그림 7 도시생활시설 건설개발 동향(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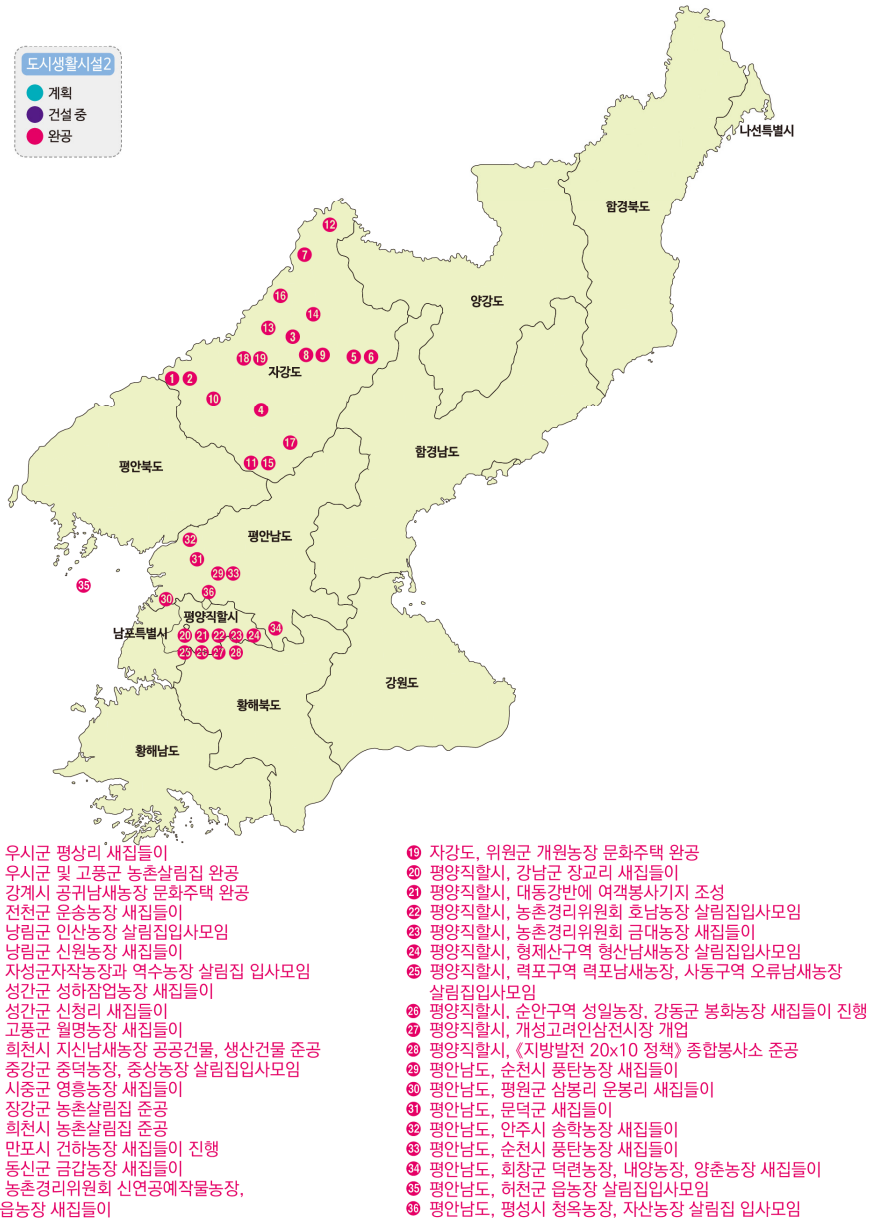


그림 8 도시생활시설 건설개발 동향(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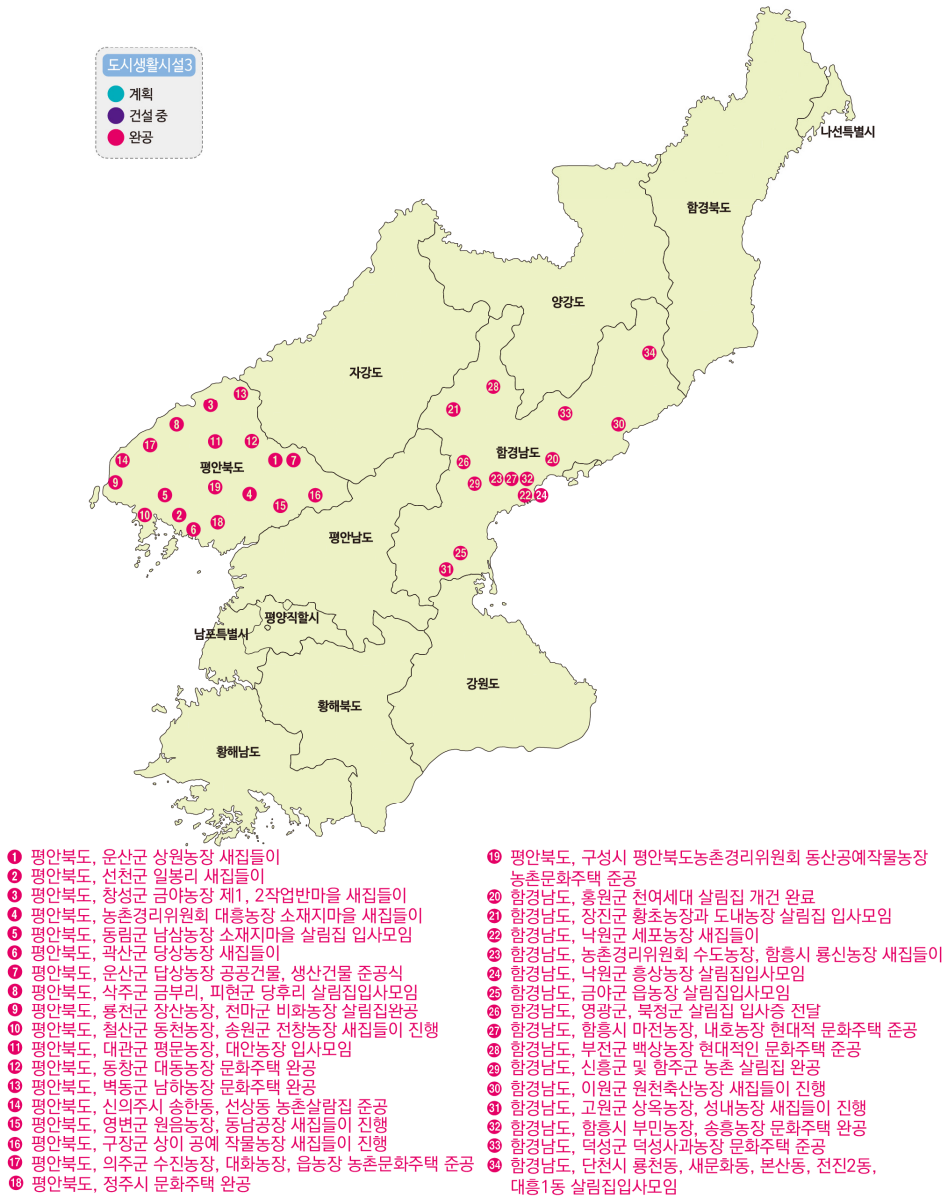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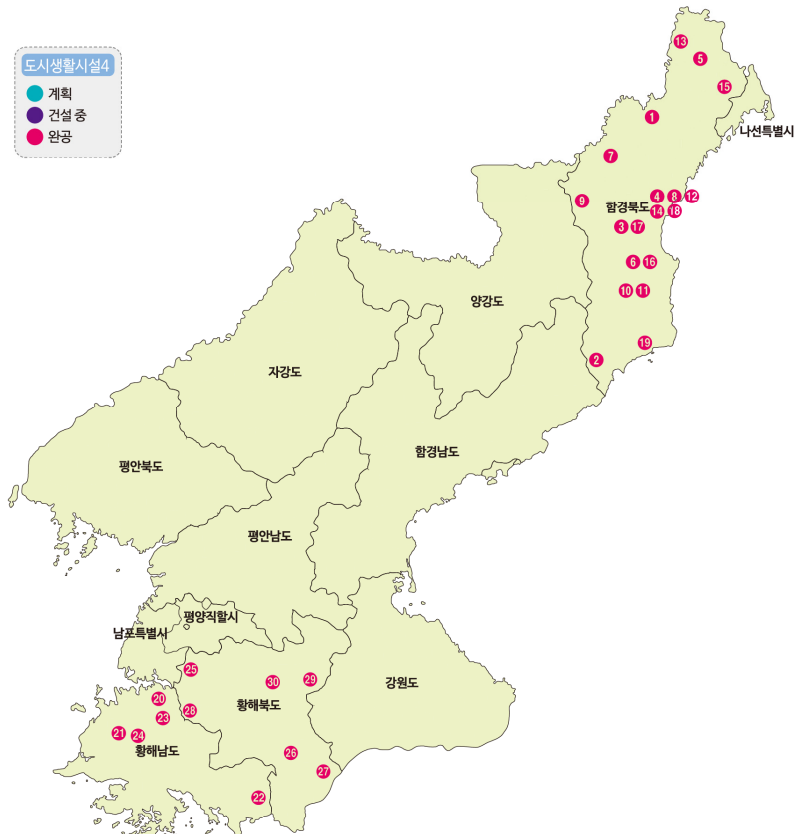


그림 9 도시생활시설 건설개발 동향(4)



- 1 함경북도, 회령시 창대축산농장 새집들이
- 2 함경북도, 김책시 상평축산농장 살림집입사모임
- 3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리 새집들이
- 4 함경북도, 청진시 봉해남새농장 새집들이
- 5 함경북도, 경원군 성내농장 새집들이
- 6 함경북도, 어랑군 칠항리 살림집 입사모임
- 7 함경북도, 무산군 독소농장 새집들이
- 8 함경북도, 청진시 농포남새농장 살림집입사모임
- 9 함경북도, 연서군 연수리 살림집입사모임
- 10 함경북도, 명간군 읍지구 새집들이
- 11 함경북도, 명간군 신양농장 살림집입사모임
- 12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사구농장 살림집입사모임
- 13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살림집입사모임
- 14 함경북도, 청진학생교복공장 노동자합숙 건설
- 15 함경북도, 경흥군 대양농장, 부령군 형제농장 새집들이
- 16 함경북도, 어랑군 삼향농장 살림집입사모임
- 17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농장 공공건물, 생선건물 준공식
- 18 함경북도, 청진관 개관, 고기쟁반국수와 램면 등을 봉사
- 19 함경북도, 화대군 금위농장, 명천군 황곡농장마을 살림집입사모임
- 20 황해남도, 은천군 마두농장 새집들이
- 21 황해남도, 송화군 약산농장 살림집입사모임
- 22 황해남도, 배천군 역구도농장 새집들이
- 23 황해남도, 배천군 역구도농장 새집들이
- 24 황해남도, 안악군 월지농장 새집들이 진행
- 25 황해남도, 삼천군 추룡농장 새집들이 진행
- 26 황해북도, 송림시 청운농장 새집들이
- 27 황해북도, 송화군 광정농장, 만달남새농장 새집들이
- 28 황해북도, 동춘경리위원회 은정축산농장 새집들이
- 29 황해북도, 사리원방직공장 노동자합숙 완공
- 30 황해북도, 곡산군 문양농장, 평암농장과 문화주택 준공
- 31 황해북도, 수안군 산북리 농촌살림집 새집들이

5. 국토지역개발

- 함경남도, 낙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 준공(노동신문, 08.31)
- 황해남도, 해주시 도소재지 면모 일신(노동신문, 10.20)
- 양강도, 삼지연시 5개 호텔 신규 건설 완공(노동신문, 12.23)
- 평안북도, 애도간석지 1구역 공사 완공(조선신보, 12.19)

가. 함경남도, 낙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 준공(노동신문, 08.31, 1면)

- (내용) 자연지리적 특징에 맞게 수산업 발전을 통해 지방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낙원포 바다가양식사업소를 준공
 - 선진적인 생산시설 및 가공공정을 갖춘 특색있는 수산물 생산기지와 함께 주변의 자연 풍치와 어울리면서도 편리성과 미학성, 조형예술성 높은 독특한 수백세대의 어촌문화 주택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움
 - 제품전시실과 과학기술보급실, 종합조종실, 밥조개 및 다시마가공장 등을 조성한 이 사업은 착공 후 약 190여일 만에 준공하면서 바다가 마을 경관이 전변되었음을 강조

나. 황해남도, 해주시 도소재지 면모 일신(노동신문, 10.20, 5면)

- (내용) 해주시에서 도소재지의 면모를 일신
 - 광장 주변, 다층살림집 개건 보수, 외장재 칠하기, 보도블록 깔기, 전광판 설치 등의 작업 진행
 - 지방 원료에 의거하여 만든 색 시멘트와 외장재를 다층살림집, 공공건물 외부 공사에 효과적으로 활용. 그 외 도로기술개건 및 하천정리공사도 적극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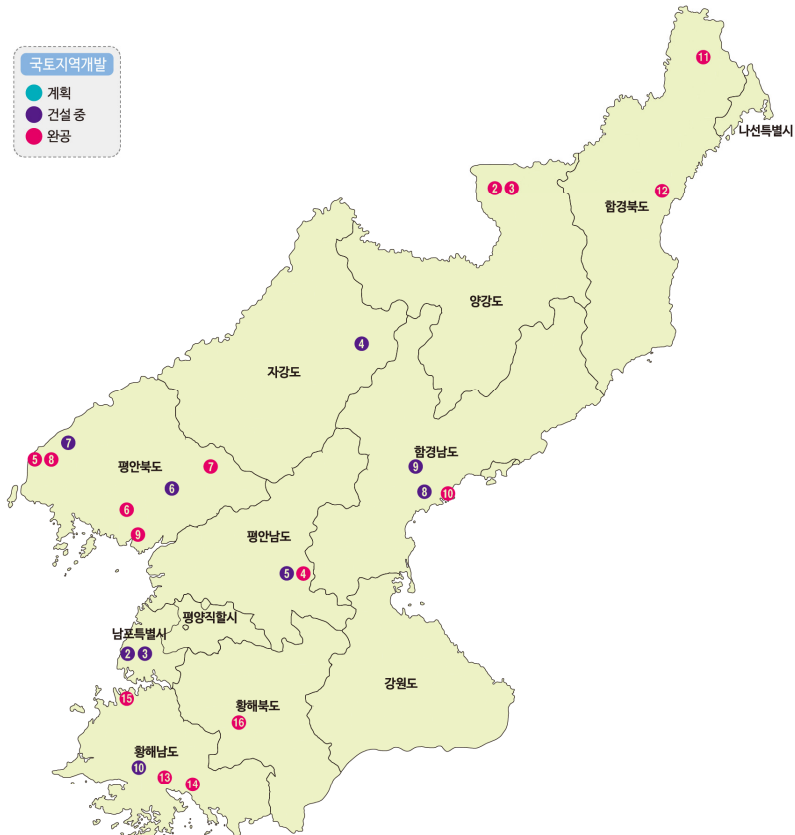
다. 양강도, 삼지연시 5개 호텔 신규 건설 완공(노동신문, 12.23, 1면)

- (내용) 관광특구 지역인 삼지연시에 5개 호텔 신규 건설 완료
 - 소백수, 이갈, 붓나무, 청봉을 비롯 삼지연 지구 특유의 상징적 이름과 함께 백두의 자연과 조화를 이룬 독특한 건축미를 갖춘 호텔이 신규 건설 완료

라. 평안북도, 애도간석지 1구역 공사 완공(조선신보, 12.19, 2면)

- (내용) 정주시 일해지구로부터 애도를 거쳐 신봉지구까지 30여리에 달하는 제방을 쌓는 사업 중에서 애도간석지 1구역공사를 완공
 - 1년 남짓한 기간에 1차물막이공사를 끝낸 종합기업소에서는 수단과 역량을 제방완성 공사에 집중시켜 2년동안에 애도간석지 1구역공사를 완공

그림 10 국토지역개발 건설개발 동향



- ① 전국, 20개 시, 군에서 지방공업공장, 병원, 종합봉사소건설 마감단계
- ② 남포특별시, 지역개발사업 진행
- ③ 남포특별시, 용강군 지역개발 사업 중
- ④ 자강도, 남림군 군소재시 정비
- ⑤ 평안남도, 신양군당위원회, 지방공업공장건설 및 원료기지 조성 중
- ⑥ 평안북도, 태천군 국토관리사업 성과
- ⑦ 평안북도, 섬지구 영구화제방공사장 현지도
- ⑧ 함경남도, 함흥시 도시 정비 중
- ⑨ 함경남도, 지역개발사업 추진 중
- ⑩ 황해남도, 당결정서에 반영한 중요대상 공사 중

- ① 전국, 가을철 토지 정리사업 약 7500여 정보 완료
- ② 양강도, 토지정리돌격대 량강도려단 삼지연시 농경지 토지정리
- ③ 양강도, 삼지연시 5개 호텔 신규 건설 완공
- ④ 평안남도, 신양군 강하천 정리 공사 완료
- ⑤ 평안북도, 신의주시 지역개발사업 진행
- ⑥ 평안북도, 월도, 석화 간석지 건설지 내부망공사 완료
- ⑦ 평안북도, 운산군 여러 대상공사 완공
- ⑧ 평안북도, 지방도시 개발
- ⑨ 평안북도, 애도간석지 1구역공사 완공
- ⑩ 함경남도, 낙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와 여촌문화주택지구 준공
- ⑪ 함경북도, 경원군 강하천 정리공사
- ⑫ 함경북도, 지방도시 개발
- ⑬ 황해남도, 박성군 장해농장 마을꾸리기 사업
- ⑭ 황해남도, 해주시 도소재지 면모 일신
- ⑮ 황해남도, 능금도 간석지 건설지 내부망공사 완료
- ⑯ 황해북도, 지역 가꾸기 사업 추진

6. 문화휴양시설

- 강원도, 통천군 자산리 해수욕장 준공(노동신문, 07.24)
- 남포특별시, 서해갑문 해수욕장 개건 및 물놀이장 증설(노동신문, 07.26)
- 평양직할시, 빙상관 개관(노동신문, 08.15)
- 자강도, 강계시 외산지구 강계 동물원 조성(노동신문, 09.07)
- 함경남도, 함흥경기장 개건 준공(노동신문, 12.01)

가. 강원도, 통천군 자산리 해수욕장 준공(노동신문, 07.24, 5면)

- (내용) 강원도 통천군 자산리에 해수욕장이 훌륭히 일떠서 23일 준공
- (규모) 봉사에 필요한 각종 시설, 관리건물, 주차장 등을 갖추

나. 남포특별시, 서해갑문 해수욕장 개건 및 물놀이장 증설(노동신문, 07.26, 5면)

- (내용) 문화생활거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마련되는 가운데 서해갑문 해수욕장이 개건되어 연일 다수 이용객들 이용
 - 모래갈기, 물놀이기재설치 완료, 꽃관목, 지피식물,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하여 바다가경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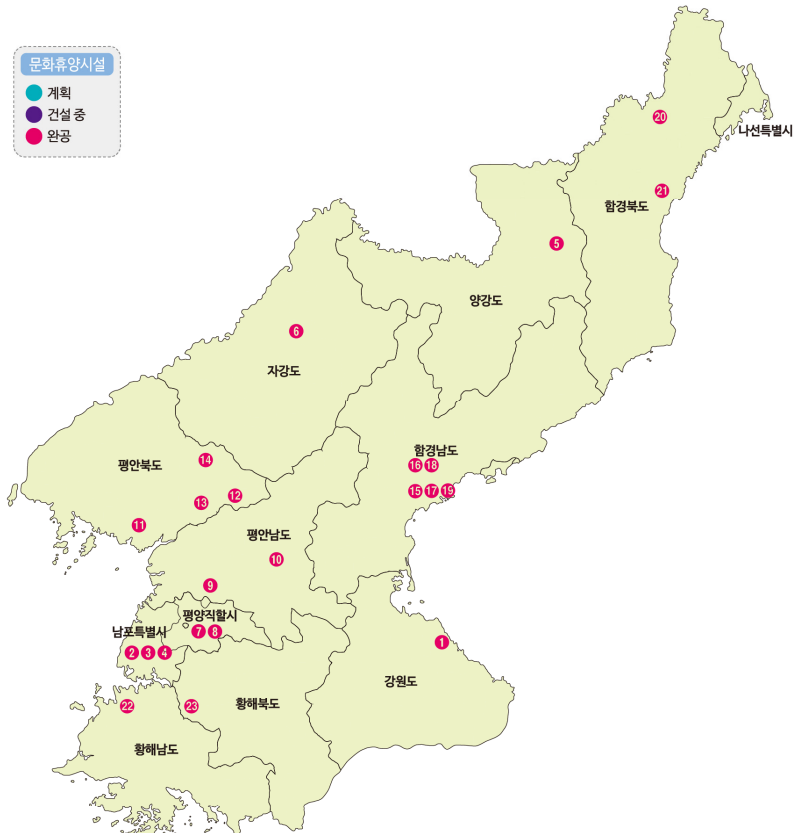
다. 평양직할시, 빙상관 개건(노동신문, 08.15)

- (내용) 체육문화생활거점으로 변모하기 위해 빙상관 개건
 - 빙상관 개관식에서 빙상휘거(피겨)모범출연 시행. 집체출연과 빙상무용 등 다양한 종목들에게 출연자들이 연기

라. 자강도, 강계시 외산지구 강계 동물원 조성(노동신문, 09.07, 5면)

- (내용) 강계시의 풍치수려한 외산지구에 산간지대의 특징에 맞는 동물원을 새로 일떠 세움
 - 맹수사, 사슴사, 파충관을 비롯한 동물사들과 수십종에 백수십마리의 동물 보유
 -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생활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도당위원회에서는 동물원건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림
 - 산비탈면들에 여러 동물사를 일떠세우고 도로포장공사, 주변정리와 나무심기를 립체적으로 벌려야 하는 등 공사량 방대하였으나 공사에 참가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동물원을 훌륭히 일떠세울 의지로 시작부터 기세를 올려 맡은 작업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
 - 강계동물원은 도안의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크게 이바지할것으로 기대

그림 11 문화휴양시설 건설·개발동향



- ① 전국, 시, 군 남새운실 개건보수 중
- ② 전국, 시, 군마다 300정보 약초산 조성사업 중
- ③ 남포특별시, 온천천갑문화장공사
- ④ 남포특별시, 종여기지 조성 중
- ⑤ 자강도, 강계시 절소목장 건설 중
- ⑥ 자강도, 토지정리 사업 중
- ⑦ 강원도, 통천군 자산리에 해수욕장 준공
- ⑧ 남포특별시, 와우도유원지 개건 완료
- ⑨ 남포특별시, 서해감문해수욕장 개건, 물놀이장 증설
- ⑩ 남포특별시, 보령관 완공
- ⑪ 양강도, 백암군 노동자 정양소 준공
- ⑫ 자강도, 강계시 외산지구 강계동물원 조성
- ⑬ 평양직할시, 병상관 개건
- ⑭ 평양직할시, 룡해운성체육단 종합훈련관과 체육인숙소 조성
- ⑮ 평안남도, 평성동물원을 새로 건설
- ⑯ 평안남도, 북창지구청년탄광관합기업소, 탄부휴양소와 북창목장 개건

- ⑰ 평안북도, 정주시 현대적인 은덕원을 새로 건설
- ⑱ 평안북도, 구장태권도훈련소 신규조성
- ⑲ 평안북도, 영변군 여러곳에 문화회관 건설
- ⑳ 평안북도, 운산군 군문화회관 건설
- ㉑ 함경남도, 함흥대극장 개건 완공
- ㉒ 함경남도, 항공구락부 신규 조성
- ㉓ 함경남도, 함흥경기장 개건 준공
- ㉔ 함경남도, 체육촌 새로 건설
- ㉕ 함경남도, 새로 개건된 함흥대극장 개관식
- ㉖ 함경북도, 회령시 문화정서생활기지 조성
- ㉗ 함경북도, 청진물놀이장 신규 준공
- ㉘ 황해남도, 은률군 구월산 사할봉 휴식터 건설
- ㉙ 황해북도, 사리원승마구락부 준공

7. 교육복지시설

- 평양직할시, 평양종합병원 준공(노동신문, 10.07)
- 평양직할시, 김일성종합대학 실험교육중심 전국 본보기로 조성(11.15)
- 평안남도, 100여개 학교 및 분교, 유치원 신설 및 개건 완료(12.11)
- 남포특별시, 룡강군병원 준공(12.30)

가. 평양직할시, 평양종합병원 준공(노동신문, 10.07, 1면)

- (내용) 평양종합병원이 보건혁명의 원년을 빛나게 장식하며 사회주의보건의 상징물로 훌륭히 완공. 평양종합병원 준공식이 10월 6일 성대히 진행
 - 보건부문의 획기적이며 새로운 질적인 변화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고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넘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평양종합병원이 당창건 80돐을 계기로 준공

나. 평양직할시, 김일성종합대학 실험교육중심 전국 본보기로 조성(노동신문, 11.15, 5면)

- (내용)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수백종에 수천점의 현대적인 실험설비, 기구들을 자체로 마련하여 5개의 실험교육중심들을 전국의 본보기로 조성
- (특징) 이 사업을 위해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종합시설교육관을 선례로 삼음
- (구성) 현대적인 58개의 실험실을 새로 갖춘 5개의 실험교육중심으로 건설. 일반물리실험교육중심, 화학실험교육중심, 생명과학실험교육중심, 지구환경실험교육중심, 자동화공학실험교육중심으로 구성
 - 각 교육중심은 해당 학부에 집중시켜 구획별로 꾸리도록 하였으며 교사들의 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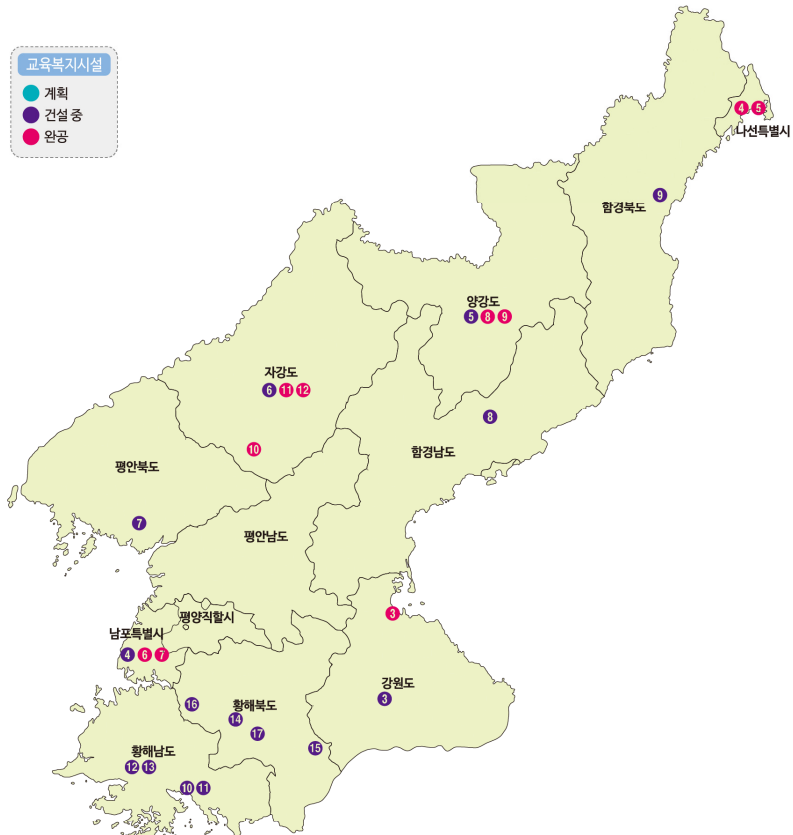
다. 평안남도, 100여개 학교 및 분교, 유치원 신설 및 개건 완료(노동신문, 12.11, 4면)

- (내용) 올해 도에서는 1,600여개의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새로 꾸리고, 100여개의 학교, 분교, 유치원 신설 및 개건 공사를 성과적으로 완료
 - 옥전제1중학교, 안주시 연풍고급중학교 등에서 정보설비와 실험실습기재 구비
 - 개천시 양참고급중학교 내동분교, 운곡고급중학교 어영분교를 비롯 10여개 학교, 분교들의 신설 및 개건공사 완료. 교육설비들과 교구비품들 마련. 개천고급중학교 기숙사 완공

라. 남포특별시, 룡강군 병원 준공(노동신문, 12.30, 1면)

- (내용) 12월 29일 남포시 룡강군병원,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2025년도 준공의 계절마감을 장식하며 성대히 진행
- (특징) 지방공업공장과 동시에 준공되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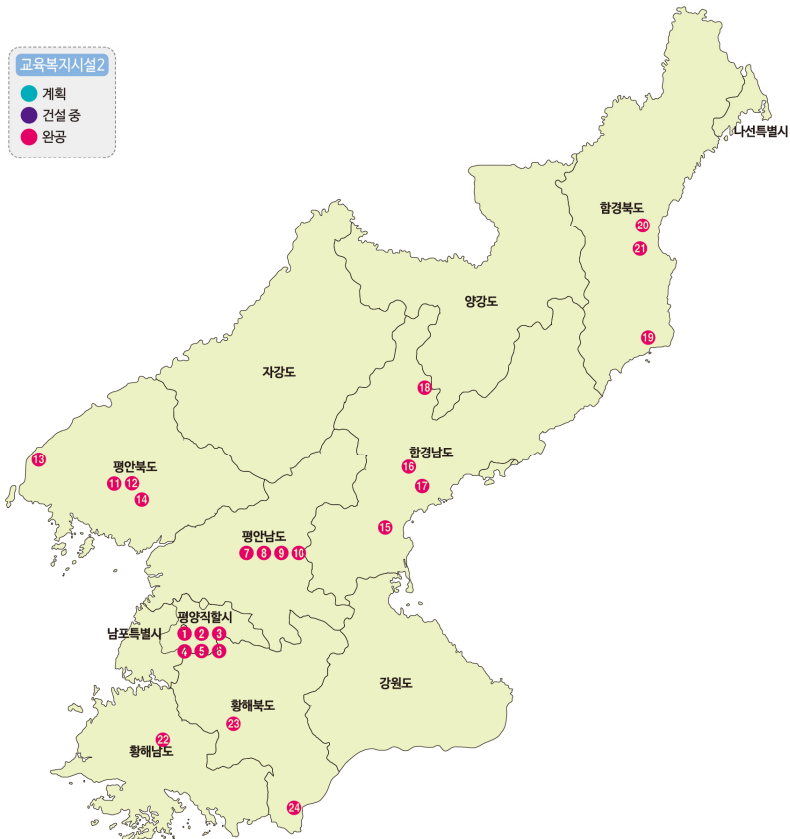
그림 12 교육복지시설 건설·개발동향(1)



- ① 전국, 농업과학연구기지를 첨단화 추진 중
- ② 전국, 학교 건설 및 개건현대화공사 진행 중
- ③ 강원도, 도당위원회 160여개 분교 개건 중
- ④ 남포특별시, 학생소년궁전 건설 중
- ⑤ 양강도, 백암군 수십개 분교 건설 중
- ⑥ 자강도, 상반기 다기능화된 교실 꾸리기, 학교 개건 중
- ⑦ 평안북도, 정주기술대학 학생교육교양거점 꾸리기 중
- ⑧ 함경남도, 덕성군 분교 건설 중
- ⑨ 함경북도, 청진농업대학 개건현대화 공사 중
- ⑩ 황해남도, 김중태해주사범대학개건현대화 공사 중
- ⑪ 황해남도, 김제원해주농대학개건현대화 공사 중
- ⑫ 황해남도, 학교와 분교건설 및 개건 공사 중
- ⑬ 황해남도, 본보기학교 건설 중
- ⑭ 황해북도, 대학과 학교 개건현대화 공사 중
- ⑮ 황해북도, 토산군 백화기술고급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중
- ⑯ 황해북도, 계응상 사리원농업대학 개건 공사 중
- ⑰ 황해북도, 서흥군 서흥호소년단야영소 개건 공사 중

- ① 전국, 여러 시, 군의 학교, 분교 신규조성 및 개건
- ② 전국, 각 도(직할시)에 교육지원프로그램중심 설치완료
- ③ 강원도, 리수덕원산교원대학 준공식 진행
- ④ 나선특별시, 나선외국어학원 개건
- ⑤ 나선특별시, 금년에 10여개 약국 건설 완공
- ⑥ 남포특별시, 학교건설 및 개건공사 결속
- ⑦ 남포특별시, 룡강군병원 준공
- ⑧ 양강도, 도과학기술도서관 준공
- ⑨ 양강도, 도농업과학연구소 개건 완료
- ⑩ 자강도, 희천공업대학 종합실험교육관 신규조성
- ⑪ 자강도, 분교건설 완료
- ⑫ 자강도, 도농업과학연구소에 첨단연구기지를 신규 건설

그림 13 교육복지시설 건설·개발동향(2)



- | | |
|---|----------------------------------|
| ① 평양직할시, 가금연구원 본원지구 개건 완료 | ⑮ 평안북도, 신의주제1중학교 개건완료 |
| ② 평양직할시, 평양종합병원 준공식 | ⑭ 평안북도, 구성시병원 준공 |
| ③ 평양직할시, 김책공업종합대학 실험교육중심 조성완료 | ⑯ 함경남도, 정평군 8개 분교 개건 완료 |
| ④ 평양직할시, 김일성종합대학, 실험교육중심을 전국의 본보기로 조성완료 | ⑰ 함경남도, 수심개의 분교건설 및 개건공사 완료 |
| ⑤ 평양직할시, 강동군병원 준공 | ⑱ 함경남도, 최화숙함흥교원대학 완공 |
| ⑥ 평양직할시, 낙랑구역 전진교급중학교 준공 | ⑲ 함경남도, 어은령기슭 분교 및 교원 살림집 건설 완공 |
| ⑦ 평안남도, 평성고려악공장 건설 | ⑳ 함경북도, 화대군 석성탄광유치원개건 |
| ⑧ 평안남도, 농업과학연구소 새로 건설 | ㉑ 함경북도,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 경성과수연구분소 준공 |
| ⑨ 평안남도, 환경보호연구소 신규 건설 | ㉒ 함경북도, 농업과학원 버연구소 어랑버연구분소 준공 |
| ⑩ 평안남도, 100여개의 학교, 분교, 유치원 신설 및 개건공사 완료 | ㉓ 황해남도, 신천군 지남리 분교 완공 |
| ⑪ 평안북도, 도질병예방통제소 신규조성 | ㉔ 황해북도, 도과학기술위원회 면모 일신 |
| ⑫ 평안북도, 60여개의 교육단위 건설 및 개건현대화공사 결속 | ㉕ 황해북도, 개성시식물방역소, 돼지종축장 신규조성 |

8. 광업자원시설

- 평안남도, 봉천탄광 사이로식석탄저장고 완공(노동신문, 08.24)
-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250만산대발파 진행(노동신문, 10.02)
- 양강도, 백암탄광 니탄가공분사업소 신규 조성(노동신문, 10.19)
- 황해남도, 삼천탄광 새갱 조성 개발(노동신문, 10.23)
- 서부지구 여러 탄광 벨트콘베아공사 개건 완료(노동신문, 12.31)

가. 가. 평안남도, 봉천탄광 사이로식석탄저장고 완공(노동신문, 08.24, 4면)

- (내용) 봉천탄광에서 실리적인 사이로식석탄저장고건설을 완공하여 석탄상차에 들던 많은 설비와 자재, 로력을 절약하고 석탄허실을 줄이게 되었음
 - 탄광에서는 구조물공사와 벨트콘베아설치 등에서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건설속도와 질을 높여 짧은 기간에 수백t능력의 저장고건설을 결속함

나.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250만산대발파 진행(노동신문, 10.02, 1면)

- (내용) 무산광산연합기업소가 조업이래 두번째로 되는 250만산대발파를 10월 1일 통이 크게 성과적으로 진행함
 - 이번 대발파는 당의 철정광생산목표를 달성에 중요한 것으로 연합기업소는 김책공업종합대학과 대발파구역 확정, 발파효를 높이는 방안에 있어 협력함
 - 수백만t의 박도를 앞골짜기에 날려보내는것과 함께 조광을 붕괴시킬수 있는 복합형의 대발파설계에 따라 경도굴진 추진

다. 양강도, 백암탄광 니탄가공분사업소 신규 조성(노동신문, 10.19, 4면)

- (내용) 량강도에서 백암탄광 니탄가공분사업소를 새로 일떠세우고 준공식을 10월 17일 현지에서 진행함
 - 자연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 저탄장, 건조장, 과학기술보급실, 문화후생시설 등을 갖춘 펄프생산기지가 건설되어 지역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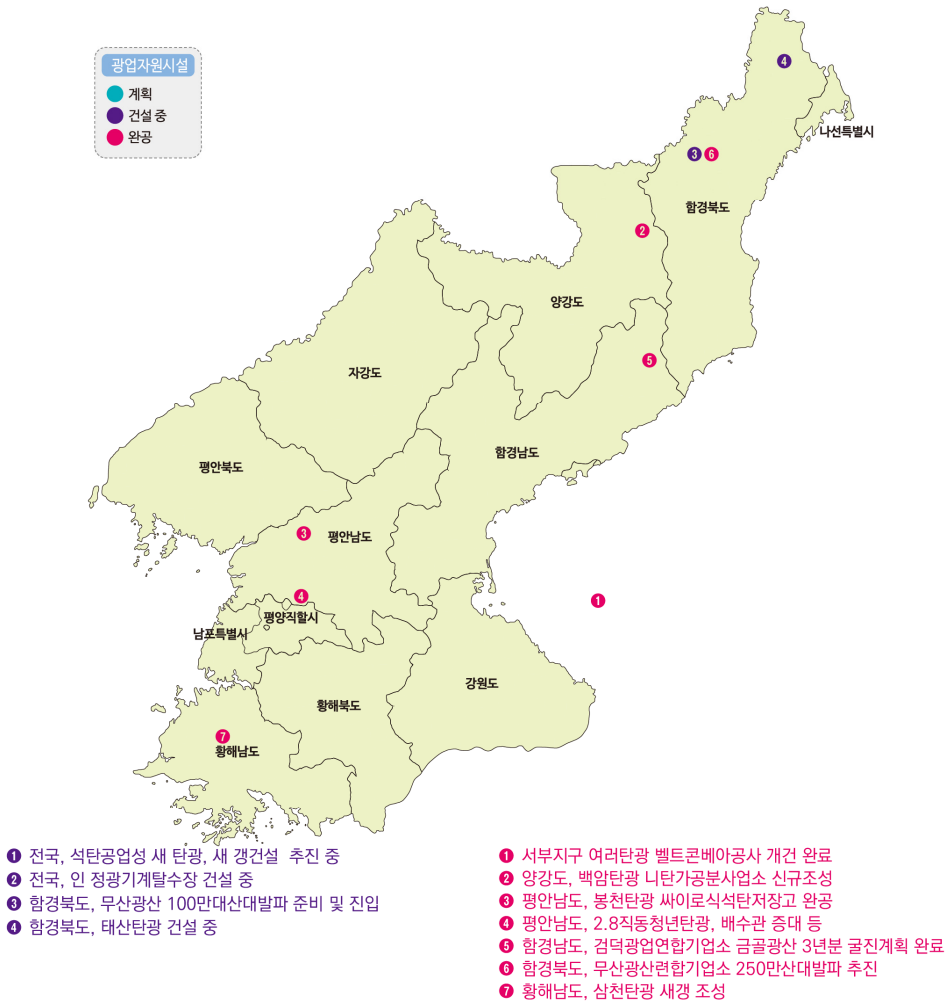
라. 황해남도, 삼천탄광 새갱 조성 개발(노동신문, 10.23, 4면)

- (내용) 삼천탄광에서 교대간협동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화약장입과 버럭처리속도를 높이고 권양기장건설과 능률적 권양기제작을 통해 새갱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속함

마. 서부지구 여러 탄광 벨트콘베아공사 개건 완료(노동신문, 12.31, 5면)

- (내용) 올해 서부지구의 여러 탄광에서 운반능력제고를 위한 벨트콘베아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여 석탄생산을 장성시킬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함
 - 월봉탄광에서 천수백m의 벨트콘베아공사가 추진되어 석탄생산 증대 전망이 열렸으며, 2.8직동청년탄광에서도 운반능력제고를 위한 벨트콘베아공사가 벌어졌음

그림 14 광업자원시설 건설·개발동향



9. 농림어업시설

- 전국, 올해 계획된 16만여 정보 논, 관개공사 완료(노동신문, 07.01)
- 자강도, 강계시 121호 임업연합기업소 새 임지 개발(노동신문, 09.08)
- 자강도, 검은고니사 및 타조사 건설(노동신문, 10.25)
- 황해남도, 신원군 종어장 개건공사 완료(노동신문, 11.24)

가. 전국, 올해 계획된 16만여 정보 논, 관개공사 완료(노동신문, 07.01, 1면)

- (내용)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올해 계획된 16만 여 정보의 논 관개공사 완료
 - 1,300여개의 양수장건설 및 보수, 1,100여개소의 관개구조물 건설 및 대보수, 1만 7,000여km의 물길보수 등 진행
 - 황해남도에서는 각종 설비와 기공구를 이요, 장수호-웅진, 강령물길, 봉천호-청단물길, 구암호물길 등에 대한 35만여㎡의 토량처리와 제방공사, 2만여㎡의 콘크리트치기를 진행
 - 평안북도에서 대계도배수문보수를 비롯한 주요대상공사에 집중하여 성과

나. 자강도, 강계시 121호 임업연합기업소 새 임지 개발(노동신문, 09.08, 5면)

- (내용) 121호임업연합기업소에서 청산령지구에 전망성있는 새 임지를 개발
 - 연합기업소가 최근년간에 개발한 임지들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큼
 - 임업부문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동안 통나무생산과 산림조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통나무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연합기업소에서는 나무원천이 풍부한 청산령지구 에 새 임지를 개발하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진행

다. 자강도, 검은고니사 및 타조사 건설(노동신문, 10.25, 6면)

- (내용) 자강도에서 검은고니사와 타조사를 훌륭히 건설
 - 특히 겨울철조건에서도 검은고니를 기를수 있게 꾸려진 건물들과 초극소형 발전소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음
 - 또한 구내 도로와 인공못 등도 주변풍치와 조화를 이루며 운치를 돋우고 있음

라. 황해남도, 신원군 종어장 개건공사 완료(노동신문, 11.24, 5면)

- (내용) 신원군에서 종어장 개건공사를 결속, 다음해 논판양어 추진의 토대를 마련
 - 올해 논판양어에서 거둔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다음해에 그 면적을 늘일 목표밑 에 종어장개건공사를 진행
 - 일군들이 현지 답사하여 물량도 많고 수질도 좋은 원천을 찾아냈으며 이것을 자연흐름 식으로 끌기 위한 공사를 내밀어 성과를 거둠

그림 15 농림어업시설 건설·개발동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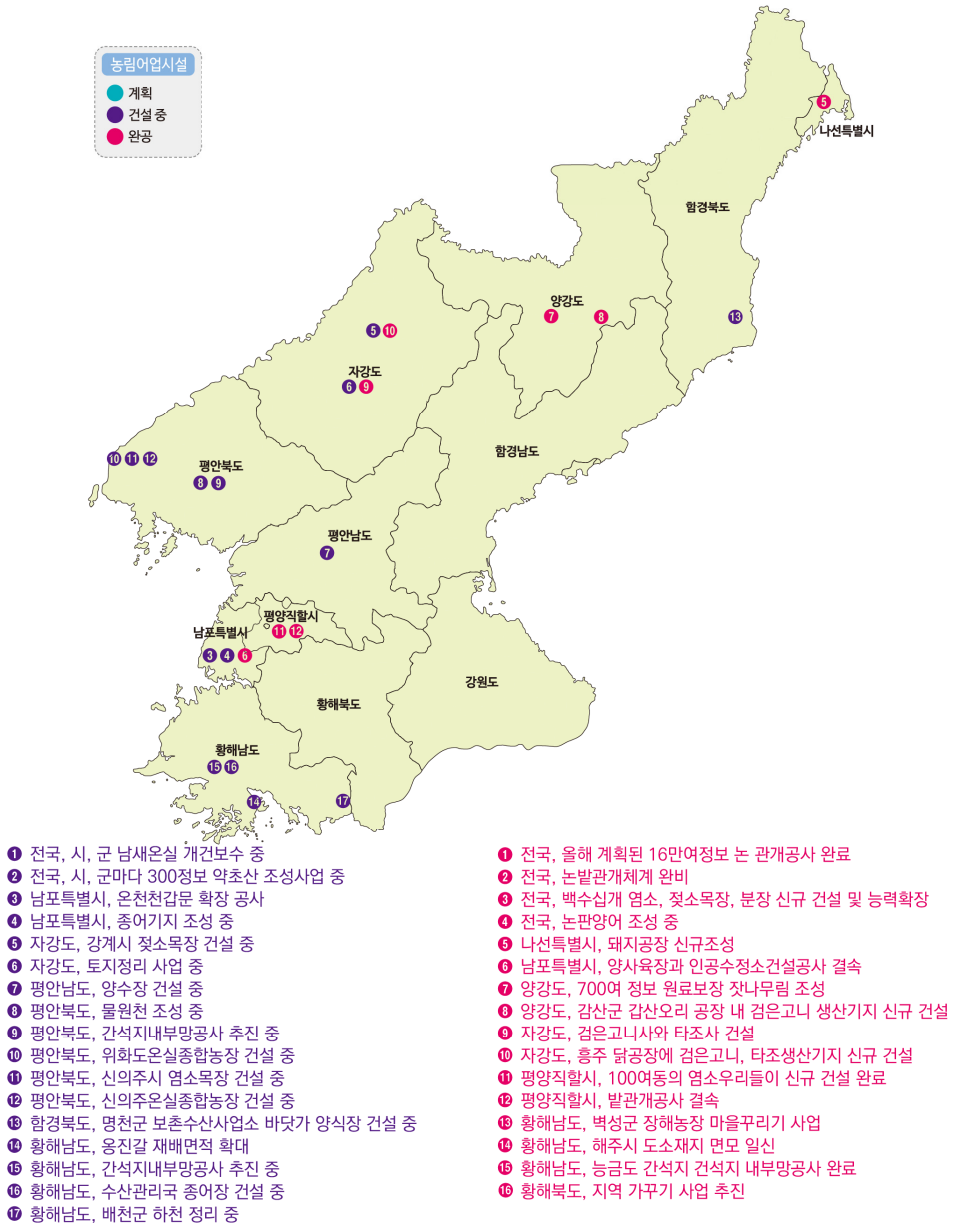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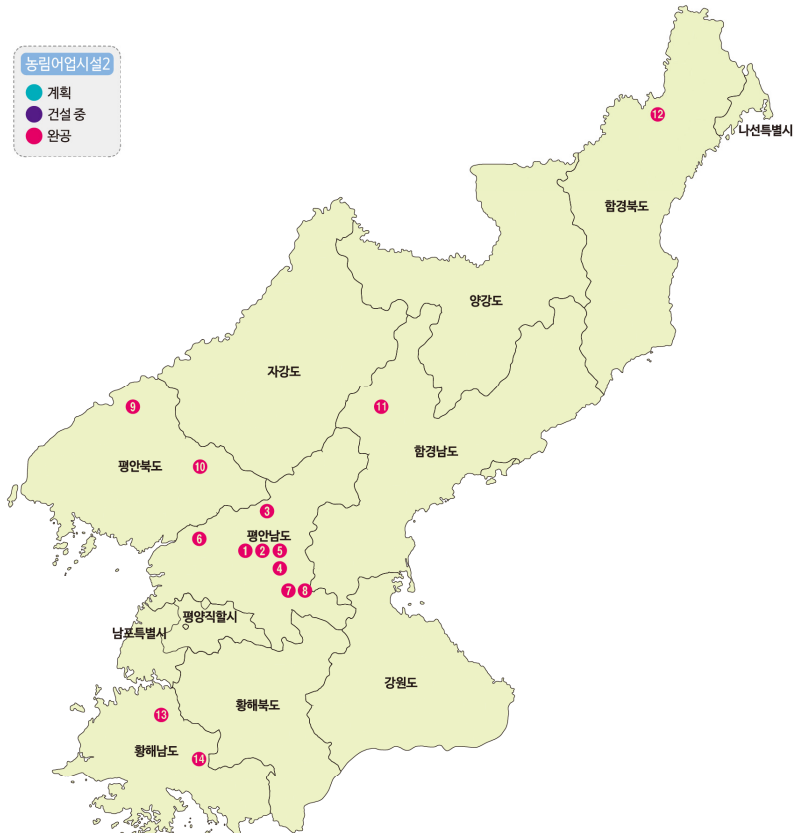


그림 16 농림어업시설 건설·개발동향(2)



- ① 평안남도, 밀재배면적 수천정보 증가
- ② 평안남도, 비경지 개간
- ③ 평안남도, 덕천시 수심정보의 땅 개간, 원료기지면적 증대
- ④ 평안남도,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북창목장 개건
- ⑤ 평안남도, 양곡중계사업소 새로 건설
- ⑥ 평안남도, 안주오리공장에 검은고니생산기지 새로 건설
- ⑦ 평안남도, 신양군 양사육장 신규 조성
- ⑧ 평안남도, 신양군 보리쌀 재배장 신규 조성
- ⑨ 평안북도, 창성군 염소목장과 농장들 젖제품생산실 개건
- ⑩ 평안북도, 논판양어 확대를 위한 종어기지 건설 완료
- ⑪ 함경남도, 장진군 정장어종어장 건설
- ⑫ 함경북도, 회령시 양곡보관창고 완공
- ⑬ 황해남도, 안악군 수백km 배수로치기 완료
- ⑭ 황해남도, 신원군 종어장개건공사 완료

10. 환경방재시설

- 양강도, 삼수군 주요 강하천 정리 및 사방야계공사 완료(노동신문, 10.21)
- 함경남도, 단천시 해안방조제 공사 완료(노동신문, 1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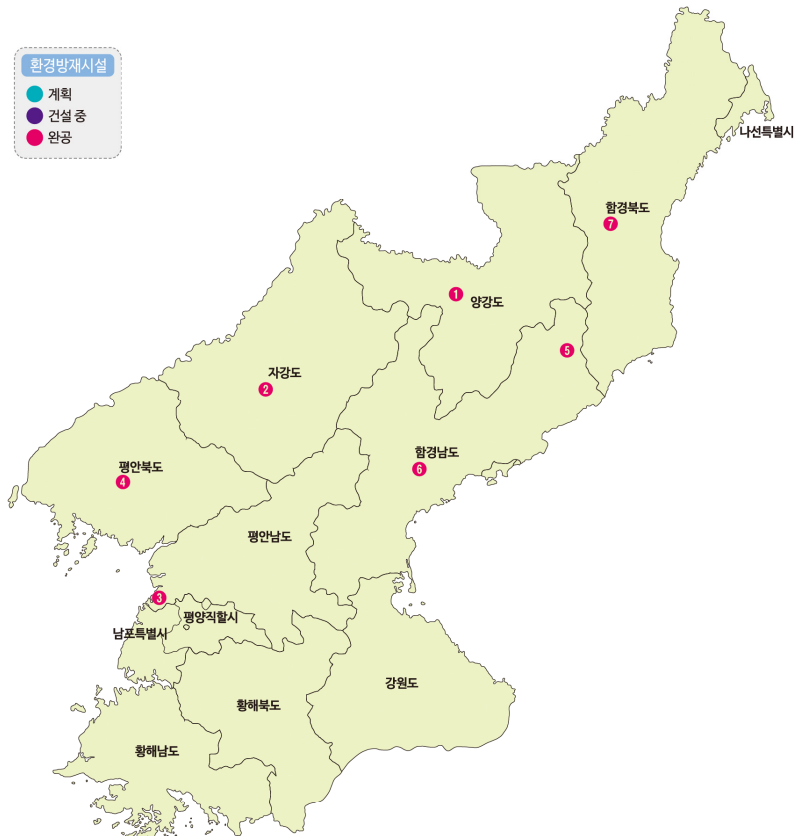
가. 양강도, 삼수군 주요 강하천 정리 및 사방야계공사 완료(노동신문, 10.21, 5면)

- (내용) 국토관리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삼수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큰물피해위험도가 높은 주요강하천들의 정리공사와 사방야계공사를 계속
 - 재해성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하천정리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군의 일군들은 강하천들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을 박력있게 추진
 - 강바닥이 높아진 곳과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합쳐지는 지점, 흙과 모래가 많이 쌓일수 있는 곳들에 굴착기를 비롯한 중기계들을 집중배치하여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였으며 수만㎡의 장식쌓기를 진행
 - 물길곧추퍼기를 하여 큰물피해를 최소화할수 있게 하면서 강하천주변을 보기 좋게 일신하고 많은 새땅도 찾아

나. 함경남도, 단천시 해안방조제 공사 완료(노동신문, 11.05, 5면)

- (내용) 단천선박공장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해마다 년차별 목표밑에 진행하여온 해안방조제공사를 계속
 - 공장의 일군들은 해안방조제를 그 어떤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에도 끄떡없게 일떠세울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시공에서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
 - 특히 돌운반 거리가 멀고 작업조건이 불리한데 맞게 현장지휘를 능숙하게 하면서 기술지도를 책임적 진행
 - 종업원들은 많은 량의 돌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파도막이 시설구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임

그림 17 환경방재시설 건설·개발동향



- ① 양강도, 심수군 주요강하천 정리와 사방야계공사 완료
- ② 자강도, 압록강과 장자강정리공사
- ④ 평안남도, 증산군 사방야계공사 완료
- ⑤ 함경남도, 단천시 해안방조제 공사 결속
- ⑥ 함경남도, 강하천 정리 중
- ⑦ 함경북도, 사방야계공사 마무리

Ⅲ.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1. 개요

- ‘개발’(426건)대상으로 지역별·유형별 보도 건수를 정리한 결과,

표 1 건설 사업의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교통 물류	공급 시설 ¹⁾	공장 시설	도시 생활 ²⁾	국토 지역 ³⁾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평양직할시	30	2	2(2)	5	11(8)	0(0)	2	6	0	2	0
남포특별시	21	0	0(0)	3	6(5)	2(0)	4	3	0	3	0
나선특별시	8	0	1(1)	2	2(1)	0(0)	0	2	0	1	0
평안남도	41	1	4(3)	6	8(8)	2(0)	3	4	2	9	2
평안북도	55	1	0(0)	6	19(18)	7(0)	6	5	0	7	4
자 강 도	44	2	3(2)	8	19(18)	1(0)	1	4	0	5	1
황해남도	30	1	0(0)	6	6(6)	4(0)	1	5	1	6	0
황해북도	24	0	1(0)	9	6(6)	1(0)	1	6	0	0	0
강 원 도	23	0	2(2)	9	9(9)	0(0)	1	2	0	0	0
함경남도	50	2	1(1)	12	17(17)	3(0)	5	3	1	1	3
함경북도	45	4	0(0)	5	19(18)	1(0)	4	4	3	2	3
양 강 도	32	0	0(0)	10	11(10)	2(1)	1	3	1	3	1
기타 ⁴⁾	23	1	1(1)	3	2(1)	2(0)	0	4	3	6	1
계	426	14	15	84	135	25	29	53	11	4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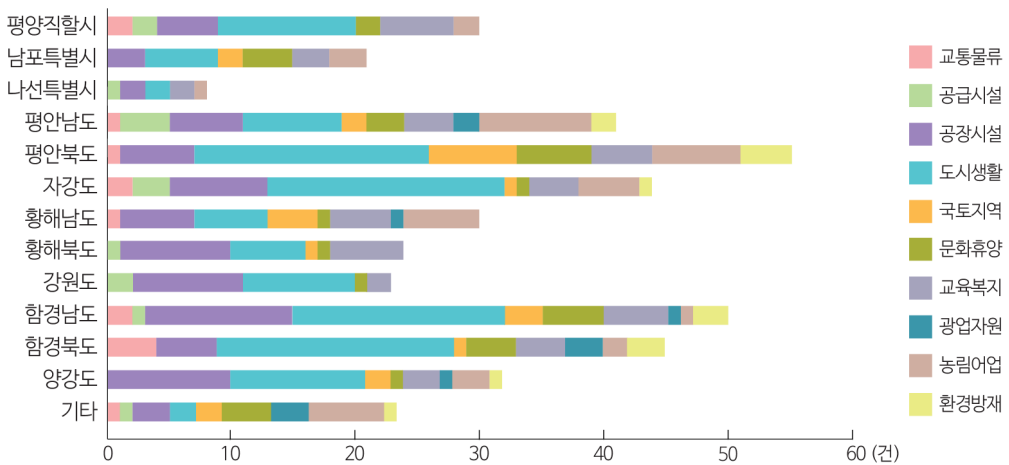
주1) 괄호는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 건수임

주2) 괄호는 도시생활시설 중 살림집 건수임

주3) 괄호는 국토지역개발 중 특구 건수임

주4) 전국 또는 3개도 이상 걸친 시설, 또는 위치미상 시설 건수임

그림 2 건설·개발 사업의 지역별·시설유형별 분포



2. 지역별 현황

가. 평양직할시

- 총 30건으로 도시생활시설(살림집) 11건, 교육복지시설 6건, 공장시설 5건 등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건설 마감단계, 평양종합병원 준공, 평양직할시 병상관 개건, 동평양 화력발전소 3호 보이라 대보수 완료 등

나. 남포특별시

- 총 21건으로 도시생활시설(살림집) 6건, 문화휴양시설 4건, 농림어업시설과 공장시설이 각 3건 등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천리마구역·대안구역·와우도구역 문화주택 준공, 와우도유원지 개건, 남포시 지방공업공장 준공, 남포시 종어기지 조성 중 등이 있음

다. 나선특별시

- 총 8건으로 도시생활시설, 공장시설, 교육복지 시설이 각 2건, 그리고 농림어업시설과 공급시설이 1건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나선시 공공건물 조성, 나선청년발전소 개건 완료, 나선외국어학원 개건, 10여개 약국 건설 완공, 나선종합식료공장 개건 등

라. 평안남도

- 총 41건으로 농림어업시설 9건, 도시생활시설 8건, 공장시설 6건, 교육복지 및 공급시설 각 4건 등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신양군 양사육장 및 보리싹 재배장 신규 조성, 순천시 풍탄농장 새집들이, 신양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북창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평안남도 농업과학연구소 신규 건설 등이 있음

마. 평안북도

- 총 55건으로 지역별 가장 많은 건설·개발 사업이 분포. 도시생활시설(살림집) 19건, 국토 지역 및 농림어업시설이 각 7건, 공장시설 및 문화휴양시설이 각 6건 등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시 문화주택 완공, 애도간석지 1구역 공사 완공, 신의주온실종합농장 건설, 대관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염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운산군 청년공원개건공사 및 군문화회관 건설 등

바. 자강도

- 총 44건으로 도시생활시설(살림집) 19건, 공장시설 8건, 농림어업시설 5건, 교육복지시설 4건 등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희천시 농촌살림집 및 지산남새농장 공공건물 준공, 남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장강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감은고니사와 타조사 건설, 도농업과학연구소에 첨단연구기지 건설 등

사. 황해남도

- 총 30건으로 공장시설, 도시생활시설, 농림어업시설이 각 6건, 교육복지시설 5건, 국토지역개발 사업 4건 등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장연군 및 배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신원군 종어장 개건공사 완료, 황해남도 본보기 학교 건설중, 능금도 간석지 내부망공사 완료 등

아. 황해북도

- 총 24건으로 공장시설 9건, 도시생활시설 및 교육복지시설이 각 6건 등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황주군, 곡산군, 개성시 지방공업공장 준공, 곡산군 문양농장, 평암농장 문화주택 준공 등

자. 강원도

- 총 23건으로 공장시설 및 도시생활 시설이 각 9건, 공급시설 및 교육복지시설이 각 2건씩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철원군 및 세포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원산시 고층살림집 새로 건설, 문천시 및 천대군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 등

차. 함경남도

- 총 50건으로 도시생활시설 17건, 공장시설 12건, 문화휴양시설 5건 등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부전군 백상농장 문화주택 준공,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 중, 정평군 지방공업공장 및 종합봉사소 준공 등

카. 함경북도

- 총 45건으로 도시생활시설 19건, 공장시설 5건, 교통물류시설·문화휴양시설·교육복지시설이 각 4건, 광업자원시설·환경방재시설이 각 3건 등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청진시 봉해남새농장 새집들이, 부령군 및 길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무산광산연합기업소 250만산 대발파 추진 등

타. 양강도

- 총 32건으로 도시생활시설 11건, 공장시설 10건, 교육복지시설·농림어업시설이 각 3건 등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경리위원회 포성농장 및 삼수군 증룡농장 입사모임, 해산혁명전적지 답사 숙영소 개건, 김정숙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백암군 및 갑산군 건재생산기지 준공 등

파. 기타, 전국

- 총 23건으로 농림어업시설 6건, 교육복지시설 4건 등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올해 계획된 16만여 정보 논 관개공사 완료, 전국 백수십 개 염소, 젖소 목장 신규 건설 및 확장, 전국 여러 시, 군 학교 및 분교 신규 조성 등

3. 지역별 사업 단계별 분포

1) 개요

- ‘개발’ 사업 중 ‘계획’ 단계 0건, ‘건설’ 단계 99건, ‘완공’ 단계 327건임

2) 단계별 분포

가. 계획단계 시설 분포 지역

- 하반기 특징상 계획단계 시설에 대한 보도 자료는 집계되지 않음

나. 건설단계 시설 분포 지역

- 총 99건으로 평안북도 14건, 기타(전국)지역 13건, 황해남도 11건, 함경남도 10건, 남포특별시·황해북도·강원도·함경북도에서 각 8건 등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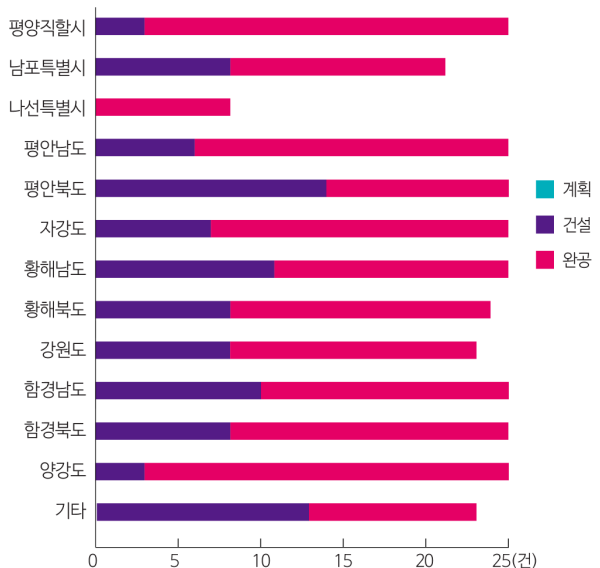
다. 완공단계 시설 분포 지역

- 총 327건으로, 하반기 기사 특징상 완공단계 기사 다수 집계. 평안북도에서 41건으로 가장 많은 사업이 집계되었고, 함경남도 40건, 자강도 및 함경북도 각 37건, 평안남도 35건 등으로 사업 분포가 집계

표 2 지역별 단계별 사업 분포

지역별	단계별	계	계획	건설	완공
평양직할시		30	-	3	27
남포특별시		21	-	8	13
나선특별시		8	-	-	8
평안남도		41	-	6	35
평안북도		55	-	14	41
자강도		44	-	7	37
황해남도		30	-	11	19
황해북도		24	-	8	16
강원도		23	-	8	15
함경남도		50	-	10	40
함경북도		45	-	8	37
양강도		32	-	3	29
전국/기타		23	-	13	10
계		426	0	99	327

그림 2 지역별-단계별 사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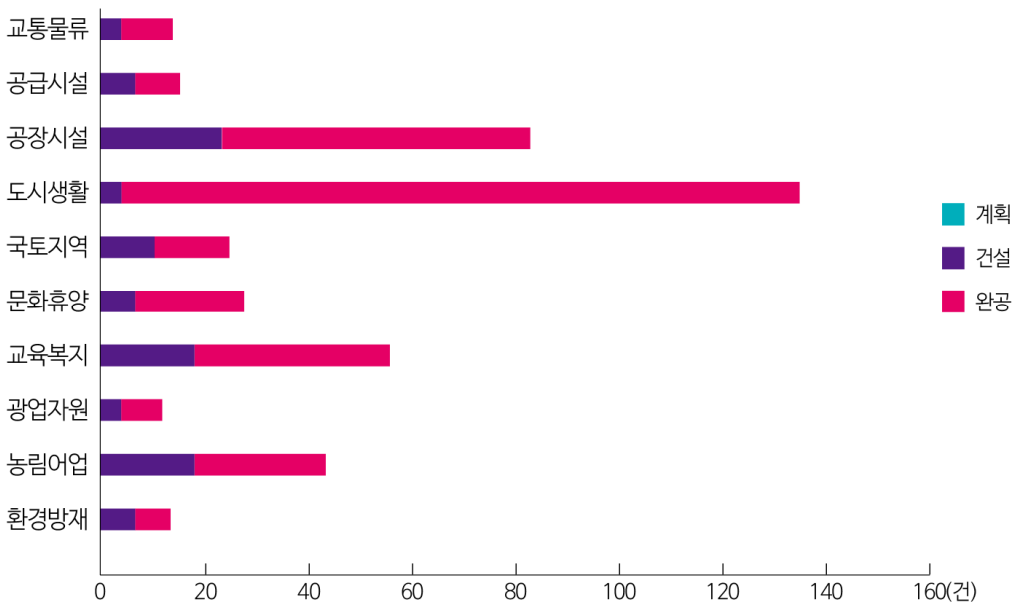
4. 단계별 시설유형별 분포

- 계획단계는 건으로 집계됨
- 건설단계는 총 99건으로 공장시설이 24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되었고, 교육복지시설 및 농림어업시설이 각 17건, 국토지역개발 10건, 환경방재시설 7건, 공급시설 및 문화휴양 시설 각 6건, 교통물류시설·도시생활시설·광업자원시설이 각 4건 집계
- 완공단계는 총 327건으로 도시생활시설(살림집)이 131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되었고, 공장시설 60건, 교육복지시설 36건, 농림어업시설 28건, 문화휴양시설 23건, 국토지역개발 15건, 교통물류시설 10건, 공급시설 9건, 환경방재시설 8건, 광업자원시설 7건으로 집계

표 3 단계별 시설유형별 분포

유형별 단계별	계	교통 물류	공급 시설	공장 시설	도시 생활	국토 지역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계획	0	-	-	-	-	-	-	-	-	-	-
건설	99	4	6	24	4	10	6	17	4	17	7
완공	327	10	9	60	131	15	23	36	7	28	8
계	426	14	15	84	135	25	29	53	11	45	15

그림 3 단계별-시설유형별 분포



PART 4

종합 및 시사점

Comprehension and Implications



I. 주요동향 요약과 시사점

《지방발전 20×10 정책》의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된 지방공업공장 추진과 국가경제계획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5년 3,4분기 살림집 건설 전반 및 평양 5만세대 건설과 농촌살림집 건설 동향을 살펴봄. 지방발전 정책에 따라 확대 건설되고 있는 간재기지조성 및 관련 기술 동향을 살펴봄. 2024년 홍수피해지역인 신의주(위화도)에 조성된 신의주온실종합농장추진 동향과 시사점을 검토함

1. 2025년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동향

- (정책 개요) 10년동안 매년 20개 시군에서 현대적 지방공업공장 건설, 기초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공급 토대 마련 목표
- (2차년도-2025년 사업 특징) 공장 건설에 국한하지 않고, 병원·과학기술보급소, 양곡관리소 등 ‘생활 인프라’를 통합구축하는 복합 방식으로 확장
- (2차년도 건설 규모) 총 21개 시군에서 지방공업공장 20개와 종이공장 1개를 포함하여 병원 및 종합봉사소 등 다수의 공공시설을 연내에 착공 및 준공완료
- (성과) 국가적 지도체계 하에서 중앙이 자금, 노력, 자재를 책임 보장함으로써 건설과 운영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음
- (한계와 과제) 단기적으로 전력, 설비, 인력 및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품질 유지가 관건으로 예상, 대외관계 개선없이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근본적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
- (시사점) 자재 우선배정 및 행정 간소화 등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단기간 내 건설 완료하는 속도전 양상 지속되고 있으며 평양 강동군(병원) 등의 사례처럼 향후 지방 건설은 보건 및 봉사 시설 포함하는 종합개발 모델로 진화 가능성 높음

2. 2025년 3,4분기 살림집 건설 현황

-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사업 추진 현황
 -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마지막 단계인 화성지구 4단계 건설 마무리

구분	사업명 / 위치	사업기간	사업내용	세대 수	비고(입사대상 등)
평양시 5만 세대 건설 사업	송화거리/평양 남측의 상대적으로 낙후한 농촌지역	2021.3.23. 착공 2022.4.12. 준공	5만 세대 첫 사업, 80층 초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1만 세대	1만	철거지역 주민, 공장 종업원, 무의무탁자 순
	화성지구 1단계/ 금수산태양궁전과 백화원초대소 인근	2023.4.16. 준공	5만 세대 두 번째 사업	1만	국방과학원 연구사들, 평양시 각 부문과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들
	화성지구 2단계 (림흥거리)	2023.2.15. 착공 2024.4.16. 준공	5만 세대 세 번째 사업	1만	일반 로동자, 영예군인, 전쟁로병, 제대군관 등
	화성지구 3단계	2024.2.23. 착공 2025.4.16. 준공	5만 세대 네 번째 사업	1만	교육, 보건, 상업, 금융봉사, 기술, 오락봉사
	화성지구 4단계	2025.2.16. 착공 2026.2.16. 준공	5만 세대 다섯 번째 사업	1만	시설을 갖춘 도시행정구역의 기능 확보

- 검덕지구 2단계 건설 사업
 - 5개년 계획기간(‘21~’25년)동안 2만 5천 세대 살림집 건설 계획
 - 검덕지구에 매년 5천세대 살림집 건설 중이며, 2025년에도 지속 중
- 농촌살림집 건설 규모 현황
 - 2025년 3,4분기 농촌살림집 완공 사업은 약 24,400세대로 추정
 - 4년간 총 10만 세대 이상의 농촌살림집을 건설한 것으로 보임
- (시사점) 살림집 사업 부문에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초과 달성
 - 2022년 약 1만 세대, 2023년 약 2.5만 세대, 2024년 약 4.5만 세대, 2025년 약 2.5만 세대로 4년간 총 10.5만 세대 건설한 것으로 추정
 - 살림집 사업에서 건설의 ‘물량 증가’와 함께 ‘사업 범위 확대’, ‘제도 정비’를 동시에 추진 및 실행

3. 건설자재 생산 기반 및 기술 개발 동향

- 북한 건설업은 살림집 및 지방공업공장, 각종 시설 개건 사업에 집중하며 2024년 기준 활발한 생산활동 유지
- 2025년에도 건설자재의 경우 지방발전 정책 확대 등에 따라 수요 위축은 크지 않았으며, 중소규모 건설자재 공장이 대대적으로 신설 또는 확장 추세
 - 2025년 전국적으로 40여 개의 마감건재 건설 기지 준공, 60여 개 마감 건재 생산기지 생산능력이 확장된 것으로 파악
- 주요 신규 마감 건재 공장으로는 평안남도 순천건재공장, 자강도 강계보도블록 공장,

황해남도 해주기와공장, 강원도 철령타일공장, 원산 건재공장 등이 있음

- 건재관련 최근 기술 개발 동향 파악을 위해 2024년 발간 「기술혁신」논문 정리
 - 토목분야 > 건축 분야 > 제조분야 순으로 관련 논문이 많이 발표
 - 기술 유형별로는 공법관련과 자재관련 논문이 전체 논문의 약 60% 차지, 현장 수요와 연계된 실용적 연구 경향이 두드러짐
- (시사점) 건설 자재 공급 및 기술 발전이 중앙 의존형에서 지방 자급자족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력갱생 노선과 지방발전 정책의 실물 기반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 특히 국산 원료 및 폐기물 활용 또는 에너지 절약형 공법 등 실제 생산 조건에 부합하는 현장 밀착형 기술혁신이 지속적 증가

4.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완공

- (배경) 2024년 여름, 압록강 하류 대홍수로 신의주(위화도) 지역에 심각한 침수 피해 이후 피해 지역 복구 및 재건 사업 완료 후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 추진
- (규모 및 기술 수준) 약 450정보 규모로, 2019년 중평, 2022년 연포, 2024년 평양 강동에 이은 북한의 인민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시설로 신의주 농장은 규모 및 시설 수준 면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로 계획
- (건설 주체) 평양 살림집 건설에 투입되었던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군인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 투입
- (공사 기간) 착공 후 약 1년 만에 준공식 진행(2026년 2월)
- (시사점) 재난극복의 상징이자 대규모 신기술 적용 온실로서 내부 단결 및 향후 지역 발전의 복합 모델로 제시
 - 국경도시 신의주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특징과 가공공장, 저장시설 및 원림 경관 조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과의 교역 확대 시 농작물 수출 및 국경 도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 있음

II. 유형별 동향분석 요약과 시사점

2025년 3,4분기 집계 결과 분석대상 기사는 총 426건으로 지난해 동기간(327건)에 비해 약 1.3배 수준으로 증가. 시설유형별로는 공장시설, 도시생활시설(살림집), 교육문화시설 및 농림어업시설 보도가 다수였으며, 지역별로는 평안북도와 함경남도가 각각 55건 및 50건으로 다수 분포. 2025년 1,2분기 대비해서는 약 2.8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하반기에 완료 기사가 다수 보도되는 특징 반영

1. 기사 건수 426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3배 증가, 동년 상반기 대비 2.8배 증가

- 분석대상 기사 건수는 총 426건으로 집계. 전년 동기 대비 1.3배(327건) 이상 증가했으며, 동년 상반기 대비 2.8배(147건) 이상 증가
 - 하반기는 모든 시설 유형에서 완공된 사업에 대한 기사가 다수 보도 되는 특징이 있어, 이러한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특히 2025년은 국가경제 5개년 계획 완수의 해로, 2025년 하반기에 완료 또는 종합된 실적을 보도한 기사 다수

2. 지역별 분포를 보면,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에서 다수 집계

- 평안북도 55건, 함경남도 50건, 함경북도 45건 등 다수 기사 집계
 - 상반기에 이어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다수 건설개발 사업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는 살림집 중심의 도시생활 시설이, 함경남도에서는 공장시설이 다수 집계

3. 유형별 특징 종합

- (교통물류시설) 총 14건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함경북도 수성천 다리 건설, 황해남도 해주시~재령군 도로 포장 완공, 함경남도 단천시 금골청년역 개건 중공 등
- (공급시설) 총 15건으로 주요 사업은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 우시군 3호발전소 완공 등
- (공장시설) 총 84건으로, 전국 지방공업공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제조공장들 다수 건설. 2차년도 전국 지방공업공장 20개 모두 12월 말 완공
- (도시생활시설) 총 135건으로 분류 시설유형 중 가장 많은 기사가 집계. 상반기 보도가 줄었던 농촌살림집 완공 소식이 다수 보도, 평양시 화성지구 4단계 완공 소식 등 주요 기사 집계
- (국토지역개발) 총 25건으로, 삼지연 특구 내 호텔 신규 건축 및 각 지방 소도시 도시경관 및 지역 개발 사업 추진 기사 다수 보도. 평안북도 애도간석지 1구역 공사 완공 등 간석지 사업 계속 추진 보도 다수
- (문화휴양시설) 총 29건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강원도 통천군 자산리 해수욕장 준공, 자강도 강계시 외산지구 강계 동물원 조성, 평양시 빙상관 개건 등
- (교육복지시설) 총 53건으로 병원과 전국 학교 개건 및 교육시설 신규 건축 기사 다수 보도. 주요 기사로 평양종합병원 준공, 남포시 룡강군병원 준공, 평안남도 100여개 학교

및 분교, 유치원 신설 및 개건 완료 등

- (광업자원시설) 총 11건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 250만산 대발파 진행, 황해남도 삼천탄광 새 갱 조성 등
- (농림어업시설) 총 45건으로 농업용 관개 시설 공사 기사 다수 보도, 그 외 강계시 새 임지 개발, 여러 지역 종어장 개건 공사 등이 주요 기사로 보도
- (환경방재시설) 총 15건으로 기후재난 대비 방재 공사(강하천 정리 등) 등 보도

Ⅲ. 3,4분기 종합 시사점

1. 《지방발전 20x10정책》2차년도 사업 완료와 성과 공개

- 2024년 1차년도 사업에 이어 2025년 2차년도 계획한 20개 사업을 모두 준공하며 정책 목표 달성. 1차년도 사업과 가장 큰 차별점은 단순 경공업공장 중심이 아닌 보건, 생활 문화, 주요 식량 관리 시설을 병행 구축하는 종합개발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임
-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전력, 설비, 원료 보장과 품질 확보가 과제로 보이며, 대외관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필요'를 넘어서는 경제발전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향후 1,2차년도 지방공업공장의 운영 실태와 생산품의 질, 활용 정도를 지켜 볼 필요 있음

2. 국가경제5개년 계획에서의 살림집 목표 달성

- 평양 5만 세대 및 검덕지구 2.5만 세대, 농촌 살림집 약 10.5만 세대건설 완료로 살림집 부문 5개년 계획 목표 초과 달성으로 주거 공급 측면의 정책 성과 가시화
- 특히 농촌 살림집의 형태 다양화와 기능의 복합화로 살림집 건설이 지방발전의 주요 역할과 기능 시설로 자리잡은 특징이 보임
- 대외관계 및 무역이 원활하지 못했던 지난 5년 동안 북한 내부에서의 자력갱생 목표를 어느 정도 확인하게 해 준 결과로 보이나, 건축물의 내구성 및 활용도 등은 추후 확인할 필요 있음

3.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완공을 통한 성공적 재난지역 관리 및 내부 결속

- 대규모 홍수 피해 지역을 1년 만에 약 450정보 규모의 온실농장으로 탈바꿈시킨 '재난극복과 자력갱생'의 상징으로 부각한 사례. 김정은 위원장의 반복적 현지 지도 등을 통해 내부 단속과 강력한 지도력을 강조
- 지방발전 20x10 정책과 연계하여 지방 생산력 증대, 자력갱생 기반 확충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확인되며, 복합농업단지 모델로 확산 가능성 있음
- 국경도시 신의주라는 지리적 입지와 다양한 시설 투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과의 교역 확대 시 농산물 수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성 시사

부 록

A p p e n d i x



조사 개요

I. 조사 목적과 범위

이 조사는 LH 토지주택연구원의 글로벌/북한연구센터에서 연중 진행하며, 반기별로 보고서를 발간함

1. 조사 목적

- 최신 북한지역 인프라 개발·계획 및 제도 동향 정보 구축
 - LH와 유관 기관, 일반국민들에 대한 북한 건설·개발 관련 정보 제공
- 남북경협사업 추진주체로서 LH의 역량 확보
 - 남북관계 개선시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
 - 대북사업 관련 경영·정책에 대한 적시 지원

2. 조사 범위

- 내용적 범위
 - 북한 인프라시설 개발 동향
 - 북한 개발 관련 계획·제도 동향
 - 주요 조사대상 분야: 산업, 교통물류, 에너지, 자원(지하자원, 수자원), 주택, 도시·지역 개발 등
- 시간적 범위
 - 2025년 3,4분기(7~12월)
- 공간적 범위
 - 북한지역(필요한 경우 동북아지역 등도 포함)
 - 공간분석 단위: 도, 시, 군과 가능한 범위에서 구역 등 하위 행정구역 포함

II. 자료 출처와 기초자료 입력·분류 방법

1. 자료 출처와 입력방법

□ 자료 출처

- 1차 자료: 노동신문(2025년 7월~12월 발간)
- 2차 자료: 각종 국내외 언론과 동향자료
 - 2차 자료는 1차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활용

□ 기초 Data 입력방법

- 조사대상 자료의 해당 기사를 엑셀 파일로 입력하여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기초 Data로 구축
- 시설분류, 사업명, 사업내용, 지역, 자료원 등 입력¹

표 1 기사 내용 입력자료 양식

코드	분류			사업명		사업내용				내용 (기사)	지역			자료원					비고
	대	중	소	기사	대표	구분	위계 단계	세부 사업	규모 (면적 등)		시도	시군	장소	출처 (북)	출처 (남)	기사 제목	일자	수록 면	

2. 분류 기준과 내용

□ 유형분류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의한 ‘기반시설 분류’,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용도 분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위 참조 대상 중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시설은 아니지만 개발동향으로 포함될 수 있는 ‘국토지역개발’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하나의 기사에서 특정 도시, 지역, 농촌지역 등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다수의 개발사업을 다루는 기사는 편의상 ‘국토지역개발’로 분류함

¹ 기사의 기초사항 입력은 <이석기·이승엽(2014), 「2000년대 북한기업 현황 : 북한 공식매체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의 입력방법을 응용하되, 시설유형분류와 사업내용 등은 분석대상에 맞게 새롭게 구성함.

표 2 유형 분류표

대	중	소	비고
1. 교통물류시설	도로	고속도로, 1급도로, 일반도로(2급 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 기타	
	철도	일반철도, 철도시설, 기타	
	공항	민간공항, 군공항, 기타	
	항만		
	유통업무설비	창고,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집배송시설, 기타	SOC 유통·공급시설 중 유통업무설비
	기타	주차장, 기타	
2. 공급시설	발전시설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변전소, 발전소, 기타	
	유류시설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기타	
	수도가스시설	수도시설, 가스시설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기타	
	기타		
3. 공장시설	음식료	음식료(10,11,12), 섬유 의복(13,14,16), 목재가구(16,32), 종이출판(17,18), 석유화학(19, 20,21,22), 비금속소재(23), 철강(24), 기계(25,29), 전기전자(26,27,28), 운송장비(30,31), 기타(33)	한국산업분류표 상 제조업 해당 중분류 기준
	섬유의복		
	목재가구		
	종이출판		
	석유화학		
	비금속소재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4. 도시생활시설	기타		
	살림집	단독주택, 아파트, 기숙사, 기타	
	숙박시설	호텔, 기타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기타	
	상업시설	백화점, 상점, 기타	
5. 국토지역 개발	기타		
	국토개발		북한 전역의 개발·계획
	지역개발		광역 개발·계획
	도시개발	평양시, 지방도시, 기타	
	농촌개발		도시 이외 중소지역개발
	특구개발	중앙급, 지방급	
	기타	간석지, 기타	

대	중	소	비고
6. 문화휴양시설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기타	SOC 공간시설
	문화시설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기타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기타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등 관광지 부수 시설, 기타	
	기타		
7. 교육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의료보건시설	종합의료시설, 병원, 보건소, 기타	SOC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 포함
	위생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장례식장, 도축장, 기타	SOC 보건위생시설 중 위생시설
	기타		
8. 광업자원시설	연료광업	석탄, 원유, 천연가스, 기타	
	금속광업	철광업, 비철광업	
	비금속광업	토사석광업, 기타비금속광업	
	기타		
9. 농림어업시설	농업시설	작물재배, 축산업, 기타	농업용 물길조성사업 포함
	임업시설	영림업, 벌목업, 채취업, 기타	
	어업시설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업, 기타	
	농어업단지	재배단지, 축산단지, 임업단지, 수산단지, 기타	
	기타		
10. 환경방재 시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사방설비, 방조설비, 기타	SOC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기타	SOC 환경기초시설
	기타		

- 사업명
 - 기사 : 기사에 나타난 사업의 명칭
 - 대표 : 동일 사업명 기사별로 명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표명칭 부여
- 사업내용 : 사업내용은 제도, 계획, 개발에 대해 각각 위계와 단계별로 구분

표 3 사업내용의 구분과 위계/단계 세부 내용

구분	위계, 단계
제도	당지침, 법규, 내각지침, 기타
계획	당, 내각, 부처, 지방, 기타
개발	계획, 건설, 완공, 운영, 미상

□ 동일 기사 내 복수 지역 출현 시 통계(건수) 처리

- 「북한건설·개발동향」은 기사 건수를 중심으로 계량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료 집계 편의상 하나의 기사에서 2개 지역(광역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다루고 있을 경우 각각 지역별로 집계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건수에 반영함
 - 1건의 기사에서 2개 이상 도에 걸친 경우는 기타(전국)으로 분류하여 집계함

□ 서술방식과 맞춤법 적용

- 사업 관련 사실(fact)을 위주로 가능한 범위에서 북한 기사 내용을 최대한 살림
 - 수사적 표현과 선전문구 등은 삭제하거나 완화된 표현으로 수정하였음
 - 가독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우에 따라 한국의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적용
- 고유명사 중 많이 알려진 경우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수정하였으나(예, 량강도 → 양강도), 일반 용어나 표기법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사 원문을 살림
 - 한국과 많이 다른 용어는 각주로 해설을 부기하였음

Ⅲ. 분석자료 추출과정

1. 3,4분기 1단계 추출 자료와 출처별 분포

- 유형분류 기준에 적합한 관련 기사를 1차 자료에서 791건을 추출함
- 원 출처는 노동신문과 조선신보임

2. 2단계 추출 과정(분석 자료)

- 1단계 추출 자료 791건에서 2단계로 최종 분석대상 ‘개발’ 기사자료 426건을 추출
 - 같은 사업 관련 기사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대표 기사 1건만 채택하고 다른 기사는 참고자료로 활용
 - 생산현장의 생산계획 초과달성 등 성과 홍보 기사의 경우, 시설 위치 파악의 유용성은 있으나, 시설 건설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최종 자료 집계에서는 제외

표 4 추출 자료 건수

출처	1단계 추출 기사(건)	2단계 추출 기사(분석자료/건)
노동신문	733	414
조선신보	58	12
계	791	426

표 5 2단계 추출 자료 시설유형별 분포

유형 계	교통 물류	공급 시설	공장 시설	도시 생활	국토 지역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426	14	15	84	135	25	29	53	11	45	15

'25년 3,4분기 북한건설 · 개발동향 자료

I. 교통물류시설

1. 도로

□ 함경북도, 수성천에 다리를 새로 건설(노동신문, 07.15, 5면)

- (내용) 함경북도 수성천에 길이 400m 다리를 새로 건설함
 - 도당위원회에서 정책적과업으로 완강하게 실천하여 청진시 수남구역과 송평구역을 오가는 사람들의 교통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됨
- (주체) 함경북도당위원회, 함경북도책임일군
- (규모) 400m
- (위치) 함경북도

□ 함경북도, 길주군 새 다리건설 마감단계(노동신문, 07.17, 3면)

- (내용) 현재 길주군에서는 새 다리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 류만천에 새 다리가 번듯하게 일떠서 주민들의 교통상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희망함
- (주체) 길주군당위원회, 길주군당일군
- (위치) 함경북도 길주군

□ 황해남도, 해주시~ 재령군 도로포장 완공(노동신문, 08.10, 4면)

- (내용) 도당책임일군은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주어 1단계 도로포장공사를 한달 남짓한 기간에 성과적으로 결속함.
 - 2단계 도로포장공사량은 1단계 공사량보다 더 많았고 조건도 불리하였지만, 현장지휘일군들은 여러개의 작업조를 내오고 지구별로 공사를 전면적으로, 입체적으로 다그치게 함
 - 현재 도에서는 도로포장을 결속한데 맞게 용벽공사, 물도랑정리 등을 마감단계에 내밀고 있음
- (주체) 황해남도당위원회, 황해남도당책임일군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재령군

□ **함경북도, 화대군 화대천~룡산천 다리들 새로 건설(노동신문, 09.04, 5면)**

- (내용) 군에서는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보장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노력편성을 합리적으로 하고 건설용자재보장대책을 면밀히 세웠음
 - 화대천다리공사를 맡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앞선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공정별 작업을 질적으로 해나간 덕분에 백수십m나 되는 다리건설을 짧은 시간에 결속함
- (주체) 화대군의 공사 일군들, 근로자들
- (규모) 백수십m
- (위치) 함경북도 화대군

□ **자강도, 동신군 새 다리 건설중(노동신문, 09.23, 3면)**

- (내용) 동신군, 농장원들의 편의를 위한 새 다리를 건설 중임
 - 자강도농촌경리위원회 일부 작업반사람들의 이동간 불편함을 료해한 군당위원회에서는 농장원들의 편의보장을 위해 콘크리트다리를 새로 놓을것을 발기함
 - 현재 농장원들을 위한 다리공사는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음
- (주체) 동신군당위원회, 동신군설계연구소의 일군들
- (위치) 자강도 동신군

□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신암구역 아스팔트포장공사 결속(노동신문, 10.17, 5면)**

- (내용) 함경북도에서 청진시 청암구역과 신암구역의 기본도로들에 대한 아스팔트포장공사를 결속함.
 - 청진시도시경영기계화사업소에서는 설계상, 공법상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맡은 공사를 본때있게 내밀어 짧은 기간에 공사를 모두 끝냄
- (주체) 청진시도시경영기계화사업소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 **평안남도, 안주시 콘크리트 다리 조성(노동신문, 10.20, 5면)**

- (내용) 연풍리지역에 있는 섬주민들이 교통상불편을 느껴 이들의 편의보장을 위해시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콘크리트다리를 새로 놓을것을 발기함.
 - 공사기간 시당일군들은 수시로 현장에 나와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부단히 높여 그 결과 수백m길이의 넓고 시원한 다리가 새로 일떠서게 됨
- (주체) 안주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 안주시 일군들
- (규모) 수백m
- (위치) 평안남도 안주시

□ 자강도, 여러시군 도로기술개선 중(노동신문, 11.24, 5면)

- (내용) 당의 국토관리정책에 따라 자강도 여러 시군에서 많은 구간의 도로들을 기술 규정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개선하여 도로의 견고성과 문화성을 높임
 - 도로기술개선과 보수에 필요한 룬전기재, 세멘트, 피치, 연유 등을 책임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한 결과 희천시에서는 10만여㎡의 도로피치포장공사를 결속하고 만포시와 동신군에서도 많은 구간의 도로를 포장함.
- (주체) 자강도당위원회, 자강도 여러 시일군들, 근로자들
- (규모) 10만㎡
- (위치) 자강도

□ 평안북도, 천마군 여러 개 새다리 건설 완료(노동신문, 11.25, 5면)

- (내용) 지금까지 다리건설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단위에 공사과제를 맡겨주고 자체의 기술력량을 적극 발동하도록 해, 해당 기관과의 연계밑에 다리설계를 선행시킴.
 - 자재보장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우고,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천창군민다리, 고막골다리를 비롯한 다리건설과 서고2다리개건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짐
 -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높은 실적을 기록함.
- (주체) 천마군당위원회 일군들, 군국토환경보호관리부 일군들, 종업원들
- (위치) 평안북도 천마군

2. 철도

□ 전국,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사업 중(노동신문, 09.24, 5면)

- (내용) 평안북도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군중적으로 전개
 -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불과 며칠동안에 800여㎡의 자갈보충과 천수백㎡의 자갈 청소 등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철길강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함
- (주체) 전국 일군들
- (위치) 전국

□ 평양직할시, 평양해운사업소 평천려객역사 준공(노동신문, 11.29, 4면)

- (내용) 평양해운사업소 평천려객역사 준공식이 28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을 새겨안고 5개년계획의 성과적완결을 위한 올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 가야함을 언급

- (주체) 룡해운성 일군들, 평양해운사업소 종업원들
- (위치) 평양직할시

□ 함경남도, 단천시 금골청년역 개건 준공(노동신문, 12.14, 4면)

- (내용) 김정은 동지의 현지도와 당의 구성에 따라 산간지대 특징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여객봉사기지로 개건
 - 일군들의 자재 적기 보장과 돌격대원들의 입체적인 식으로 역사의 내외부 및 상가 건설을 완료함으로써 역지구를 특색있게 변모시킴
 - 철도 운수 부문의 책임감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 봉사 정신 강조
- (주체) 단천철도분국, 금골청년역 일군들, 종업원들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3. 항만

□ 함경남도, 단천항 지상건설 준공(노동신문, 12.03, 1면)

- (내용) 단천항 지상건설 준공식이 11월 27일 진행됨
- (위치) 평양직할시

4. 기타_교통물류

□ 평양직할시, 보통강 금란도~중구역 경루동 연결 다리 조성(노동신문, 08.05, 4면)

- (내용) 보통강의 금란도와 중구역 경루동을 연결하는 줄다리를 새로 건설하여 인민들의 편리와 복리 증진에 기여
- (주체) 평양시공공건물보수사업소 일군들, 근로자들, 중구역안 일군들, 종업원들
- (위치) 평양직할시

II. 공급시설

1. 발전시설

□ 함경남도, 여러 중소형발전소 건설 중(노동신문, 07.26, 5면)

- (내용) 당의 전력 정책에 따라 단천시에서 3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강력히 추진중
- (주체) 단천시 책임일군들, 건설자들, 근로자들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 자강도, 우시군3호 발전소 완공(노동신문, 09.13, 5면)

- (내용) 우시군 일군들, 근로자들이 부족한 자재와 설비를 우선확보해 송전선로 및 제방 공사를 마치고, 배수문 등을 자체 기술로 제작하여 완공
- (주체) 우시군당위원회,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자강도 우시군

□ 평안남도, 순천화력발전소 과열기증설 결속(노동신문, 10.09, 6면)

- (내용) 5개년계획 성과를 위해 2호 보일러의 폐가스 열을 재이용하는 과열기 증설 공사를 완료해 전력 생산 토대 강화
- (주체) 순천화력발전소 일군들, 노동계급, 기술자들
- (위치) 평안남도 순천시

□ 평안남도,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발전설비대보수공사 완료(노동신문, 10.15, 5면)

- (내용) 당창건 80돐을 맞아 대용량 발전설비들의 대보수, 중보수 공사를 완공하고 정상 가동에 들어섬
- (주체)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일군들, 노동자들,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자들
- (규모) 매일 수십만kWh의 전력 더 생산
- (위치) 평안남도 북창군

□ 평안남도 개천시 송배전소 면모 일신중(노동신문, 10.15, 6면)

- (내용) 올해 새로 포장한 도로주변에는 느티나무와 장미, 은행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여러 품종의 나무들이 뿌리내려 송배전소의 면모가 일신됨
- (주체) 송배전소일군들, 종업원들
- (위치) 평안남도 개천시

□ **평양직할시, 계통연결형태양빛발전소 시범건설 완공(노동신문, 10.29, 5면)**

- (내용) 동대원구역 대신동과 대동강구역 옥류1동 일부 아파트 지붕에 수십kW능력의 태양빛발전소들을 시범적으로 건설해 주민 세대에 전력 정상 공급
- (위치) 평양직할시

□ **나선특별시, 나선청년발전소 개건 완료(노동신문, 10.31, 5면)**

- (내용) 전반적인 수력 구조물들을 개건, 보수하고 수력 터빈의 효율을 높여 전력 생산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토대 마련
- (위치) 나선특별시

□ **전국, 초고압송전선 건설 중(노동신문, 11.07, 1면)**

- (내용) 나라의 송전 계통을 현대화하여 능어나는 전력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초고압 송전선망 구축을 본격 추진 중
- (위치) 전국

□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노동신문, 11.21, 1면)**

- (내용) 김정은 동지가 직접 참석해 11월 20일 준공식이 진행됨
- 5개년계획 내에 도 자체의 힘으로 6개 발전소를 동시에 건설하여 지역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 확보
- (위치) 강원도 회양군

□ **평양직할시, 동평양화력발전소 3호보이라의 대보수 완료(노동신문, 12.02, 1면)**

- (내용) 3호 보일러 대보수를 통해 열생산 및제진 계통의 운영 수준을 높이고 석탄 연소율과 작업 환경을 개선
- (위치) 평양직할시

□ **자강도, 장자강 발전소 개건보수 완공(노동신문, 12.16, 8면)**

- (내용) 자강발전소의 생산토대를 일층 강화하고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 시공력량편성과 건설장비, 설비보장을 선행시키며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배가함
- (주체) 건설자들, 련관단위 과학자, 기술자들, 발전소종업원들
- (위치) 자강도 만포시

□ **강원도, 이천2호군민발전소, 회양2호군민발전소 건설 착수(조선신보, 12.15, 1면)**

- (내용) 도 자체의 힘으로 이천2호와 회양2호발전소 건설에 새롭게 착수
- (위치) 강원도 이천군, 회양군

2. 수도가스시설

□ 평안남도, 문덕군 샘물공급소 건설 중(노동신문, 10.31, 3면)

- (내용) 문덕군 읍지구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샘물공급소 건설 결정, 원천 확정 및 수질 검사등 사전 준비를 마친 후 공사 착수
 - 1,000여m의 관늘이기와 건물 기초 공사 진행, 현재 공사 마감 단계에서 다그침
- (위치) 평안남도 문덕군

□ 자강도, 강계시 생활용수통합관리체계 확립 1단계 공사 마무리(노동신문, 11.05, 5면)

- (내용) 강계시의 생활용수공급을 원호라히 장악하고 지휘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 확립 사업을 추진하여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함
 - 1단계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2단계 공사에 착수함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황해북도, 사리원시 수원지확장공사 중(노동신문, 11.24, 3면)

- (내용) 사리원시 주민들의 생활용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보다 능력을 훨씬 높이는 대규모 수원지 확장공사를 강력히 전개함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III. 공장시설

1. 음식료

□ 전국, 밀가공기지 개건현대화 공사 중(노동신문, 07.17, 4면)

- (내용) 함흥·원산 밀가공공장, 평양량곡가공기계공장 등 여러 밀가공기지의 개건현대화 공사와 가공설비의 국산화를 위한 사업 진행
- (특징) 식량문제와 관련되는 밀가공설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
- (주체) 량곡관리성 일군들
- (위치) 전국(함경남도, 강원도, 평양직할시 등)

□ 강원도, 원산밀가공공장 건설 중(노동신문, 07.21, 5면)

- (내용)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한 원산밀가공공장을 꾸리기 위한 사업 진척
- (규모) 근 1만㎡
- (주체) 도당위원회, 도인민위원회, 량곡관리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
- (위치) 강원도 원산시

□ 평안북도, 젃제품생산실 개건(노동신문, 07.23, 5면)

- (내용) 시·군과 탁아소, 유치원을 갖고있는 단위들에서 젃제품생산실의 개건공사가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염소마리수를 늘이는 사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
- (특징) 육아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젃제품생산토대를 강화하는 사업
- (주체) 해당부문 일군들, 시·군 일군들
- (위치) 평안북도

□ 황해북도, 시, 군들에서 젃제품생산실 개건(노동신문, 07.30, 5면)

- (내용) 농촌리들의 젃제품생산실을 개건할 목표를 세우고 강력히 추진하여 수백개의 젃제품 생산실을 일신시킴
 - 금천군은 10여개의 젃제품생산실에 대한 개건공사를 짧은 기간안에 결속하고, 신평군은 젃제품생산설비들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료해
 - 은파군과 황주군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에서도 젃제품생산실들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여 좋은 결실
- (주체) 해당부문의 일군들, 군당책임일군들
- (위치) 황해북도

□ 황해남도, 바다나물종합가공장 건설 중(노동신문, 08.03, 4면)

- (내용) 황해남도에 다시마와 김을 비롯한 바다나물을 가지고 여러가지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바다나물종합가공장이 새로 건설되고 있음
- (주체) 도, 도수산관리국,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일군들
- (규모) 건평 수천㎡
- (위치) 황해남도

□ 평안남도, 한천수산사업소 젓갈가공장 개건(노동신문, 08.06, 5면)

- (내용) 한천수산사업소 젓갈가공장이 개건현대화
 - 기본생산건물과 물정제공정 등을 꾸려야 하는 방대한 건설대상으로, 계속되면 한해에 각각 수백t씩의 건뎡이젓과 물고기간장 등이 생산 예정
 - 젓갈의 품질 담도를 위한 수산연구원 수산현대화연구소 실장 리충열, 연구사 양성혁, 남포수산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연구사들은 수십차례의 실험과 연구끝에 새로운 숙성방법과 미생물효소제를 탐구개발
- (주체) 평안남도수산관리국 일군, 한천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 (규모) 연건축면적 수천㎡
- (위치) 평안남도 평원군

□ 자강도, 강계포도술공장 개건현대화 공사 중(노동신문, 10.22, 5면)

- (내용) 강계포도술공장개건현대화공사 적극 추진되어 총공사량의 90%계선에 이르렀음
- (주체) 도당 일군, 공장 종업원들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평안북도, 박천군 양량곡관리소 설비 현대화와 새 가공설비 설치(노동신문, 11.12, 5면)

- (내용) 박천군량곡관리소에서 종전의 설비들을 현대화하는것과 함께 새 가공설비를 설치하여 밀가공품생산능력을 제고
 - 밀가공공정의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이고 새 가공공정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
- (주체) 박천군량곡관리소 일군들
- (위치) 평안북도 박천군

□ 양강도, 해산시 기초식품공장 개건 중(노동신문, 11.14, 5면)

- (내용) 해산기초식품공장의 개건현대화공사가 여러동의 생산건물에 대한 건축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서고 기름, 간장, 된장생산공정의 기술개조 추진
- (특징)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탐구도입하면서 설비들의 기술개조기일을 앞당김
- (주체) 도당위원회, 공장 일군들
- (위치) 양강도 해산시

□ 함경남도, 북청군과일가공공장 개건(노동신문, 11.26, 5면)

- (내용) 북청군과일가공공장이 새롭게 개건되어 수백대의 설비들을 갖춘 공장에는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어있으며 분석실, 종합조종실, 과학기술보급실, 과일보관고 등이 꾸려져있음
- (주체) 북청군 일군 및 녀맹원들, 건설자들, 공장종업원들
- (위치) 함경남도 북청군

□ 나선특별시, 나선종합식료공장 개건현대화(노동신문, 12.01, 3면)

- (내용) 합식료공장의 개건현대화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여 생산공정의 자동화, 흐름선화가 실현되고 위생안전성이 보장된 공장이 일떠섬
- (주체) 나선시 일군들,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 (위치) 나선특별시

□ 함경남도, 함흥밀가공공장 개건준공(노동신문, 12.05, 3면)

- (내용) 함흥밀가공공장을 개건현대화하여 밀가루의 품질과 생산량을 제고할수 있게 기술개건됨
- (특징) 수십차례의 협의회를 열고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자재보장, 수송수단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
- (주체) 중앙과 도의 일군들, 함흥시의 건설자, 돌격대원들, 공장의 종업원들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함경남도, 장진군 감자가루생산공장 신규 건설 완료(노동신문, 12.10, 3면)

- (내용) 함경남도 장진군에 감자가루생산공장이 새로 건설되어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공장으로 일떠섬
- (주체) 공장의 일군·종업원들, 과학자·기술자들, 로동계급, 군급기관 일군가족들
- (위치) 함경남도 장진군

2. 섬유·의복

□ 평양직할시, 학생신발공장 신규조성(노동신문, 11.29, 4면)

- (내용) 평양학생신발공장이 새로 일떠서고 평양학생교복공장이 개건현대화 준공
 -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을 일식으로 갖춘 공장들이 완공됨으로써 수도의 학생들에게 학생 신발과 교복을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토대 마련
- (주체) 건설자들, 평양시 및 연관단위 일군들
- (위치) 평양직할시

□ 자강도, 강계가죽이김공장 신규 건설(노동신문, 12.11, 4면)

- (내용) 자강도에서 강계가죽이김공장을 새로 건설하여 준공
 - 10여동의 건물과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가죽이김공장이 일떠섬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토대 마련
 - 새로 설치한 가죽이김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학습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각종 원료와 자재 확보, 원림록화사업에 힘쓰
- (주체) 도당위원회, 공장의 일군·종업원들
- (규모) 10여동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황해북도, 사리원시 가죽이김공장 개건 공사 중(노동신문, 12.17, 5면)

- (내용) 사리원가죽이김공장을 비롯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과 서흥호소소년단야영소, 경암 건재공장, 사리원가죽이김공장 등 여러 대상의 개건공사가 마감단계
- (주체) 황해북도당위원회 일군들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3. 석유·화학

□ 함경남도, 2.8비날론연합기업소, 풍남광산개발 중(노동신문, 08.19, 1면)

- (내용)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 풍남광산개발을 적극 다그치고 있음
 - 로천채굴장, 파쇄사별장, 저광사 등 생산토대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지고 한개 계열의 생산공정에 대한 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
- (특징) 화학공업기지인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생산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원료를 넉넉히 보장 기대

- (주체) 2.8비날론련합기업소 및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양강도, 운흥군 고려약공장 건설(노동신문, 11.05, 5면)

- (내용) 운흥군에서 고려약공장을 새로 건설하여 흐름식생산공정이 갖추어진 공장에는 과학기술보급실과 종업원들을 위한 후생시설도 꾸려져있음
- (주체) 공장의 일군·종업원들
- (위치) 양강도 운흥군

□ 자강도, 여러 시군들 고려약공장 건설(노동신문, 11.11, 5면)

- (내용) 자강도의 시, 군들에서 고려약공장을 새로 건설
 - 동신군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지휘역량을 조직하고 책임일군들이 직접 책임지고 로력과 자재보장을 비롯하여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여 공사과제수행에서 높은 실적이 기록
 - 우시군에서는 고려약공장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보장대책을 면밀히 세우는것과 함께 걸린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풀어주어 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
 - 도적으로 10여개의 고려약공장들이 건설되게 되었으며, 새로 일떠선 고려약공장들에서는 생산공정들에 대한 GMP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 적극적으로 진행 중
- (주체) 도당위원의, 도고려약생산관리국 일군들
- (규모) 10여개의 고려약공장
- (위치) 자강도 여러 시군들(만포시, 동신군, 우시군, 랑림군, 고품군, 자성군 등)

□ 평안북도, 고려약공장들 개건 현대화(노동신문, 12.04, 3면)

- (내용) 평안북도에서 수십개의 고려약공장을 개건현대화
 - 염주군과 태천군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와 기술전습회 진행
 - 구성시에서는 공장개건현대화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과 함께 새 제품개발과 상표 등을 개선하는 사업 밀고나가 개건현대화된 공장에서 수십가지의 고려약을 생산하여 시병원에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
 - 천마군에서도 많은 품을 들여 고려약공장을 일떠세우고 설비들을 갖추어 제품들을 다량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신의주시와 운산군, 동림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지역에서도 설계의 요구대로 공장들을 번듯하게 꾸리고 고려약의 질제고와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는데 박차를 가함
- (주체) 도당위원회, 일군들
- (위치) 평안북도 여러 시군들(신의주시, 구성시, 염주군, 태천군, 천마군, 운산군, 동림군 등)

□ 함경남도, 함흥고려약공장 개건 준공(노동신문, 12.06, 3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함흥고려약공장의 개건현대화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
 - 수십종의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고 생산공정의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된 공장에는 여러 생산실과 분석실, 통합조종실, 과학기술보급실, 제품견본실 등이 꾸려짐
- (주체) 함경남도와 함흥시의 일군들·건설자들, 공장종업원들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평안남도, 시, 군고려약공장들 개건 현대화(노동신문, 12.15, 5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시, 군고려약공장들을 개건현대화
 - 증산군에서 고려약공장의 면모 일신과 생산공정의 GMP화 실현을 위한 단계별목표에 맞게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척
 - 은산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혼합반죽기를 비롯한 수십대의 설비들을 구비하고 품질이 철저히 보장된 고려약들을 생산하였으며, 녕원군에서도 고려약공장을 일떠세우고 설비들을 갖추어 의약품들을 다량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
 - 속천군, 안주시, 개천시 등지에서도 생산공정의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되고 생산실들과 분석실, 통합조종실, 과학기술보급실 등이 꾸려진 현대적인 고려약생산기지들을 일떠세움
- (주체) 도당위원회, 일군들
- (위치) 평안남도 여러 시군들(안주시, 개천시, 은산군, 녕원군, 속천군 등)

□ 강원도, 원산고려약공장 건설 마감단계(노동신문, 12.17, 5면)

- (내용) 원산교육기자재공장, 철령타일공장, 원산건재공장, 원산고려약공장, 도설비조립사업소 등 여러 대상건설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음
- (위치) 강원도

□ 양강도, 갑산군 고려약공장 신규 건설 완료(노동신문, 12.22, 5면)

- (내용) 갑산군에서 생산건물과 문화후생시설들을 갖춘 고려약공장을 새로 건설
- (주체) 군당위원회, 일군들
- (위치) 양강도 갑산군

4. 비금속소재

□ 평안북도, 관산군, 선천군 소석회생산기지 건설(노동신문, 07.14, 5면)

- (내용) 관산군에서는 소석회생산기지를 꾸린데 이어 생산을 활성화하여 토지개량사업을 진행, 선천군에서는 소석회생산기지를 새로 건설, 목초액생산공정을 확립

- (특징) 성과와 경험을 다른 지역들에 일반화하여 농업생산토대구축
- (주체) 군의 일군들, 책임일군
- (위치) 평안북도 관산군, 선천군

□ 자강도, 강계건재공장 개건완공(노동신문, 08.30, 5면)

- (내용) 강계건재공장이 능력이 큰 종합적인 마감건재생산기지로 개건
- (주체) 자강도 책임일군들, 공장의 일군·종업원들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전국, 마감건재생산기지 조성(노동신문, 09.24, 5면)

- (내용) 각 도와 시, 군의 지방건설에 필요한 마감건재생산토대를 꾸려 여러 도에 마감건재생산기지들이 일떠서고, 개건현대화함으로써 생산능력을 끌어올림
- (주체) 각 도/시·군의 일군·근로자들
- (위치) 전국

□ 황해북도, 사리원시 경암세멘트공장 대규모 세멘트생산공정 증설공사 중(노동신문, 10.27, 5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경암세멘트공장에 능력이 큰 세멘트생산공정 새로 증설하는 공사 마감단계
- (주체) 도당위원회, 도무역관리국 일군들, 단위 일군·기술자·로동자들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남포특별시, 타일공장 건설중(노동신문, 11.03, 5면)

- (내용) 남포시에서 능력이 큰 타일공장을 일떠세우고 있음
- (주체) 시당위원회, 일군들, 건설자들
- (위치) 남포특별시

□ 평안남도, 순천건재공장 개건 준공식(노동신문, 11.29, 4면)

- (내용) 순천건재공장이 새롭게 개건현대화되어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건재생산기지가 일떠섬
- (주체) 기능공, 근로자, 건설자들, 공장 종업원들, 평성공업대학의 교원, 연구사들
- (위치) 평안남도 순천시

□ **함경북도, 경성타일공장 개건준공(노동신문, 12.04, 3면)**

- (내용) 함경북도에서 경성타일공장을 개건하여 각종 타일생산에 필요한 능률높은 설비들이 갖추어진 공장으로 일떠섬
- (주체) 함경북도 일군들, 시공단위 일군·건설자들, 공장종업원들
- (규모) 10여개
- (위치) 함경북도 경성군

□ **함경남도, 함흥시세멘트공장에 기와분공장 신규 준공(노동신문, 12.04, 3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함흥시세멘트공장에 기와분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준공
- (주체) 도·시당위원회, 건설자들, 공장의 로동자·기술자들, 함흥시 근로자·녀맹원들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함경남도 단천시, 철길자갈생산기지 건설(노동신문, 12.05, 5면)**

- (내용) 단천시에서 철길강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자갈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기지를 건설
- (주체) 시의 책임일군, 일군들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 **황해남도, 해주기와공장 건설 준공(노동신문, 12.12, 4면)**

- (내용) 현대적인 설비로 장비된 해주기와공장 준공
- (주체) 황해남도 일군·건설자들, 공장 일군·종업원들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

□ **자강도, 강계보도블록공장 신규 건설(노동신문, 12.12, 4면)**

- (내용) 여러가지 형태의 보도블럭과 휴관생산에 필요한 각종 설비들을 갖춘 현대적인 공장이 일떠섬
- (주체) 자강도 일군들·근로자들, 설계가들, 과학자·기술자들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강원도, 철령타일공장 및 원산 건재공장 마감 단계(노동신문, 12.17, 5면)**

- (내용) 원산교육기자재공장, 철령타일공장, 원산건재공장, 원산고려약공장, 도설비조립사업소 등 여러 대상건설이 마감단계
- (위치) 강원도 철령군

□ 황해북도, 경암군 건재공장 개건 공사 중(노동신문, 12.17, 5면)

- (내용) 경암건재공장을 비롯해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과 서흥호소년단야영소, 사리원가죽이김공장 등 여러 대상의 개건공사가 마감단계 진행중(특징)
- (주체) 황해북도당위원회 일군들
- (위치) 황해북도 경암군

□ 양강도, 도 타일공장 건설 준공(노동신문, 12.27, 5면)

- (내용) 양강도에 건재생산기지들을 연이어 일떠세우며, 도타일공장이 지방발전정책실현에 이바지하기위한 마감건재생산기지로 건설
- (특징) 지역 원료원천에 의거한 시설
- (규모) 일군·건설자들
- (위치) 양강도

□ 양강도, 해산시 해산 건재공장 및 해산 기와공장 개건 완료(노동신문, 12.27, 5면)

- (내용) 해산건재공장의 생산공정을 일신하고 일부 시설 새로 건설하였으며, 해산기와공장도 생산공정을 새롭게 확립
- (특징) 지역원료로 건축 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주체) 일군들, 기술자, 노동자들
- (위치) 양강도 해산시

□ 양강도, 백암군과 갑산군 건재생산기지 건설 준공(노동신문, 12.27, 5면)

- (내용) 백암군과 갑산군에서도 자체 건재생산기지를 건설
- (특징) 지방원료 이용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안
- (위치) 양강도 백암군

5. 철강

□ 황해남도, 강철공장 신설(노동신문, 08.11, 5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선진적인 야금기술을 도입한 용광로, 산소전로, 유도로, 압연설비 등을 갖춘 철강재생산기지가 건설됨
- (특징) 지역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강철생산 시설
- (주체) 황해남도 일군·건설자들, 공장종업원들, 도인민위원회, 도무역관리국 등
- (위치) 황해남도

□ 남포특별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여러대상 건설 공사중(노동신문, 11.29, 4면)

- (내용)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여러 대상에 대한 공사 진행중
 - 연관단위 일군들과 긴밀히 연계하여 노동력 및 자재를 보장
 - 60t초고전력전기로건설에 기초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용해장충막공사 진행
 - 금속건설사업소와 강선산업건설사업소에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도입하여 구조물제작 및 설치작업 진행중
 - 혼합기를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작업능률을 제고함으로써 침전지굴착과 바닥콘크리트 치기를 기한 전에 완료, 벽체축조작업과 연결보설치작업 진행중
- (주체)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일군들, 로동계급, 기술자, 기능공들
- (위치) 남포특별시

6. 기계

□ 함경남도, 용서 기계 어려운 합 기업 1단계 개건현대화공사 중(노동신문, 10.21, 1면)

- (내용)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1단계 개건현대화공사가 마감단계
- (특징) 기계공업부문에서 현대화의 표준, 본보기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
- (주체) 일군들, 로동계급, 기술자들, 건설자들, 도당위원회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나선특별시, 농기계작업소 개건현대화 및 조업식(노동신문, 10.22, 5면)

- (내용) 나선시 농기계작업소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해 건설역량편성과 설비,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면서 공사 진행되도록 지시
- (특징)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보다 높일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 마련의 의미
- (주체) 건설자들, 작업소 종업원들
- (위치) 나선특별시

□ 강원도, 원산철도차량공장 화차부속품 생산 토대 새로 마련(노동신문, 10.23, 4면)

- (내용) 원산철도차량공장에서 구상화흑연주철로 화차부속품을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새로 꾸림
- (특징) 지여 원료를 활용한 화차부속품 대량생산의 토대
- (주체) 공장의 일군들, 기술자·로동자들
- (위치) 강원도 원산시

□ 양강도, 해산뜨락또르부속품공장 개건중(노동신문, 11.03, 5면)

- (내용) 양강도에서 해산뜨락또르부속품공장개건공사 추진 중
- (주체) 도당위원회, 일군들, 로동자·기술자들
- (위치) 양강도 해산시

□ 전국 교구비품, 교육기자재 공장건설 중(노동신문, 11.05, 1면)

- (내용) 학용품공장과 교구비품공장 건설사업 진행중
- (특징)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를 중대사안으로 두고 군인 건설자 투입
- (주체) 군인 건설자들
- (위치) 전국

□ 황해북도, 사리원설비조립사업소 면모 일신(노동신문, 11.07, 4면)

- (내용) 도과학기술위원회와 사리원설비조립사업소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
- (주체) 황해북도 일군·근로자들, 도당위원회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함경북도, 회령시 농기계작업소 개건(노동신문, 11.23, 4면)

- (내용) 회령시에서 농기계작업소를 새로 개건
- (주체) 시당위원회 일군들,
- (위치) 함경북도 회령시

□ 황해북도, 개성시 농기구공장 개건(노동신문, 11.25, 5면)

- (내용) 개성시에서 농기구공장을 기존건물을 통채로 들어내고 여러동의 생산 및 보조건물 등을 새로 개건
- (특징)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 정책 반영
- (주체) 일군·건설자들, 공장 종업원들
- (위치) 황해북도 개성시

□ 양강도, 해산연결농기계공장 개건 결속(노동신문, 11.27, 4면)

- (내용) 해산연결농기계공장 개건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
- (특징)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제고에 의의있는 연결농기계를 생산보장하는 토대
- (주체) 일군·종업원들, 도당위원회, 공장의 로동자·기술자들
- (위치) 양강도 해산시

□ 함경남도, 함흥련결농기계공장 개건 준공(노동신문, 11.28, 4면)

- (내용) 개건현대화된 함흥련결농기계공장이 준공
- (특징) 영농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물질적·기술적 토대 마련
- (주체) 도당위원회, 건설자들, 함흥시 녀맹원들, 로동계급, 과학자, 기술자들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자강도, 강계트랙도르부속품공장 개건(노동신문, 12.03, 5면)

- (내용) 자강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강계트랙도르부속품공장을 개건되어 각종 트랙도르부속품의 질을 높이고 여러 농기계를 생산 가능한 토대마련
- (주체) 자강도농촌경리위원회 책임일군·일군들, 공장 종업원들, 기능공들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평양직할시, 학용품공장과 교구비품공장건설 중(노동신문, 12.07, 1면)

- (내용) 평양시의 학용품공장, 교구비품공장 건설 건축물 마감공사 진행 중
 - 교구비품공장건설장에서도 지난 7월 초 당의 명령으로 시작하여 20여만㎡의 토량처리와 지대정리, 1만 3천여㎡의 기초콘크리트치기와 약 2만 5천㎡의 골조콘크리트치기 수행
 - 건설장을 하나의 직관물전지구획으로 전환시키고 3만㎡가 넘는 녹지조성과 계획보다 3배 이상의 나무심기 진행, 울타리와 옹벽공사 등을 진행
- (주체) 군인건설자들, 지휘관, 부대 장병들
- (위치) 평양직할시

□ 강원도, 원산 교육기자재 등 공장 건설 마감 단계(노동신문, 12.17, 5면)

- (내용) 원산교육기자재공장, 철령타일공장, 원산건재공장, 원산고려약공장, 도설비조립사업소 등 여러 대상의 건설이 마감단계 추진 중
- (위치) 강원도 원산시

□ 함경남도,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공사 중(노동신문, 12.17, 5면)

- (내용) 함경남도당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따라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공사 진행중
- (주체) 함경남도 일군들
- (위치) 함경남도 룡성군

7. 종이출판

□ 황해남도, 해주종이공장개건 중(노동신문, 07.01, 5면)

- (내용) 해주종이공장의 개건현대화가 적극 추진 중
 - 공사 완공 시 여러 용도의 종이를 다량생산가능
 - 펄프 및 종이생산건물을 비롯한 건물개건과 현대적인 설비설치, 생산공정의 기술개조 등 방대한 공사량을 짧은 기간 내에 완료할 목표로 진행중
- (특징) 공장의 유형을 나누어 설계
- (주체) 건설자들, 시공일군들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

□ 평양직할시, 민들레종이공장 개건 준공(노동신문, 12.06, 3면)

- (내용) 대동강기슭에 민들레종이공장이 개건
- (특징) 공장을 유형을 나누어 설계
- (주체) 공장 및 연관 단위 일군·종업원들, 기술자, 건설자들
- (위치) 평양직할시

□ 평안남도, 은산군 종이공장 완공(노동신문, 12.29, 1면)

- (내용) 평안남도에 현대적인 종이공장 완공
 - 각 도별 도내수요 충족을 위한 종이생산기지 건설 정책의 시범 사업으로 평안남도 은산군에 건설
- (위치) 평안남도 은산군

8. 기타

□ 함경북도, 원료기지사업소 일신(노동신문, 07.30, 5면)

- (내용) 부령군과 길주군의 원료기지사업소들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신
 - 설계 및 공법상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기본청사의 내외부를 조성하고, 청사내부에 직관선전물들을 게시하여 청사 자체를 교양마당으로 활용
 - 국가망을 통한 과학기술보급거점을 갖추고, 난방체계를 실정에 맞게 도입, 식사실과 목욕실을 비롯한 후생시설도 갖추
- (특징) 당의 지방발전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의 일환
- (주체) 함경북도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함경북도

□ 2026년 계획한 20개 지방공업공장 전국적으로 준공(노동신문, 12.16 외)

구분	2차 년도(총 21곳, '25년 착공, '25년 준공)		
	시·군	내용·착공일	준공일
평양직할시	강동군	지방공업공장(2. 28) 병원, 종합봉사소(2. 6)	12.15
남포특별시	룡강군	지방공업공장, 병원(2. 9)	12.29
평안남도	신양군	지방공업공장(2. 24)	12.15
	북창군	지방공업공장(2. 27)	12.18
	은산군	종이공장(2. 28)	12.28
평안북도	대관군	지방공업공장(2. 25)	12.15
	염주군	지방공업공장(2. 27)	12.26
함경남도	정평군	지방공업공장, 종합봉사소(2. 24)	12.24
	신포시	지방공업공장(2. 25)	12.19
함경북도	길주군	지방공업공장(2. 27)	12.23
	부령군	지방공업공장(2. 28)	12.15
황해남도	배천군	지방공업공장(2. 27)	12.20
	장연군	지방공업공장(2. 28)	12.18
황해북도	곡산군	지방공업공장(2. 24)	12.20
	황주군	지방공업공장, 양곡관리소(2. 26)	12.16
	개성시 개풍구역	지방공업공장, 종합봉사소(2. 28)	12.26
강원도	세포군	지방공업공장(2. 25)	12.20
	철원군	지방공업공장(2. 27)	12.18
자강도	량림군	지방공업공장(2. 25)	12.15
	장강군	지방공업공장(2. 27)	12.18
량강도	김정숙군	지방공업공장(2. 28)	12.20

IV. 도시생활시설

1. 살림집

□ 2026년 완공 살림집 현황(노동신문 보도기준)

지역	위치	규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평양직할시	강남군 장교리	100여 세대 (09.29)	• 농촌건설정책 수행을 통한 농촌생활환경 근본적 개선 • 생활상편의보장을 가장 우선시
	농촌경리위원회 호남농장	100여 세대 (10.20)	• 교외 경관과 어우러진 문화주택 • 생활상편의를 위한 조건 갖추
	농촌경리위원회 금대농장	(10.25)	• 기능공 역량 강화, 건설장비 확보, 건재생산기지 활성화에 주력 • 시공 전문화수준 제고 사업 수행
	형제산구역 형산남새농장	수십 세대 (11.23)	• 현대적인 문화주택 • 선진 시공방법 적극활용하며 입체적인 공사 수행
	역포구역 역포남새농장, 사동구역 오류남새농장	(11.29)	• 농촌 고유 특색 반영 및 생활상 편의 도모 • 소중, 단층 살림집
	순안구역 성일농장, 강동군 봉화농장	(12.10)	• 면밀한 대상별, 공정별 계획 • 기능공 역량 강화, 건설장비 확보, 자재 보장을 선행
남포특별시	대안구역 성암농장	(11.16)	• 실용성, 조형예술화 높은 수준에서 보장
	천리마구역 고창농장	(11.20)	• 여러 생활조건을 갖춘 소중, 단층, 다락식 살림집 • 수종이 좋은 나무로 조경
	강서구역 잠진농장	(12.05)	• 농촌고유 특색과 현대미를 구현한 문화주택 • 자재 확보를 선행 • 과일나무 등 수종으로 원림경관 조성
	항구구역 산목화농장	(12.11)	• 선진공법 활용하고 시공의 전문화 수준 제고에 주력 • 원림경관조성사업 추진
	천리마구역, 대안구역, 와우도구역	(12.26)	• 지역 특성 반영하면서도 생활에 편리하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건축 • 다양한 수종의 나무로 조경 • 선진 공법 적극 활용
나선특별시	나진구역 유현동, 선봉구역 홍의동, 웅상동 구룡평전소염소목장, 두만강동	수백 세대 (11.22)	• 독특한 건축미, 현대성, 문화성 갖춘 문화주택 • 여러지역에서 동시에 진행 • 화물자동차, 굴착기 등의 건설장비와 수만점의 기공구 확보하여 물질·기술적 토대 마련 • 기술전습회를 통한 기능공 역량 강화 • 지역특색 살린 다양한 형태로 조성 • 원림경관 조성 • 착공 후 6개월만에 완공

지역	위치	규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평안남도	순천시 풍탄농장	(09.17)	• 농업근로자 생활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세 번째로 조성된 살림집 • 일정별·공정별 계획 면밀히 세우고, 건설 장비 및 자재 보장 대책 선행 • 살림집 건설 입체적인 전개 • 기계화 비중, 시공 전문화 수준 제고
	평원군 삼봉리 운봉리	(10.08)	• 시공의 전문화 실현, 기능공 역량 강화, 자재 보장에 주력 • 정책적 지도 및 기술적 방조 심화 • 선진적 공법 및 경험 공유, 일반화로 현대감 있는 단층, 소층 살림집, 공동 축사 건설
	문덕군 입석농장	(10.14)	• 지난 해에 이어 현대성과 미화성을 갖춘 살림집 건설 • 역량 편성, 건설장비 확보를 선행 • 작업의 기계화 비중 및 시공의 전문화 수준을 제고
	안주시 송학농장	(10.16)	• 농촌 고유의 특색을 살리고 농장원 생활상 편의 도모하도록 설계 • 살림집 각 동을 농촌 문명의 새 모습이 체현된 문화주택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
	순천시 풍탄농장	수십 세대 (10.16)	• 농촌진흥을 위한 세 번째 살림집 건설
	화창군 덕련농장, 내양농장, 양춘농장	(11.12)	• 군 건설 여단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및 건설장비 실동률 제고 • 기능공 역할 제고를 위한 정치사업 • 방대한 토량처리와 구획공사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 노동력 절약형, 자재절약형 공법 도입하여 현대성, 문화성 구현
	허천군 읍농장	(11.25)	• 지역 특성 뚜렷하도록 건설 • 지방원료에 의한 마감건재, 건구 생산 활성화 • 실용성과 조형예술화를 보장 • 시멘트 등 자재 절약 가능한 합리적, 능률적인 공법 수용
	평성시 청옥농장, 자산농장	(12.04)	• 농촌 고유의 특색을 살리고 주민의 생활상편의 보장할 수 있는 주건이 갖추어진 문화주택 • 일정별, 공정별 계획 세우고 건설장비 및 자재 보장 대책 선행
평안북도	운산군 상원농장	(07.12)	• 지역 특성 반영 및 원림녹화 • 건축물 질 보장을 우선하여 공사를 입체적으로 진행
	선천군 일봉리	(08.12)	• 지역 자연 풍경과 조화된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된 단층, 다락식 살림집 • 설계 및 시공 요구 철저히 준수 • 앞선 공법 활용

지역	위치	규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평안북도	창성군 금야농장 제1, 2작업반마을	(09.10)	• 단층, 다락식 살림집 • 설비 및 자재보장 대책 선행 • 기능공 역량 강화를 위한 보여주기, 기술전습회 등 진행 • 앞선 공법. 경험, 능률높은 기공구 등 적극 활용
	농촌경리위원회 대흥농장 소재지마을	(10.02)	• 건설물 질 보장을 우선하여 입체적으로 공사 진행
	동림군 남삼농장 소재지마을	(10.06)	• 자연 기복을 따라 다양한 형식 • 합리적, 능률적인 공법 수용하여 실용성과 조형예술화 보장
	곽산군 당상농장	(10.11)	• 지난해에 이어 마을 조성 • 생활상편의 도모를 위해 다양하고 독특하게 설계
	삭주군 금부리, 피현군 당후리	(11.28)	• 지역 특성이 반영 및 현대성, 문화성 구현된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 • 건설장비 보강, 기공구 확보, 자재보장 대책을 선행 • 합리적인 공법 적극 활용, 지방원료에 의거한 건재생산
	룡천군 장산농장, 천마군 비화농장	(12.02)	• 설계, 시공 역량 편성, 건재생산기지 활성화 등을 선행 • 선진 공법 활용하여 질적수준 제고 • 실용성, 다양성, 조형예술화 구현
	철산군 동천농장, 송원군 전창농장	(12.03)	• 살림집 형태별, 공정별 보여주기, 경험교환 진행하여 공사 질 제고
	대관군 평문농장, 대안농장	(12.04)	• 농촌 고유의 특색을 살리고 주민의 생활상편의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문화주택 • 시공 전문화수준 향상에 주력하여 기술기능수준 제고, 앞선 시공방법 수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 건설
	동창군 대동농장	(12.08)	• 산간지대 특성 반영하여 자연기복 따라 건설 • 농업근로자 생활에 편리하게 조성 • 앞선 공법과 능률높은 기공구 활용
	벽동군 남하농장	(12.08)	• 산간지대 특성 반영하여 자연기복 따라 건설 • 앞선 공법과 능률높은 기공구 활용
	신의주시 송한동, 선상동	(12.21)	• 지역 특성 반영, 주민 생활에 편리하게 건설됨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영변군 원음농장, 동남공장 구장군 상이 공예 작물농장	(12.24)	• 건설 질 제고에 주력하여 능률적인 건설장비, 기공구를 활용 • 건설여단 기능공 역량 강화, 마감건재 생산기지 활성화 통해 필요한 건구, 자재 보장 • 설계 및 시공 요구 철저히 준수

지역	위치	규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평안북도	구성시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동산공예작물농장, 의주군 수진농장, 대화농장, 읍농장	(12.25)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된 단층, 소층, 다락식 살림집
	정주시	(12.29)	• 지역 특성 반영, 주민 생활상 편의를 위한 조건 갖춤 • 설비 및 자재 보장을 주력하면서 시공의 질 제고를 위해 공사조직 및 기술적 지도 심화
자강도	우시군 평상리	(09.01)	• 지역 특성 반영 및 원림 녹화 • 건설역량 편성, 장비 및 기공구 확보에 주력
	성간군 신청리	수백 세대 (09.06)	• 세련미, 현대성, 미학성이 보장된 단층, 소층, 다락식 살림집 • 원가를 줄이면서도 시공의 질 향상 가능한 공법 적극 활용
	농촌경리위원회 신연공예작물농장, 위원군 읍농장	(09.09)	• 농촌 고유의 특색 반영 및 현대성, 미학성이 보장된 소층, 단층, 다락식 살림집 • 실용성과 조형예술화 구현 • 건설장비 및 자재 보장을 선행하고, 시공 전문화 수준 제고하여 입체적 공사
	전천군 운송농장	(09.11)	• 앞선 공법 활용하여 문화주택 및 공동축사 건축 • 마을 주변에도 원림 경관 조성
	시중군 영흥농장	수백 세대 (09.16)	• 주변 경관과 조화되면서도 현대적 미감이 나도록 설계 • 시멘트 등 자재 절약 가능한 합리적, 능률적 공법 수용 • 실용성과 조형예술화 보장
	낭림군 신원농장	수백 세대 (10.01)	• 산간지대 경관과 조화되면서도 현대적 미감이 나도록 설계 • 선진적 공법과 기술혁신안 활용
	자성군 자작농장, 역수농장	(10.05)	• 산간지대 지역특성 반영하면서도 농업근로자 생활상 편의 도모를 위해 다양하고 독특하게 설계 • 설계 및 시공 상 요구를 준수하고 앞선 공법 활용
	성간군 성하잡업농장	(10.09)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 역량 편성, 건설장비 확보 등을 선행하고 공사를 입체적으로 진행
	동신군 금갑농장	수백 세대 (10.11)	• 자재수송과 건설장비 보강을 선행하고, 시공 전문화 수준을 제고하여 소층, 단층, 다락식 살림집 건설
	고풍군 월명농장	(10.21)	• 위치선정, 입면 형성, 건축시공, 건재선택 등 건설 전 과정에 건설정책 구현 • 건설의 질 보장을 우선하여 능률적 공법 수용과 작업의 기계화 비중 제고

지역	위치	규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자강도	중강군 중덕농장, 중상농장	(11.08)	- 정치성, 현대성, 문화성이 보장되고, 주변환경과 조화 - 설계 및 시공 요구를 준수하여 입체적으로 공사 진행 - 기초공사, 벽체 축조, 내부마감 등 공정별 계획 수행에서 질적 수준 보장
	낭림군 인산농장	(11.25)	- 시공의 질 보장에 주력하며 지방원료에 의한 마감건재, 건구 생산 활성화로 살림집, 탁아소 건설 - 실용성과 조형예술화 보장 - 시멘트 등 자재 절약 가능한 합리적, 능률적 공법 수용
	장강군, 희천시	(12.09)	- 자체 생산기지 활성화로 건재품을 원만히 보장하고, 면밀한 공정별 계획을 통해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 건설 - 시공의 전문화 수준 제고
	만포시 견하농장	(12.11)	- 현대성, 미학성이 보장된 다양하고 독특한 살림집 - 공사의 모든 면에서 농촌건설정책 구현에 초점 - 선진공법 활용 및 시공의 전문화 수준 제고
	우시군 및 고풍군	백 수십 세대 (12.20)	- 지역적 특색 살리면서 현대성 구현 - 기능공 역량 강화 및 장비 보강 - 건재생산기지 활성화
	강계시 공귀남새농장, 위원군 개원농장	(12.30)	- 자연 경관과 조화되면서 생활 조건 갖추어진 문화주택 - 건설장비 보강 및 기능공 대열 늘리는데 주력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황해남도	은천군 마두농장	백 수십 세대 (09.30)	- 중산간지대 특성이 뚜렷하고,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 앞선 경험 및 기술 공유, 이전, 시공의 전문화수준 제고를 위한 실천적 대책 마련
	송화군 약산농장	(10.31)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배천군 역구도농장	(11.11)	- 조형예술성, 편리성 보장 - 자연지리적 조건, 농장원 기호에 맞는 건축형식의 다양성 구현된 현대적 문화주택 - 살림집 외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함께 조성
	룡강군 룡호농장	(12.05)	- 농촌 특색과 현재미를 구현 - 필요 자재를 선행 - 능률적 작업방법 활용
	안악군 월지농장 삼천군 추릉농장	(12.31)	- 지역 경관과의 조화 - 시공역량 강화, 건설 장비 및 기공구 보강에 주력

지역	위치	규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황해북도	송림시 청운농장	(07.19)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 건설장비, 자재 보장 대책 선행 • 질 보장을 우선하여 건축 공사 입체적으로 진행
	승호군 광정농장, 만달남새농장	(10.03)	• 지역적 특색 살리면서 생활상편의 도모하도록 다양하고 독특하게 건설 • 기계화 비중, 전문화 수준 제고
	농촌경리위원회 은정축산농장	(10.18)	• 지형기복과 조화 • 건설 필요 설비 및 자재 보장 대책을 선행시키고 시공 전문화 수준을 제고
	사리원방직공장	(10.28)	• 식당, 도서실, 요리 실습실 등 노동자 편의를 보장하는 생활조건 및 환경 갖추 • 시공의 질 보장을 우선하여 앞선 공법 적극 활용한 입체적 공사 진행 • 현대적인 미감에 맞게 건설
	곡산군 문양농장, 평암농장	(12.13)	• 살림방, 부엌, 세면장 등 생활상 편의 보장할 수 있는 조건 갖추 • 건설장비 및 기공구를 갖추고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살림집 건설
	수안군 산북리	(12.21)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 지역 특성을 살리고, 주민 생활에 편리하도록 건설됨
양강도	운흥군 대덕농장마을	수십 동 (10.15)	• 시공 전문화 수준을 높여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된 소층, 단층 살림집 건설
	백암군 증산리, 양곡리	(10.19)	• 백무고원 일대 지역적 특색 살림 • 역량과 수단 집중하여 공사 진행 • 정치성, 현대성, 문화성 제고 • 살림집 형태 및 공정별 보여주기 진행하고, 앞선 공법 및 경험 공유
	보천군 읍농장, 꽃봉농장	(10.22)	• 자연환경과 조화되면서도 다양하고 독특하게 건설 • 노동력 절약형, 자재절약형 공법 적극 활용하고 세부적으로도 건축물의 질 보장 노력 • 건설장비 효과적으로 이용, 기능공 역량 강화
	대흥단군 농사동농장, 홍암농장	(10.27)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 • 앞선 공법과 경험, 능률 높은 기공구 적극 활용하여 지역적 특색 살린 건축물 건설
	김정숙군 신상농장, 삼서농장	(10.30)	• 역량과 수단 집중 • 살림집 형태 및 공정별 보여주기, 경험 교환, 일반화 사업을 진행하여 세부적으로도 건축물 질 보장 노력

지역	위치	규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양강도	김형직군 대응리, 라죽리, 무창리	(11.02)	- 자연환경과 어울리고 생활상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독특하게 설계 - 지형 조건에 맞추어 단계별 목표, 일정계획 수립 - 노력절약형, 자재절약형 공법 적극 활용 및 시공의 전문화 수준 제고
	김형권군 읍축산농장, 직설축산농장, 지경축산농장	(11.03)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 건설물 질 보장에 주력 - 앞선 공법과 경험, 능률높은 기공구 적극 도입하여 지역적 특색 살린 건축물 건설
	운흥군 심포농장	(11.13)	- 설계 및 시공 상 요구를 준수하고, 입체적으로 공사 진행 - 정치성, 현대성, 문화성 구현
	풍서군 상리축산농장, 우포축산농장	(11.14)	- 산간지대 풍경과 조화되면서도, 현대적 미감이 나도록 조성 - 건설물 질 보장하며 일정별 공사 과제 수행 - 위생안전성이 담보된 생활용수 보장을 위해 설비 및 자재보장 대책을 선행하고, 상수도 공사 입체적으로 추진
	농촌경리위원회 포성농장, 삼수군 중룡농장	(11.15)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 시공역량 편성, 건설 장비 확보를 선행하고, 선진공법 수용 - 작업의 기계화 비중 제고
강원도	고성군 봉죽농장, 순학농장	(08.21)	- 다양한 형식으로 소층, 단층 살림집 건설 - 건설여단의 기능공 역량 강화, 자재 보장을 선행 - 능률 높은 건설 장비 및 기공구 활용 - 지방원료에 의거한 건재품 생산, 시공의 질 제고를 중요시함
	판교군 지하리	(08.25)	- 군 건설여단의 기능공 역량 강화 및 장비 현대화 우선시 - 앞선 공법 활용 -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게 건설
	금강군 금샘농장	(11.10)	- 산골 고유 특색 살리면서도 주민 생활상 편의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 - 노동력절약형, 자재절약형 공법 활용
	문천시 새솔농장, 천내군 로운농장	(11.30)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되고 해당 지역의 특성 살아나게 설계 - 시공의 전문화 수준, 작업의 기계화 비중 제고 - 질 제고와 자재 절약을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진행
	천내군 학포노동자구	(12.04)	건설자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지역	위치	규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강원도	안변군 오계리 원산시 상자리, 중용리	(12.06)	- 지역 환경에 어울리면서 주민 생활상 편의를 위한 조건 보장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 - 살림집건설추진정형을 주별, 월별로 분석하여 대책 강구 - 선진 공법 활용
	법동군 룡포농장, 작동농장	(12.13)	- 살림방, 부엌, 세면장을 비롯한 생활상 편의 보장할 수 있는 조건 갖추 - 능력있는 일군 현장 파견 및 건설장비와 기공구 갖추어주는 등 역량과 수단 집중 - 건설물 질 보장을 위해 공사지도를 강화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 - 현대성, 다양성, 문화성 구현
	원산시	(11.01)	- 노동력 및 설비, 자재보장을 선행 - 공정별 공사 조직과 지휘 진행 - 기초굴착, 골조공사, 벽체 미장 등 공사 전반에서 집단적 혁신
함경남도	홍원군	1300여 세대 (09.23)	50여동 규모의 소층 아파트 - 합리적인 노동력 조직, 자재보장 주력 - 편리하고 문화정서적인 환경 및 조건 제공에 우선 - 인민 의견 수렴을 통한 배란다, 창문의 조형예술성 보장과 외부도색
	장진군 황초농장, 도내농장	(10.04)	- 건설역량 편성, 장비 및 기공구 확보, 기능공 역량 강화에 주력 - 지방원료 활용한 마감건재 생산 병행 - 원림경관조성 입체적으로 추진
	낙원군 세포농장	(10.07)	- 현대적 미감으로 건설된 살림집 - 건설역량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자재 및 설비 보장을 선행 - 합리적 공법의 수용, 지방 원료에 의한 건재품 생산에 주목
	농촌경리위원회 수도농장, 함흥시 용신농장	(10.24)	- 설계, 시공에 맞는 공사 조직과 기술적 지도, 건설장비 및 자재 보장 대책을 세워 공정별 계획 수행 -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기능공대렬 확장에 주력
	단천시 룡천동, 새문화동, 본산동, 전진2동, 대흥1동	(11.24)	- 지난해 건설경험을 기초로 시공역량 보강 및 임무분담 세부화 - 기술중대 조직 및 기능공의 체계적 양성 사업도 병행 - 노력절약형, 자재절약형 작업공정으로 전환하고, 혼합물생산, 철근가공, 휘틀조립 진행 - 살림집 주변 도로, 옹벽 등의 공사 병행

지역	위치	규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함경남도	낙원군 흥상농장 금야군 읍농장	(12.07)	• 살림집 형태별·공정별 보여주기, 기술전습회 진행 • 선진적 공법 및 경험 공유, 일반화 • 현대감있는 다양한 형식의 문화주택
	영광군 인다농당 북청군 용전과수농장	(12.14)	• 농촌고유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 편의 도모한 다양한 문화주택 • 건설장비수준 제고 및 선진적 공법 공유, 일반화
	함흥시 마전농장, 내호농장 부전군 백상농장	(12.15)	• 지역특성 반영한 살림집 • 원림녹화로 조경 • 작업 기계회비중과 전문화수준 제고하여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 조성 • 자재절약을 위한 합리적, 능률적 공법 수용 및 실용성과 조형예술화 보장 노력
	신흥군 영고리 함주군 붉은별리	(12.19)	• 주민 생활 편의 보장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식의 문화주택 • 건설역량보강, 기술자, 기능공 양성, 중기계 및 각종 기공구 확보 노력 • 시공의 질, 속도를 동시에 추구하는 합리적 공법의 활용
	이원군 원천축산농장 고원군 상옥농장, 성내농장	(12.23)	• 지역적 특성 반영 및 원림녹화를 진행한 현대적 문화주택 • 능률 높은 설비, 기공구 적극 활용 • 앞선 경험 일반화하여 다양한 형식의 단층, 소층 살림집 건설
	함흥시 부민농장, 송흥농장 덕성군 덕성사과농장	백 수십 세대 (12.27)	• 농촌고유의 특색을 살리면서 건축 다양성을 구현한 마을 • 공정별 보여주기, 기술전습 진행
함경북도	회령시 창태축산농장	수십 동 (08.15)	• 시공 전문화 수준을 높여 실용성과 조형예술화를 갖춘 살림집·공동축사 • 집뜨락과 마을 주변 원림경관 조성
	김책시 상평축산농장	백 수십 세대 (10.13)	• 역량 편성, 자재보장대책 면밀히 세우고, 짧은 기간 내 생활상 요구가 갖춰진 살림집, 공동축사 건설 • 산간지대 특성 반영
	경성군 염분리	(10.17)	• 건축 질 제고를 우선하여 공사를 입체적으로 진행 • 해안지역 특성에 맞게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을 구현한 살림집 및 공동축사
	청진시 봉해남새농장	백 수십 세대 (10.23)	• 건축 질 제고를 우선하여 공사를 입체적으로 진행하여 농촌살림집 건설 • 해안지역 특성을 살리고, 현대성, 문화성을 구현한 문화주택

지역	위치	규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함경북도	경원군 성내농장	(10.26)	• 면밀한 일정별·공정별 계획, 건설장비, 자재보장 대책을 선행 • 건설물 질 보장을 위한 기술적 지도 강화
	어랑군 칠향리	(10.28)	• 마감건재 생산기지, 양묘장을 건설하고, 앞선 공법 및 경험, 능률높은 기공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 건설
	무산군 독소농장	백 수십 세대 (11.01)	• 1차적인 중요 정책과제로 내세움 • 역량 편성, 설비 및 자재 보장 선행, 앞선 공법 수용
	청진시 농포남새농장	(11.04)	• 계획성, 집중성, 전망성을 보장 • 시공역량 강화, 건설장비 보강하여 소층 살림집 건설
	연사군 연수리	(11.08)	• 고유 특색 살리면서 현대성, 미학성 갖춘 다양하고 독특한 형식으로 설계 • 위치선정, 입면형성, 건축시공, 건재선택까지 건설정책 철저히 고수
	명간군 읍지구	(11.11)	• 전쟁 노병을 위한 새 살림집 건설 • 군 건설역량으로 소층 살림집 건설 • 자재, 설비, 노동력을 면밀히 타산
	명간군 신양농장	(11.18)	• 농촌 고유 특색 살리면서 다양성 구현된 문화주택 • 일정별·공정별 계획 면밀히 세우고, 건설장비, 자재보장 대책 선행 • 건설물 질 제고를 위한 공사조직과 기술적 지도 심화 • 시멘트를 비롯한 자재 절약을 위해 합리적, 능률적 공법 수용 • 실용성과 조형예술화 보장 노력
	청진시 청암구역 사구농장	(11.19)	• 기능공 역량, 건설장비 보강 • 앞선 공법 활용하여 현대성, 미학성 보장된 살림집 건설
	온성군 풍서리	(11.21)	• 자연 풍경과 조화되는 건축미 • 시공역량 강화, 건설장비 및 기공구, 자재 보장 대책에 주력 • 주도성, 창발성, 활동성을 발휘한 공사지위 •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공법 수용
	화대군 금위농장, 명천군 황곡농장마을	(11.24)	• 시공역량 편성, 자재보장 대책을 면밀히 세워 짧은 기간에 건설 • 지역 특색 살리고, 지역 기복을 따라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 조성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된 문화주택

지역	위치	규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청진학생교복공장	(11.25)	• 노동자 생활편의 보장을 위한 합숙 • 공사 속도 및 품질 보장을 위한 합리적 공법 수용 • 공정별 시공 기준과 공법 요구사항 준수하여 마감공사 진행 • 공정별 작업 중 반복시공 없애기 위해 노력
	경흥군 태양농장, 부령군 형제농장	(11.26)	• 앞선 공법 활용하여 건축공사의 질적 수준 보장 • 지역적 특성 반영하고, 조경에도 힘씀
	어랑군 삼향농장, 경성군 염분농장	수천 세대 (11.27)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되고, 생활상 편의를 위한 조건을 갖춘 농촌 살림집 및 공공, 생산 건물 • 살림집을 비롯한 상점, 병원, 합숙 등 건설
기타	전국	수천 세대 (09.24)	• 전국 수십개 시·군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농촌살림집, 공공건물 건설 • 시·군 건설여단 기능공대렬 강화가 성과에 기여 • 각 대대의 시공작업 지도 가능한 참모를 체계적으로 양성 • 미장공, 목공, 전공 등 각 분야 기능공 수 증가를 위해 이론 및 실기 교육 진행

□ 2026년 건설중 살림집 현황(노동신문 보도기준)

지역	위치	규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평양직할시	칠골남새농장마을 사동구역, 강남군 삼석구역, 력포구역, 순안구역, 강동군 등	(07.16)	• 과학성, 실용성 확증된 공법 공유 및 일반화하여 공사성과 확대 노력 • 만경대 구역에서 필요한 자재 선행, 콘크리트 압송기 등 건설장비 실동률 제고 • 시공의 전문화수준 제고에 주력 • 현장기술학습, 기능전습 진행 •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 마감건재생산단위에서 지역 원료에 의한 건재생산량을 높이는데 관심
	화성지구	1만 세대 (07.30)	• 살림집, 공공건물 등 여러 시설의 공가사 입체적으로 진행 • 일별공사정형에 대한 결산을 진행하고, 앞선 작업방법 도입을 장려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수백 세대 (08.07)	• 골조공사 완료 후 내·외부 미장 추진 • 교통수단과 건설자재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일정 계획에 맞게 진행되도록 노력 • 공법의 요구를 준수하며 골조공사 진행 • 여러 단위에서 노동력 절약형, 자재 절약형 공법을 활용 • 질 제고와 기능공 양성 사업도 전개

지역	위치	규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함흥시 동흥산구역, 성천강구역 고원군, 홍원군, 낙원군, 영광군 등	550여 동 (09.15)	• 동흥산 구역, 성천강 구역에 본보기 30여동을 개선 • 도로 연선을 따라 개건 공사 전개 • 편리하고 문화정서적인 환경, 조건 제공을 위해 베란다, 창문 조형예술성을 풍부히하고, 건물 외부도색 새롭게함 • 지역에 맞는 형성안에 기초하여 살림집 개건공사 진행중 •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현대적 미감 나도록 개건하기 위해 노력

2. 상업시설

□ 평양직할시, 대동강반에 여객봉사기지 조성(노동신문, 10.05, 5면)

- (내용) 대동강반에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여객봉사기지 조성
 - 대동강 유람선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현대적으로 조성
 - 1층에는 손님들이 대기할수 있는 시설, 지하에는 목욕탕이 구비되어 있으며, 2층에는 상점과 식당이 조성되어있음. 식당에서는 한번에 150명 수용 가능
- (주체) 육해운성 책임일군들
- (위치) 평양직할시

□ 평양직할시, 개성고려인삼전시장 개업(조선신보, 07.09, 2면)

- (내용) 평양시 낙랑구역에 개성고려인삼전시장 신규 개업
 - 3층으로 된 전시장의 1층 상점에서는 인삼가공제품 판매를, 2층 식당에서는 다양한 요리를 판매
- (위치) 평양직할시 낙랑구역

□ 함경북도, 청진관 개관, 고기쟁반국수와 랭면 등을 봉사(조선신보, 10.01, 1면)

- (내용) 함경북도에 청진관이 새로 건설됨
- (위치) 함경북도

3. 숙박시설

□ 양강도, 해산혁명전적지답사숙영소 개건(노동신문, 10.04, 5면)

- (내용) 양강도에 해산혁명전적지답사숙영소가 개건됨
 - 수십개의 침실과 식사실, 체육관, 야외휴식장소 등이 새롭게 조성됨

- 무동력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고 생활용수 보장대책도 마련하였으며, 특히 침실에 대한 벽체보온대책에 집중

- (주체)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도혁명전적지관리국 일군들, 건설자들
- (위치) 양강도 혜산시

□ 남포특별시, 국사봉여관 건설 및 운영 시작(노동신문, 10.20, 5면)

- (내용) 남포시에 새로 건설된 국사봉 여관 운영 시작
- (주체) 시당위원회, 인민위원회 일군들, 건설자들, 여관 일군·종업원들
- (위치) 남포특별시

4. 업무시설

□ 평안북도, 운산군 답상농장 공공건물, 생산건물 준공식(노동신문, 10.20, 2면)

- (내용) 운산군 답상농장에 현대적인 공공건물, 생산건물 신규 조성
- (주체) 운산군 일군·건설자들
- (위치) 평안북도 운산군

□ 자강도, 희천시 지신남새농장 공공건물, 생산건물 준공(노동신문, 10.28, 3면)

- (내용) 희천시 지신남새농장에 공공건물들과 생산건물들이 신규 조성
- (주체) 일군·건설자들
- (위치) 자강도 희천시

□ 나선특별시, 공공건물 조성(노동신문, 11.09, 3면)

- (내용) 나선시 선봉구역 홍의동의 구룡평젓소염소목장에 문화선전실과 사무청사, 종합편의시설, 탁아소, 유치원, 합숙 등이 조성됨
- (주체) 나선시 일군·건설자들, 연관단위 일군·근로자들
- (위치) 나선특별시

5. 기타

□ 전국, 농촌마을 원림녹화사업 추진(노동신문, 12.27, 5면)

- (내용) 새 농촌마을들에 대한 원림녹화사업 적극 추진
 - 새 농촌마을들에 70만여 그루의 나무와 꽃관목 심기를 진행

- 평양시에서는 여러 구역에 새로 건설한 농촌살림집 주변을 특색있게 조성할 목표를 세우고 봄·가을철 나무심기 전개
- 계획대로 원림녹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농촌마을의 건축형식과 지대적특성을 고려해 원림설계를 선행
- 평안남도 평성시 청옥농장에서 보여주기사업 및 나무심기 진행
- 덕천시에서는 농촌살림집구획과 도로주변, 휴식터에 높은 활착률을 담보할수 있도록 나무 식재
- 성천군 삼원공예작물농장에서 키큰 나무, 지피식물 식재와 더불어 단층, 소층 살림집 울타리 주변에 과일나무와 꽃관목 식재
- 황해북도에서는 만금온실농장의 새 농촌마을을 본보기로하여 수종별특성과 주변환경에 맞게 원림경관조성사업 진행하도록 함
- 은정축산농장에서는 가을철 식수 적기에 맞추어 여러 수종의 나무, 꽃관목을 식재
- 은파군 대청농장은 공공건물들의 주변에 회화나무, 과일나무, 장미 등 많은 나무와 꽃관목 식재
- 양강도에서도 원림경관조성사업 진척, 백암군 증산리와 양곡리, 갑산군 사평농장과 남풍농장, 대흥단군 등에서 키큰 나무, 지피식물, 꽃관목 등을 식재
-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추진 시킴

- (위치) 전국

V. 국토지역개발

1. 지역개발

□ 평안북도, 태천군 국토관리사업 성과(노동신문, 07.16, 1면)

- (내용) 올해 110여km의 도로 기술 개진, 2만5,000여㎡의 강바닥 파기, 2만여㎡의 장식 쌓기를 진행하고 많은 녹지 면적 새로 조성함
 - 읍지구의 30여 개 아파트와 공공건물 보수 및 외부 도색을 완료하고, 거리와 마을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군의 면모를 일신함
- (주체) 태천군당위원회
- (규모) 110여km
- (위치) 평안북도 태천군

□ 남포특별시, 용강군 지역개발사업중(노동신문, 07.25, 5면)

- (내용)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과 군병원이 새로 들어서고 수십동 건물의 타일 붙이기, 도로 포장 등이 진행되어 군소재지 면모가 일신됨
- (위치) 남포특별시 용강군

□ 함경남도, 낙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 준공(노동신문, 08.31, 1면)

- (내용) 8월 30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됨
- (위치) 함경남도 낙원군

□ 함경남도, 지역개발사업 추진중(노동신문, 10.25, 1면)

- (내용) 당 제 9차 대회를 앞두고 도당위원회의 강력한 조직정치사업아래 도내 전반에서 산업 시설 및 민생 대상 건설을 입체적으로 전개함
 - 장진감자가루생산공장, 함흥연합농기계공장 개진 등 인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대상 공사를 속도감 있게 나감
- (위치) 함경남도

□ 전국, 20개 시, 군에서 지방공업공장, 병원, 종합봉사소 건설 마감단계(노동신문, 10.29, 1면)

- (내용)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라 전국 20개 시, 군에서 추진중인 지방공업공장, 병원, 종합봉사소 건설 사업이 마감 단계에 진입해 적극 추진 중
- (위치) 전국

□ 황해남도, 당결정서에 반영한 중요대상공사중(노동신문, 11.09, 1면)

- (내용) 해주-재령군 사이 도로 포장 공사를 결속하고 황남강철공장을 새로 건설하는 등 당결정서에 반영된 주요 대상 공사에서 가시적인 성과 달성
- (위치) 황해남도

□ 남포특별시, 지역개발사업 진행(노동신문, 11.15, 1면)

- (내용) 국사봉지구와 룡강민속공원 정비, 타일공장 및 학생소년궁전 건설 등 방대한 대상 공사 강력 추진 중
- (위치) 남포특별시

□ 자강도, 낭림군 군소재지 정비(노동신문, 11.23, 4면)

- (내용) 랑림군 군소재지에 여러 색깔로 장식된 100여 세대의 다층 살림집들, 유치원, 군 고려약공장 등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해 지역 면모 일신
- (위치) 자강도 낭림군

□ 황해북도, 지역 가꾸기 사업 추진(노동신문, 12.13, 5면)

- (내용) 수만 세대에 달하는 시, 군소재지 살림집을 개건하고, 수십 km의 도로 포장 및 주민들의 문화 정서 생활을 위한 건축물들을 대대적으로 건설
- (위치) 황해북도 은파군, 황주군, 봉산군

□ 평안북도, 운산군 여러 대상공사 완공(노동신문, 12.24, 5면)

- (내용) 농장 살림집과 생산 건물, 군문화회관 및 온천 이용 실내물놀이장 등을 현대적으로 건설하거나 개건함
 - 수십만㎡의 강바닥 파기와 1,800m의 제방도로 형성을 통해 하천 정리 및 지역 전반의 면모를 일신하는 성과를 거둠
- (위치) 평안북도 운산군

2. 국토개발

□ 양강도, 토지정리돌격대 량강도려단 삼지연시 농경지 토지정리(노동신문, 12.07, 4면)

- (내용) 삼지연시를 감자 농사의 본보기이자 농촌 경리 기계화의 표준 모범 단위로 만들기 위해 방대한 면적의 농경지를 기계화, 규격 포전으로 탈바꿈 시킴
- (위치) 양강도 삼지연시

□ 평안남도, 신양군 강하천 정리 공사 완료(노동신문, 12.09, 5면)

- (내용) 한 해동안 수십km의 강하천바닥파기와 7만여㎡의 장식쌓기, 수백개소의 사방야계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함
 - 굴착기, 유압식정재기, 중량화물자동차 등 필요한 중기계들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방대한 작업을 기계화로 밀고 나감
 - 국토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200여 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하였으며, 장마철 폭우에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 (위치) 평안남도 신양군

3. 도시개발

□ 황해남도, 해주시 도소재지 면모 일신(노동신문, 10.20, 5면)

- (내용) 도로포장, 하천 바닥 파기, 제방 장식 공사, 잔디 심기 등 방대한 규모의 도로 기술 개진 및 하천 정리 공사를 높은 질적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수행함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

□ 평안북도, 신의주시 지역개발사업 진행(노동신문, 10.26, 3면)

- (내용)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방대한 규모의 제방 공사와 강하천 정리, 우수지 준설 등을 단 몇 달 만에 결속하여 도시의 고질적인 침수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함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 함경남도, 함흥시 도시정비 중(노동신문, 11.11, 5면)

- (내용) 시내 중심을 따라 넓고 시원하게 뻗은 도로와 가로수, 잔디밭, 다채로운 색상과 무늬로 장식된 다층 살림집들을 통해 도시 거리의 면모를 일신함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평안북도, 지방도시 개발(조선신보, 07.02•04, 1면)

- (내용) 국경 관문 도시인 신의주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방대한 꾸리기 계획을 세우고, 시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부족한 자재를 신속히 확보하며 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임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 함경북도, 지방도시 개발(조선신보, 07.02•04, 1면)

- (내용) 청진시 포항중심부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수십동의 고층건물 외벽 타일 붙이기와 봉사건물 변모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4. 농촌개발

□ 황해남도, 벽성군 장해농장 마을꾸리기 사업(노동신문, 10.03, 6면)

- (내용) '농촌위생문화의 날'을 맞아 살림집과 농촌 마을을 문화적이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선경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마을 꾸리기 사업을 활발히 전개함
 - 백수십 세대가 '사회주의생활문화모범가정'의 영예를 얻었으며, 현재는 '사회주의생활모범단위' 쟁취를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위치) 황해남도 벽성군

□ 전국, 가을철 토지 정리사업 약 7500여 정보 완료(노동신문, 12.17, 5면)

- (내용) 황해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올해 7 500여정보의 토지를 규격포전, 기계화포전으로 정리함
- (주체) 황해북도려단 일군들, 돌격대원
- (규모) 7500여정보
- (위치) 전국

5. 특구개발

□ 양강도, 삼지연시 5개 호텔 신규 건설 완공(노동신문, 12.23, 1면)

- (내용) 김정은 동지가 참여한 삼지연관광지구에 일떠선 5개 호텔들의 준공식이 12월 20일, 21일에 각각 진행됨
- (규모) 이갈호텔, 밀영호텔, 소수백호텔, 청봉호텔, 붓나무호텔
- (위치) 양강도 삼지연시

6. 기타

□ 평안북도, 섬지구 영구화제방공사장 현지도(조선신보, 08.20, 1면)

- (내용) 김정은원수님께서 위화도온실종합농장건설장과 신의주시, 의주군의 섬지구 영구 화제방공사장을 현지도도를 1일에 진행함
- (위치) 평안북도 의주군

□ 평안북도, 애도간석지 1구역공사 완공(조선신보, 12.19, 2면)

- (내용)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건설자들이 정주시 일해지구로부터 애도를 거쳐 신봉지구까지 30여리에 달하는 제방을 쌓아야 하는 애도간석지 1구역공사를 완공함
- (위치) 평안북도 정주시

VI. 문화휴양시설

1. 문화시설

□ 함경북도, 회령시 문화정서생활기지 조성(노동신문, 07.31, 5면)

- (내용) 시 소재지 곳곳에 휴식터와 분수공원을 새로 꾸리고 야외물놀이장 등을 일신해 주민들에게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 환경을 제공
- (위치) 함경북도 회령시

□ 평안북도, 운산군 청년공원개건확장공사 중(노동신문, 10.22, 1면)

- (내용) 주민들의 문화정서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읍지구에 위치한 청년공원의 개건 및 확장 공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 날짜를 앞당기기 위해 일군들이 헌신적으로 분투 중
- (위치) 평안북도 운산군

□ 함경남도, 함흥대극장 개건 완공(노동신문, 10.29, 5면)

- (내용) 함흥시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정서생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함흥대극장의 관람 홀, 무대, 분장실 등 건물 전반을 현대적으로 일신함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평안북도, 영변군 여러곳에 문화회관 건설(노동신문, 11.03, 5면)

- (내용) 농업근로자들의 사상교양과 문화정서생활을 위해 영변군 내 대천리, 관하리 등 여러 지역에 현대적인 문화회관들을 새로 건설함
- (위치) 평안북도 영변군

□ 함경남도, 새로 개건된 함흥대극장 개관식(노동신문, 12.07, 3면)

- (내용) 연건축면적 수만㎡ 규모로 수천 석의 관람홀과 무대, 최신 음향 및 조명 설비, 연습실, 분장실 등을 완벽히 갖추어 새로 개건함
 - 개관식에는 함경남도와 관계 부문 일군들, 도안의창작가, 예술인, 근로자들이 참가하였으며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박현철이 개관사를 진행함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평안북도, 운산군 군문화회관 건설(조선신보, 10.01, 2면)

- (내용) 평안북도 운산군에도 근로자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울려퍼지는 2층으로 된 군문화회관이 건설됨
- (위치) 평안북도 운산군

2. 운동시설

□ 남포특별시, 체육관 건설 중(노동신문, 07.30, 5면)

- (내용) 동시에 배구와 룽구 등의 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연건평 수천m²인 텅지큰 체육관 건설 추진 중
- (위치) 남포특별시

□ 평양직할시, 빙상관 개건(노동신문, 08.15)

- (내용) 뜻깊은 조국해방 80돐을 맞으며 보통강반에 위치한 40여 년 역사의 빙상관 개관식이 8월 14일에 진행됨
- (위치) 평양직할시

□ 평안북도, 동창군 체육관 건설중(노동신문, 09.23, 3면)

- (내용) 인민들에게 훌륭한 문화정서생활 기지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면적이 근 2000m²에 달하는 체육관 건설을 강력히 추진 중임
- (위치) 평안북도 동창군

□ 평안북도, 구장태권도훈련소 신규조성(노동신문, 10.06, 5면)

- (내용) 선수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나 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구장태권도훈련소를 새로 일떠세움
- (위치) 평안북도 구장군

□ 남포특별시, 보링관 완공(노동신문, 10.18, 5면)

- (내용) 남포시 국사봉지구의 문화정서생활기지에 현대적인 보링관을 새로 번듯하게 일떠세워 준공함
- (위치) 남포특별시

□ 황해북도, 사리원승마구락부 준공(노동신문, 10.29, 5면)

- (내용) 사리원승마구락부 준공식이 28일 현지에서 진행됨
 - 정방산 기슭에 승마지식보급실, 승마주로, 기초훈련장 등을 갖춘 종합적인 승마봉사기지인 사리원승마구락부를 새로 일떠세움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평양직할시, 룡해운성체육단 종합훈련관과 체육인숙소 조성(노동신문, 11.20, 4면)

- (내용) 새로 건설된 룡해운성체육단 종합훈련관, 체육인숙소 준공식이 19일 현지에서 진행됨

- 대동강변에 연건축면적 2만여㎡ 규모로 수영장, 실내종합훈련장, 과학기술보급실 등을 갖춘 종합훈련관과 체육인숙소, 해양체육기재보관장, 배정박장등을 특색 있게 건설함
- (위치) 평양직할시

□ 함경남도, 항공구락부 신규 조성(노동신문, 11.29, 4면)

- (내용) 함경남도항공구락부 준공식이 28일에 진행됨
 - 대중항공체육기술보급소, 활주로, 종합청사, 기숙사, 과학기술보급실 등 전문적인 훈련과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구비함
- (위치) 함경남도

□ 함경남도, 함흥경기장 개건 준공(노동신문, 12.01, 3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함흥경기장 준공식이 11월 30일에 진행됨
 - 함흥경기장의 관람석, 심판원실, 선수대기실, 치료실 등을 현대적으로 일신하여 축구, 농구, 배구, 육상, 바드민턴 등 여러 종목의 경기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을 갖추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함경남도, 체육촌 새로 건설(노동신문, 12.03, 5면)

- (내용) 함경남도체육촌 준공식이 2일에 진행됨
 - 체육관과 체육인숙소, 축구훈련장 등을 갖춘 종합적인 체육문화 기지인 체육촌을 새로 건설해 나라의 체육 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기여할 거점을 마련
- (위치) 함경남도

3. 관광휴게시설

□ 남포특별시, 와우도유원지 개건 완료(노동신문, 07.14, 5면)

- (내용) 와우도유원지를 13일에 개건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휴식터를 제공함
 - 남포시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물놀이장, 해수욕장, 봉사시설, 도로 등을 일신하고 양수 설비 증설, 도로 포장, 성토공사등을 입체적으로 진행
- (위치) 남포특별시

□ 함경북도, 염분진지구 건설중(노동신문, 07.23, 1면)

- (내용) 염분진지구를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일신하기 위해 해안공원 지구 조성을 강력히 추진 중임

- 이미 수천㎡의 야외 체육장 건설과 하부망 공사, 원림 녹화 사업을 완료한 기세로 성과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휘 역량과 시공 역량을 보강해 질보장을 최우선으로 내세움

- (위치) 함경북도 경성군

□ 강원도, 통천군 자산리에 해수욕장 준공(노동신문, 07.24, 5면)

- (내용) 강원도 통천군 자산리에 해수욕장 준공식이 23일 현지에서 진행됨
 - 해변가에 봉사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관리 건물, 주차장 등을 갖추어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누릴 수 있는 토대 마련
- (위치) 강원도 통천군

□ 남포특별시, 서해갑문해수욕장 개건, 물놀이장 증설(노동신문, 07.26, 5면)

- (내용) 현대적인 문화생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서해갑문해수욕장을 개건하고 물놀이장을 증설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함
 - 시무역관리국에서 자재와 설비를 우선 보장하며 모래 깔기와 물놀이 기재 설치를 질적으로 완료하였고, 꽃관목 식재와 야간 조명 조성으로 해안 풍치를 개선함
- (위치) 남포특별시

□ 함경북도, 온포근로자휴양소신설공사 중(노동신문, 08.31, 4면)

- (내용) 산간지역의 종합적인 문화휴식 및 요양치료봉사기지로 꾸리기 위해 군인건설자들과 도안의 근로자들이 결합해 휴양소 건설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 (위치) 함경북도 온포군

□ 자강도, 강계시 외산지구 강계동물원 조성(노동신문, 09.07, 5면)

- (내용) 강계시의 풍치 수려한 외산지구에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는 동물원을 새로 일떠세움
 - 맹수사, 사슴사, 파충관을 비롯한 동물사들을 갖추었으며, 수십 종에 백수십 마리의 동물들이 입사함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평안북도, 정주시 현대적인 은덕원을 새로 건설(노동신문, 09.17, 3면)

- (내용) 당창건 80돐을 맞아 정주시민들을 위한 종합 봉사기지인 현대적인 은덕원을 새로 건설함
- (위치) 평안북도 정주시

□ 평안남도, 평성동물원을 새로 건설(노동신문, 12.03, 5면)

- (내용) 도안 인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문화정서생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봉림산 기슭에 2만여㎡ 부지면적의 평성동물원을 새로 건설. 12월 2일 준공

- (위치) 평안남도 평성시

□ 함경북도, 청진물놀이장 신규 준공(노동신문, 12.05, 3면)

- (내용) 청진물놀이장 준공식이 4일 현지에서 진행됨
 - 시공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선진적인 공법과 능률적인 기공구들을 활용해 건축물과 요소들의 질을 최상 수준에서 보장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 황해남도, 은률군 구월산 사향봉 휴식터 건설(노동신문, 12.14, 5면)

- (내용) 황해남도과 은률군의 일군들, 건설자들이 자재 보장을 앞세우며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짧은 기간에 수천 m의 도로 포장 공사를 질적으로 결속함
- (위치) 황해남도 은률군

□ 양강도, 백암군 노동자 정양소 준공(노동신문, 12.24, 5면)

- (내용) 백암군에서 군건설려단에 노동자정양소를 새로 일떠세움
- (규모) 학습실, 오락장, 침실, 식당, 목욕탕 등
- (위치) 양강도 백암군

5. 기타

□ 평안남도,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탄부휴양소 개건(노동신문, 09.15, 4면)

- (내용) 탄부휴양소와 북창목장을 현대적으로 개건
 - 탄부휴양소는 다기능 체육관, 실내 수영장, 문화 편의 시설들을 구색 맞게 갖추어 탄부들이 즐겁고 유쾌한 휴식을 보낼 수 있도록 일신함
- (위치) 평안남도 북창군

□ 평안남도, 회창군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군문화회관 개건중(노동신문, 09.24, 3면)

- (내용)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군문화회관을 8월 15일에 개건 완료 후 경축 공연을 성대히 진행함
 - 군당위원회의 주도 아래 ‘산골군’이라는 낙후된 관념을 타파하고 교육, 국토관리, 도시 경영 등 군 전반의 비약적인 발전 도모
 - 지난해 20여 개의 산골 학교와 분교를 건설 및 개건했으며, 특히 대명고급중학교는 기존 건물을 헐고 현대적으로 새로 일떠세움
- (위치) 평안남도 회창군

VII. 교육복지시설

1. 교육연구시설

□ 자강도, 상반기 다기능화된 교실 꾸리기, 학교 개건중(노동신문, 07.02, 5면)

- (내용) 자강도에서 농촌 학교들의 교육 조건과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교육의 현대화를 강력히 추진 중
- (위치) 자강도

□ 함경남도, 덕성군 분교건설 중(노동신문, 07.02, 5면)

- (내용) 당의 교육중시사상에 따라 지역 교육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덕성군 내 여러 곳에서 분교 건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
- (위치) 함경남도 덕성군

□ 황해남도, 김종태해주사범대학개건현대화 공사중(노동신문, 07.11, 5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교원 양성 기지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김종태해주사범대학의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신하는 개건 현대화 공사를 강력히 추진 중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

□ 강원도, 리수덕원산교원대학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07.22, 5면)

- (내용) 강원도에서 교육 강국 건설 구상에 따라 리수덕원산교원대학을 현대적으로 신축하고 7월 21일 준공식을 진행함
- (위치) 강원도 원산시

□ 황해남도, 김제원해주농업대학개건현대화 공사중(노동신문, 07.26, 5면)

- (내용) 현대 교육 발전 추세의 요구에 맞게 김제원해주농업대학을 일신하기 위한 큰 계획을 수립, 방대한 규모의 개건 현대화 공사를 강력히 다그치고 있음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

□ 남포특별시, 학생소년궁전 건설중(노동신문, 07.30, 5면)

- (내용) 남포특별시에서 후대 교육과 문화 정서 생활을 위한 학생소년궁전을 현대적으로 일떠세우기 위해 건설공사를 활발히 추진 중
- (위치) 남포특별시

□ 양강도, 백암군 수십개 분교 건설 중(노동신문, 07.30, 5면)

- (내용) 백두고원 지대의 교육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수십 개의 분교를 높은 질적 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한 건설공사를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
- (위치) 양강도 백암군

□ 평양직할시, 가금연구원 본원지구 개건 완료(노동신문, 08.14, 4면)

- (내용) 가금연구원 본원지구를 현대적으로 개건 완료하고 리철만이 8월 13일 현지 방문 진행
 - 본원지구에는 전자도서관, 토론회장, 실험실, 연구실 등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시설들과 첨단설비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었으며, 특히 가금생물학연구소가 새롭게 배치됨
- (위치) 평양직할시

□ 전국, 농업과학연구기지들 첨단화 추진중(노동신문, 09.12, 5면)

- (내용) 전국 각지의 농업과학연구기지들을 현대화, 첨단화하기 위한 건설 사업이 국가적인 지원 속에 박력 있게 추진 중
 - 혁명사적교양실, 종합분석소, 본원사무청사 등 연구 및 생활 조건 보장을 위한 여러 핵심 대상 공사가 현재 완공단계에 이르렀음
- (위치) 전국

□ 전국, 여러 시, 군의 학교, 분교 신규조성 및 개건(노동신문, 10.01, 5면)

- (내용) 평안남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이 주도하여 학교와 분교의 교육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둠
 - 컴퓨터를 비롯한 교육 설비와 장치들, 세멘트, 강재, 목재, 책걸상 등 학교 꾸리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기자재를 원만히 갖추어 주기 위해 헌신함
- (위치) 전국

□ 전국, 학교 건설 및 개건현대화공사 진행중(노동신문, 10.01, 5면)

- (내용)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받들어 각급 학교와 대학의 건설 및 개건 현대화 공사가 전 사회적인 지원 속에 강력히 추진 중임
 - 전국적인 새학교, 분교, 윗원 건설과 사범대, 농업대 건립을 추진하며, 교육의 정보화 및 수자화 실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총력 전개함
 - 개천시, 평원군, 북창군, 정주시, 구장군 등은 자체의 힘으로 계획된 건설 대상들을 추진 중이며, 특히 급선무로 나선 교실의 다기능화와 현대적인 설비 교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위치) 전국

□ 황해남도, 신천군 지남리 분교 완공(노동신문, 10.04, 6면)

- (내용) 황해남도 신천군 지남리의 산골 마을에 아이들을 위한 현대적인 분교가 완공되어 9월 1일부터 첫 수업을 시작함
- (위치) 황해남도 신천군

□ 황해남도, 학교와 분교건설 및 개건공사 중(노동신문, 10.13, 5면)

- (내용) 올해 수십 개의 학교와 분교 건설 및 개건 공사를 도적인 차원의 정책적 문제로 내세워 강력히 추진 중임
 - 배천광산이 교육사업을 단위 발전의 중차대사로 여기고 강력한 건설 역량을 편성하여, 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현대적인 학교를 짧은 기간에 일떠세움
 - 태탄군은 학교, 분교 건설을 제기일에 완공했으며, 신천군은 내부 예비를 탐구해 부족한 자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러 분교 건설을 기한 전에 질적으로 끝냄
- (위치) 황해남도

□ 양강도, 도과학기술도서관 준공(노동신문, 10.17, 5면)

- (내용) 도과학기술도서관이 10월 16일에 준공식이 진행
- (위치) 양강도

□ 평안북도, 60여개의 교육단위 건설 및 개건현대화공사 결속(노동신문, 10.19, 4면)

- (내용) 올해 계획한 60여 개의 대학, 학교, 유치원 건설 및 개건 현대화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역 교육토대를 획기적으로 강화함
 - 성군에서 창성기술대학, 군교원재교육강습소, 창성소학교를 훌륭히 건설 및 개건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교육 환경 개선의 큰 성과를 거둠
 - 동림군에서 내부 예비를 동원해 동림소학교를 건설하고 교육 설비와 비품을 완비했으며, 동창군검찰소 일군들은 자재를 자체 보장하며 분교 건설을 완수함
- (위치) 평안북도

□ 함경남도, 정평군 8개 분교 개건 완료(노동신문, 10.21, 6면)

- (내용)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자기 자식을 위한 심정'으로 교육사업에 진정을 다해, 군 내 8개의 분교를 단기간에 현대적으로 일신하는 성과를 거둠
- (위치) 함경남도 정평군

□ 자강도, 희천공업대학 종합실험교육관 신규조성 (노동신문, 10.23, 4면)

- (내용) 전공별 실험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20개의 전문 실험실을 갖춘 종합실험교육관을 완공해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실습으로 공고히 할 수 있게 함

- (위치) 자강도 희천시

□ 황해북도, 대학과 학교 개건현대화 공사중(노동신문, 10.26, 5면)

- (내용) 주요 대학의 개건 현대화와 본보기 학교 건설 등 교육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대상 공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임
 - 리계순사리원사범대학과 계웅상사리원농업대학의 개건현대화 공사를 강력히 추진하며, 도내 일군들이 개별 대상들을 직접 전담해 공사를 전격적으로 실행함
- (위치) 황해북도

□ 강원도, 도당위원회 160여개 분교 개건 중(노동신문, 10.27, 3면)

- (내용) 올해 안에 160여 개의 분교를 모두 일신하기로 결정하고, 도당 집행위원과 과장 급 이상 일군들이 공사 조건이 불리한 현장을 직접 분담해 책임지고 지휘함
- (위치) 강원도

□ 평안북도, 정주기술대학 학생교육교양거점 꾸리기 중(노동신문, 11.01, 5면)

- (내용) 정주기술대학에서 대학의 전반적인 면모를 일신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교양 거점을 현대적으로 꾸리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임
- (위치) 평안북도 정주시

□ 전국, 각 도(직할시)에 교육지원프로그램중심 설치완료(노동신문, 11.02, 5면)

- (내용) 국가교육정보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국 각 도에 교육지원프로그램중심을 짧은 기간에 구축해 교육 정보화와 현대화를 위한 강력한 거점을 마련
 - 평양시, 강원도, 자강도 등 각지에서 당, 정권기관의 주도로 두 달여 만에 건물을 완공함
- (위치) 전국

□ 함경북도, 화대군 석성탄광유치원개건(노동신문, 11.03, 3면)

- (내용) 석성탄광 초급당조직의 주도 아래 노후화된 유치원을 현대적인 수준으로 전면 개건해 탄부 자녀들에게 우수한 보육 환경을 제공함
- (위치) 전국

□ 평양직할시, 김책공업종합대학 실험교육중심 조성완료(노동신문, 11.06, 5면)

- (내용) 학문별 특성에 맞는 현대적인 실험 교육 중심들을 새로 구축해 교육, 과학 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함
- (위치) 평양직할시

□ **황해북도, 도과학기술위원회 면모 일신(노동신문, 11.07, 4면)**

- (내용) 도과학기술위원회와 사리원설비조립사업소를 현대적으로 일신하고, 11월 5일 현지 점검을 진행
 - 사리원설비조립사업소에 유압식 절곡기, 레이저 절단기 등 60여 대의 현대적 설비를 갖춘 생산 건물들과 종업원 후생시설을 새로 건설해 지방 공업 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구축
- (위치) 황해북도

□ **평안북도, 신의주제1중학교 개건완료(노동신문, 11.07, 5면)**

- (내용) 신의주제1중학교가 학교 전반의 면모를 현대적으로 일신함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 **함경북도,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 경성과수연구분소, 벼연구소, 어랑벼연구분소 준공(노동신문, 11.11, 4면)**

- (내용)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 경성과수연구분소와 벼연구소 어랑벼연구분소 준공식이 9일과 10일 현지에서 각각 진행됨
- (위치) 함경북도 경성군, 어랑군

□ **남포특별시, 학교건설 및 개건공사 결속(노동신문, 11.12, 5면)**

- (내용) 농촌학교, 분교, 유치원 등 근 20개의 교육시설 및 학교 건설 및 개건 공사를 성공적으로 결속함
- (규모) 근 20개의 학교
- (위치) 남포특별시

□ **평양직할시, 김일성종합대학, 실험교육중심을 전국의 본보기로 조성완료(노동신문, 11.15, 5면)**

- (내용) 58개의 현대적인 실험실을 갖춘 5개의 실험교육중심을 전국의 본보기 수준으로 구축함
- (위치) 평양직할시

□ **자강도, 분교건설 완료(노동신문, 11.19, 5면)**

- (내용) 도 내에 백수십개의 분교를 현대적으로 완공함
- (규모) 백수십 개의 분교
- (위치) 자강도

□ 평양직할시, 낙랑구역 전진고급중학교 준공(노동신문, 11.28, 5면)

- (내용) 현대적인 통합병설학교가 건설되어 11월 27일 준공식을 진행함
 - 연건축면적 1만 9,300여㎡인 규모의 대형 교육시설로, 현대 교육 발전 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실, 실험실습실, 다기능홀 등을 갖추
 -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한곳에서 공부하는 통합 체계를 통해 연속교육과 실천실기 교육을 원만히 제공할 수 있는 전국적인 본보기 학교로 설계됨
- (위치) 평양직할시 낙랑구역

□ 황해남도, 본보기학교 건설중(노동신문, 11.28, 5면)

- (내용)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조건과 환경 개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학교 건설을 강력히 추진 중
 - 태탄군 부양리에 현대적인 부양고급중학교를 완공하였으며, 다기능화된 교실, 실험실습실 등을 손색없이 갖추
- (위치) 황해남도 태탄군

□ 황해북도, 토산군 백화기술고급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중(노동신문, 11.29, 6면)

- (내용) 교육학적에 부합하는 현대적인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 중
- (위치) 황해북도 토산군

□ 나선특별시, 나선외국어학원 개건(노동신문, 11.30, 6면)

- (내용) 나선시에서 나선외국어학원의 교육 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11월 28일 개원식을 진행함
- (위치) 나선특별시

□ 함경북도, 청진농업대학, 공업대학 개건현대화 공사중(노동신문, 12.01, 5면)

- (내용) 도의 고조된 교육지원열의로 청진농업대학과 공업대학 개건현대화가 진행
 - 도수산관리국에서는 청진공업기술대학에 많은 전자설비를 보내주어 교육토대의 질적 강화에 이바지,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건설자재를 보장해 청진농업대학 개건현대화 공사를 적극 지원
 -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도검찰소는 해당 대학, 학교들에 자주 내려가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
 - 명간군과 연사군에서 액정TV와 컴퓨터를 학교들에 보내주었으며, 회령시에는 교육설비, 실험실습기자재와 교원들의 생활필수품까지 보장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 평안남도, 농업과학연구소 새로 건설(노동신문, 12.04, 3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농업과학연구소를 새로 건설해 농업 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함
- (위치) 평안남도

□ 평안남도, 환경보호연구소 신규 건설(노동신문, 12.05, 3면)

- (내용) 건설자들이 능률적인 공법을 활용해 기초콘크리트 치기와 벽체 축조, 내외부 마감 공사를 높은 질적 수준에서 마무리함
- (위치) 평안남도

□ 평안남도, 100여개의 학교, 분교, 유치원 신설 및 개건공사 완료(노동신문, 12.11, 4면)

- (내용)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받들고 평안남도에서 교육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결속
- (규모) 100여 개 학교, 분교, 유치원 및 교실 1,600여 개
- (위치) 평안남도 안주시 등

□ 자강도, 도농업과학연구소에 첨단연구기지를 신규 건설(노동신문, 12.15, 5면)

- (내용) 건설자들이 공정별 작업의 전문화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공법을 도입해 단기간에 완공
- (위치) 자강도

□ 함경남도, 수십개의 분교건설 및 개건공사 완료(노동신문, 12.15, 5면)

- (내용) 올해 계획된 수십 개의 분교 건설 및 개건 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
- (위치) 함경남도

□ 황해북도, 계응상 사리원농업대학 개건 공사중(노동신문, 12.17, 5면)

- (내용) 중요대상공사들이 마감단계에서 추진 중
- (주체) 황해북도당위원회 일군들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함경남도, 풍서군 어은령기술 분교 및 교원 살림집 건설 완공(노동신문, 12.24, 6면)

- (내용) 산골 학생들을 위한 분교와 교원 살림집 건설이 단기간에 완공됨
- (위치) 함경남도 풍서군

□ 양강도, 도농업과학연구소 개건 완료(노동신문, 12.25, 5면)

- (내용) 량강도농업과학연구소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됨
 - 김정은 위원장이 농업과학연구기관 현대화를 위한 방향과 방도를 명시했으며, 도농촌 경리위원회와 연관 단위들이 시공 조직과 기술지도를 담당함
 - 토양분석실, 감자연구실, 종합실험실을 비롯한 각종 연구실, 실험실들과 전자도서실, 과학연구성과전시실 등 현대적인 연구 환경을 구비함
- (규모) 토양분석실, 감자연구실, 종합실험실을 비롯한 각종 연구실, 실험실들과 전자도서실, 과학연구성과전시실 등
- (위치) 양강도

□ 함경남도, 최희숙함흥교원대학 완공(조선신보, 11.01, 2면)

- (내용) 현대적인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갖춘 최희숙함흥교원대학이 완공됨
 - 다기능화된 교실과 전자도서관, 음악실기실 등 매 교실에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완비
 - 국가망을 통해 전공학습에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들을 제공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171

2. 의료보건시설

□ 평양직할시, 평양종합병원 준공식(노동신문, 10.07, 1면)

- (내용) 당창건 80돐을 계기로 10월 6일 김정은 동지가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진행됨
- (위치) 평양직할시

□ 평안북도, 도질병예방통제소 신규조성(노동신문, 10.13, 5면)

- (내용) 평안북도에서 연건축면적 수천㎡ 규모의 도질병예방통제소를 새로 건설하여 도의 방역 토대를 강화함
- (위치) 평안북도

□ 평양직할시, 강동군병원 준공(노동신문, 11.20, 1면)

- (내용) 김정은 동지가 참석한 강동군병원 준공식이 11월 19일 진행됨
 - 병원에는 지방 인민들이 수도 시민들과 다름없는 선진적인 의료 봉사를 받을 수 있는 현대적인 치료 환경과 조건이 구비됨
- (위치) 평양직할시 강동군

□ 평안남도, 평성고려약공장 건설(노동신문, 12.03, 5면)

- (내용) 준공식이 12월 1일 현지에서 진행됨
- (위치) 평안남도 평성시

□ 평안북도, 구성시병원 준공(노동신문, 12.14, 1면)

- (내용) '지방발전 20x10 정책' 구성시병원 준공식이 12월 13일 김정은 참석 하에 진행됨
- (위치) 평안북도 구성시

□ 나선특별시, 금년에 10여개 약국 건설 완공(노동신문, 12.26, 5면)

- (내용) 나선시에서 올해 계획한 10여 개의 약국 건설을 완료해 인민들의 건강 증진 토대를 마련함
- (위치) 나선특별시

□ 남포특별시, 룡강군병원 준공(노동신문, 12.30, 1면)

- (내용) 남포시 룡강군병원,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김정은 동지 참석 하에 12월 29일에 진행됨
- (특징) '지방발전 20x10 정책' 실행 2년 차인 2025년에 현대적인 병원과 경공업공장들을 한날한시에 완공함
- (위치) 남포특별시 룡강군

3. 위생시설

□ 황해북도, 개성시식물방역소, 돼지종축장 신규조성(노동신문, 11.17, 5면)

- (내용) 개성시에서 농업 생산 토대 강화를 위해 식물방역소와 돼지종축장을 새로 건설해 완공함
 - 개성시식물방역소는 시남새온실, 시유기질복합비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붉은눈 알기생벌생산실, 생물농약생산실 등 여러 동의 건물을 일떠세움
 - 개성돼지종축장은 시안의 근로자들이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지키며 10여 동의 생산 및 보조 건물 건축공사를 질적으로 완공함
- (위치) 황해북도 개성시

4. 수련시설

□ 황해북도, 서흥군 서흥호소년단야영소 개건 공사중(노동신문, 12.17, 5면)

- (내용) 서흥호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중요 대상들의 개건 공사가 마감 단계에서 추진 중임
- (위치) 황해북도 서흥군

VIII. 광업자원시설

1. 금속광업

□ 함경북도, 무산광산 100만대산대발파 준비 및 진입(노동신문, 08.05, 1면)

- (내용)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광물 증산을 위해 대규모 발파 준비를 가속화하고 생산 성과를 확대함
 - 내년도 생산 목표 점령을 위한 100만산대발파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굴진 작업에 본격적으로 진입
 - 로천분광산과 선광직장 등 전 단위의 증산 투쟁을 통해 올해 현재까지 총 7,700여 톤의 철정광을 계획 대비 증산함
- (위치) 함경북도 무산시

□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250만산대발파 추진(노동신문, 10.02, 1면)

- (내용)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조업 이래 두 번째인 250만산대발파를 10월 1일 오전에 성공적으로 단행
 - 무산지질탐사대와 로천분광산 노동자들이 합리적인 굴진 방법을 통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갱도 공사를 계획보다 앞당겨 완료함
 - 이번 발파 성공으로 채굴량을 대폭 늘려 현행 및 전망 생산을 안정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함
- (위치) 함경북도 무산시

2. 비금속광업

□ 전국, 인 정광기계탈수장 건설중(노동신문, 07.31, 4면)

- (내용) 전국 각지의 린회석광산에서 린정광기계탈수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
- (위치) 전국

□ 황해남도, 삼천탄광 새갱 조성(노동신문, 10.23, 4면)

- (내용) 삼천탄광에서 석탄 생산 확대를 위한 새 갱 건설을 완료함
- (위치) 황해남도

3. 연료광업

□ 전국, 선탄공업성 새 탄광, 새 갱 건설 추진 중(노동신문, 07.31, 1면)

- (내용) 전국적으로 새 탄광 및 새 갱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명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극동탄광과 룡반탄광 1갱 건설이 완공되면 연간 수십만 톤의 석탄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림
 - 경원지구광련합기업소(태산탄광, 룡북청년탄광)는 부족한 설비와 자재를 자체 해결하며 기술 혁신안과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도입 중임
 -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삼록탄광은 경험 교환 운동을 통해 건설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풍고청년탄광은 단기간에 수백미터의 굴진을 진행함
- (위치) 전국

□ 평안남도, 봉천탄광 싸이로식석탄저장고 완공(노동신문, 08.24, 4면)

- (내용) 봉천탄광에서 실리적인 싸이로식석탄저장고 건설을 완공함
- (위치) 평안남도 개천시

□ 함경북도, 태산탄광 건설중(노동신문, 09.30, 1면)

- (내용) 함경북도에서 태산탄광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임
 - 제대군인 탄부들을 위한 수백 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목표로 세우고 공사를 활발히 진행 중임
 - 저장장 등 생산 및 보조 건물 공사를 입체적으로 밀고 나가며 수십만 톤의 확보탄량을 조성하는 성과를 이룩함
 - 도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화령시, 무산군 등이 협력해 건설 속도와 질을 보장하고 있음
- (위치) 함경북도 태탄군

□ 양강도, 백암탄광 니탄가공분사업소 신규조성(노동신문, 10.19, 4면)

- (내용) 백암탄광 니탄가공분사업소 준공식이 10월 17일에 진행됨
- (위치) 양강도 백암군

□ 평안남도, 2.8직동청년탄광, 배수관 증대 등(노동신문, 11.10, 5면)

- (내용)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산하 탄광들이 증산 및 창조 투쟁을 전개해 성과를 확대함
 - 2.8직동청년탄광에서 펌프를 증강 배치하고 수천m의 배수관을 신설해 배수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운반 선로와 탄차를 실속 있게 보수해 운반 효율을 높임

- 천성청년탄광에서 굴진 실적을 종전의 1.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매일 계획 대비 300여 t의 석탄을 추가 생산해 대동력기지에 공급함

- (위치) 평안남도 평천구역

□ 함경남도,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골광산 3년분 굴진계획 완료(노동신문, 12.17, 5면)

- (내용)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골광산의 '4.5개 리성일제대군인청년굴진소대'가 지난 12월 10일부로 3년분 굴진 계획을 완수하는 성과를 거둠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 서부지구 여러탄광 벨트콘베아공사 개건 완료(노동신문, 12.31, 5면)

- (내용) 서부지구 주요 탄광에서 벨트콘베이어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석탄 생산 확대를 위한 담보를 마련함
 - 석탄공업성에서 현실적인 계획 수립과 자재 보장을 지원했으며, 각 탄광은 자체 실정에 맞게 공사를 추진함
 - 봉천탄광에서는 천수백m 규모의 벨트콘베이어 공사를 결속해 생산 전망을 밝힘
 - 2.8직동청년탄광에서도 운반 능력 제고를 위한 벨트콘베이어 설치 공사가 강력히 전개되어 마무리 됨
- (위치) 덕천군, 평양시

IX. 농림어업시설

1. 농업시설

□ 전국, 올해 계획된 16만여정보 논 관개공사 완료(노동신문, 07.01, 1면)

- (내용) 전국적으로 진행된 16만여 정보의 논 관개 공사가 완료됨
 - 황해남도는 장수호-용진, 강령 물길 등에 대한 토랑 처리 및 제방 공사를 진행하고, 170여 개의 양수장 건설과 230여 개의 양수장 보수 등을 완료함
 - 평안북도는 대계도 배수문 보수 등 주요 대상 공사를 자체 기술로 완수하고, 홍건도 간석지 말단 구역에 10개의 양수장을 건설함
- (위치) 전국

□ 평안남도, 밀재배면적 수천정보 증가(노동신문, 07.01, 1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전년 대비 밀 재배 면적을 수천정보 확장하고 밀, 보리 수확 및 탈곡을 신속히 결속 중임
 - 수확 시작 10여 일 만에 가을 98%, 탈곡 95%를 달성하는 등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위치) 평안남도

□ 황해남도, 웅진갈 재배면적 확대(노동신문, 07.04, 4면)

- (내용) 종이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웅진갈로 해결하기 위해 황해남도에서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있음
- (위치) 황해남도 강령군, 해주시

□ 남포특별시, 온천천갑문확장공사(노동신문, 07.10, 4면)

- (내용) 온천군에서 온천천의 물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한 온천천갑문확장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위치) 남포특별시 온천군

□ 평안북도, 물원천 조성중(노동신문, 07.16, 5면)

- (내용) 우물 줄짙, 굴포 등 물원천을 모조리 찾아 이용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선천군, 꾀산군, 영주군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음
- (위치) 평안북도

□ 자강도, 강계시 젖소목장 건설중(노동신문, 07.16, 5면)

- (내용) 자강도 강계시 대규모 젖소목장이 건설 마감 단계에 이르렀음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양강도, 염소목장 건설 및 개건(노동신문, 08.04, 1면)

- (내용) 양강도에서 당의 육아정책 관철을 위해 올해 10여 개의 염소목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함
 - 갑산군을 본보기로 하여 염소우리, 착유장, 젖가공실 등 사양관리와 젖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완비함
 - 백두고원지대에 방목지와 자연 풀판을 대대적으로 조성해 염소 먹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위치) 양강도

□ 평안남도, 비경지 개간(노동신문, 08.08, 5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올해 많은 면적의 비경지를 개간해 경지 면적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둠
- (위치) 평안남도

□ 전국, 시, 군 남새온실 개건보수 중(노동신문, 08.21, 5면)

- (내용)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 각지의 시, 군 남새온실들을 개건하고 생산 토대를 강화함
 - 황해북도에선 기존 온실을 재건하는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온실 동 건설, 방울식 관수용 양수장 건설을 추진하고 특히 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를 설치해 생산의 과학화를 실현함
 - 평안남도에선 자재 보장 사업을 선행시키고 뒤떨어진 지역에 일군들을 파견해 모든 시, 군이 계획된 기간 내에 개건보수 공사를 결속하도록 지원함
- (위치) 전국

□ 평안남도, 덕천시 수신평지의 땅 개간, 원료기지면적 증대(노동신문, 08.31, 4면)

- (내용) 덕천시에서 지방공업 공장의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원료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간지대의 유헴지 수신평지를 개간함
- (위치) 평안남도 덕천군

□ 황해남도, 배천군 하천정리 중(노동신문, 09.01, 5면)

- (내용) 배천군에서 홍수 피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10여 km 구간의 하천 정리 공사를 완료함
- (위치) 황해남도 배천군

□ 평양직할시, 발관개공사 결속(노동신문, 09.01, 5면)

- (내용) 평양시에서 올해 계획된 590여 정보의 발 관개공사를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완료함
 - 력포구역은 양수장 증설, 보수 및 집수정 공사 등을 완공하였고, 순안구역은 3,000여 m의 관 부설과 1만 2,000여 m의 전기선 설치를 기한 전에 결속함
- (규모) 발 관개 590여 정보, 관 늘이기 3,000여 m, 전기선 늘이기 1만 2,000여m, 수지 관 생산 4만 5,000m
- (위치) 평양직할시

□ 함경북도, 회령시 양곡보관창고 완공(노동신문, 09.12, 5면)

- (내용) 회령시에서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새로운 양곡보관 창고 건설을 완공함
- (위치) 함경북도 회령시

□ 평안남도,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북창목장 개건(노동신문, 09.15, 4면)

- (내용)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에서 탄부들의 로동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탄부휴양 소와 북창목장을 새롭게 개건함
- (위치) 평안남도 북창군

□ 평안남도, 양수장건설 중(노동신문, 09.16, 5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다음 해 수만 정보의 논밭 관개를 실현하기 위해 백수십 개의 양수 장 건설을 추진 중임
- (위치) 평안남도

□ 평안북도, 신의주시 염소목장 건설중(노동신문, 09.17, 5면)

- (내용) 신의주시에 대규모 염소목장을 신축 중이며, 현재 공사가 마감 단계에 진입
 - 착공 후 수개월 만에 20여 개의 염소호동, 젓가공실, 사료가공실, 보리짚배장건설 등이 총 공사량의 70% 계선을 넘어섬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 황해남도, 안악군 수백km 배수로치기 완료(노동신문, 10.16, 4면)

- (내용) 안악군에서 수백 km에 달하는 배수로 정비 작업을 3일 만에 완료함
- (위치) 황해남도 안악군

□ 전국, 시, 군마다 300정보 약초산 조성사업 중(노동신문, 10.19, 5면)

- (내용)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시, 군마다 300정보 규모의 약초산을 조성하여 고려약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함
- (위치) 전국

□ 전국, 논밭관개체계 완비(노동신문, 10.21, 1면)

- (내용) 당의 관개건설 정책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수십만 정보에 달하는 논밭의 관개체계를 완비하는 성과를 거둠
 - 올해 전국 밀 재배 면적을 지난해보다 3만 3천여 정보 확장했으며,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도 생산 계획을 129% 이상 달성함
 -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담수화된 강령호 물을 이용해 밀, 보리 정보당 수확고를 2~3배로 증대시킴
- (위치) 전국

□ 전국, 백수십개 염소, 젖소목장, 분장 신규 건설 및 능력 확장(노동신문, 10.23, 1면)

- (내용)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전국적으로 백수십 개의 염소, 젖소목장과 분장이 신설 및 확장되어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유제품을 정상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위치) 전국

□ 자강도, 검은고니사와 타조사 건설(노동신문, 10.25, 6면)

- (내용) 자강도 홍주닭공장에 검은고니사와 타조사를 신규 건설해 준공함
- (위치) 자강도

□ 남포특별시, 양사육장과 인공수정소건설공사 결속(노동신문, 10.29, 5면)

- (내용) 남포특별시에서 풀판 조건이 유리한 지역에 양사육장과 인공수정소 건설을 완료함
- (위치) 남포특별시

□ 자강도, 토지정리 사업 중(노동신문, 11.01, 5면)

- (내용) 자강도에서 벼와 밀 생산 비중을 높이려는 당 정책에 따라 향산군 일대의 수백 정보 밭을 논으로 전환하고 기계화 포전으로 정리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
- (위치) 자강도

□ 평안북도, 창성군 염소목장과 농장들 젖제품생산실 개건(노동신문, 11.05, 5면)

- (내용) 창성군에서 젖제품 생산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수백 마리의 염소를 추가 확보하고 염소목장 및 농장별 젖제품 생산실을 개건함
- (위치) 평안북도 창성군

□ 나선특별시, 돼지공장 신규조성(노동신문, 11.28, 4면)

- (내용) 나선시에서 현대적인 돼지공장 준공식을 11월 26일에 진행됨
- (위치) 나선특별시

□ 평안남도, 양곡중계사업소 새로 건설(노동신문, 12.01, 3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양곡의 수송, 보관, 가공,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양곡중계사업소를 신규 건설함
- (위치) 평안남도

□ 평안남도, 안주오리공장에 검은고니생산기지 새로 건설(노동신문, 12.06, 3면)

- (내용) 평안남도 안주오리공장에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검은고니 생산 기지를 신규 건설함
- (위치) 평안남도 안주시

□ 평안남도, 신양군 양사육장, 보리싹재배장 신규 조성(노동신문, 12.08, 5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당의 축산 및 육아정책 관철을 위해 신양군에 양사육장을, 도농촌경리위원회 후탄젖소목장에 보리싹재배장을 각각 신설함
- (위치) 평안남도 신양군

□ 자강도, 흥주 닭공장에 검은고니, 타조생산기지 신규 건설(노동신문, 12.10, 3면)

- (내용) 자강도에 흥주닭공장에 검은고니와 타조를 전문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기지를 신규 건설함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평양직할시, 100여동의 염소우리들이 신규 건설 완료(노동신문, 12.11, 4면)

- (내용) 평양시에서 올해 100여 동의 염소우리를 신축하고, 젖소, 염소 마리수 및 젖 생산량을 전년 대비 1.5배로 늘림
- (위치) 평양직할시

□ 평안북도, 월도, 석화 간석지, 건설지 내부망공사, 황해남도 능금도 간석지, 건설지 내부망공사 완료(노동신문, 12.16, 8면)

- (내용) 농업위원회와 간석지 건설지휘조, 평안북도 및 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회의 과학적인 타산 밑에 올해 계획된 월도, 석화, 능금도와 룡매도간석지 6구역의 내부망공사가 성공적으로 계속됨
 - 월도간석지 내부망공사를 맡은 인민군 군인들은 용배수로 공사를 다그쳤으며, 염주, 꾀산간석지 내부망건설사업소와 토지정리돌격대 평안북도려단은 석화간석지의 포전정리와 구조물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은률, 청단간석지내부망건설사업소와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남도려단은 능금도와 룡매도간석지 6구역에서 기존 관례를 깨고 많은 개골구간을 매우며 바닥수평 고루기를 질적으로 수행함
- (위치) 평안북도 선천군, 정주시

□ 양강도 갑산군 갑산오리 공장 내 검은고니 생산기지 신규 건설(노동신문, 12.26, 5면)

- (내용) 양강도 갑산오리공장에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현대적인 검은고니 생산 기지를 신규 건설함
- (위치) 양강도 갑산군

2. 어업시설

□ 함경북도, 명천군 보춘수산사업소 바닷가 양식장 건설중(노동신문, 07.10, 4면)

- (내용) 명천군 보춘수산사업소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방 경제 발전 및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바닷가 양식장 조성을 마감 단계에서 적극 추진 중임
- (위치) 함경북도 명천군

□ 황해남도, 수산관리국 종어장건설중(노동신문, 07.24, 4면)

- (내용) 황해남도 수산관리국에서 당의 양어정책 관철을 위해 종어장 건설을 마감 단계에서 강력히 추진 중임
- (위치) 황해남도

□ 남포특별시, 종어기지 조성중(노동신문, 11.22, 5면)

- (내용) 남포시에서 다음 해 논판양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종어기지들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음
 - 시 차원의 대형 종어기지가 완공 단계에 있으며, 각 구역과 군에는 이미 10여 개의 종어기지가 새로 건설됨
- (위치) 남포특별시

□ 황해남도, 신원군 종어장개건공사 완료(노동신문, 11.24, 5면)

- (내용) 신원군에서 내년도 논판양어 면적 확대를 목표로 진행해 온 종어장 개건 공사를 최종 결속함
- (위치) 황해남도 신원군

□ 전국, 논판양어 조성 중(노동신문, 12.05, 5면)

- (내용) 내년도 논판양어의 대대적 전개를 위해 전국적으로 논 개조 및 종어 확보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임
 - 평양시에는 50여 정보의 적지를 선쟁해 물고기 다님길과 웅덩이 조성을 완료하고, 팽화머리가 생산 설비와 겨울철 종어 관리 대책을 마련함
 - 평안남도에서는 백수십 정보의 포전 개조를 결속했으며 지렁이 등 동물성 단백질 생산 토대를 구축함
 - 함경북도 10여 개 시, 군에서 종어 기지 건설을 완료해 공급 체계를 확립했고, 강원도에서도 240여 정보의 논 개조와 알 깨우기실 완비 등 실무적 대책을 세움
- (위치) 전국

□ 평안북도, 논판양어 확대를 위한 종어기지 건설 완료(노동신문, 12.11, 4면)

- (내용) 도 중심지와 각 시, 군들에게 새끼물고기 생산을 위한 종어기지들을 완공함
 - 은산군과 룡천군 등에서도 지역 설정에 맞게 많은 수의 새끼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종어장들을 손색없이 구축함
- (위치) 평안북도 운산군, 룡천군

□ 함경남도, 장진군 정장어종어장 건설(노동신문, 12.14, 4면)

- (내용) 장진군에서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토배기 물고기인 정장어를 대대적으로 번식시키기 위한 종어장을 신규 건설함
- (규모) 연건평 수천㎡ 규모의 종어장
- (위치) 함경남도 장진군

3. 임업시설

□ 자강도, 강계시 121호림업연합기업소 청산령지구에 새 임지 개발(노동신문, 09.08, 5면)

- (내용) 121호림업연합기업소에서 청규모가 가장 큰 청산령지구 새 임지를 개발함
 - 지난 5월부터 나무 분포와 지형 상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했으며, 19여 일간의 현지 답사를 통해 산지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기술 공정 설계를 완성함
 - 청년동맹원들이 중심이 되어 벼랑을 깎고 암반을 제거하는 고난도 공사를 수행해 산도로를 개설했으며, 산지 합숙소와 나무터 등 생산 기반 시설을 구축함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양강도, 700여 정보 원료보장 잣나무림 조성(노동신문, 12.20, 5면)

- (내용) 올해 200여 정보의 잣나무림을 신규 조성해 총 700여 정보에 달하는 우너료 기지 토대를 강화함
- (규모) 신규 조성 200여 정보
- (위치) 양강도 김정숙군, 갑산군, 보천군, 운흥군

4. 농어업단지

□ 평안북도,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중(노동신문, 08.23, 12.07, 각 2면)

- (내용) 평안북도 신의주지구 위화도에서 대규모 온실종합농장 건설과 섬지구의 영구적인 제방 공사가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지난 2월 온실농장과 남세과학연구소 착공식이 진행되었으며,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해군, 공군 장병들이 건설을 분담하여 경쟁적으로 공사를 진행중임
 - 8월 초 건설 현장을 찾은 김정은 동지는 이 농장을 당 제9차 대회에 드리는 선물로 완공할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표명함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

5. 기타

□ 평안북도, 황해남도, 간석지내부망공사 추진중(노동신문, 07.18, 5면)

- (내용) 김정은 동지의 방침에 따라 개간된 간석지를 즉시 부침망으로 이용하기 위한 내부망 공사가 각지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음
 - 평안북도 월도 및 석화간석지에서는 군민협동작전을 통해 용배수로 공사, 포전 정리, 구조물 및 포전도로 공사를 입체적으로 진행 중임

- 농업위원회와 간석지건설지휘조는 설비 가동에 필요한 연유와 과학적인 작전과 지휘를 전개함
- 황해남도 룡매도, 은률, 청단간석지에서도 불도저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포전 정리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구조물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마무리하고 있음
- (위치) 평안북도, 황해남도

X. 환경방재시설

□ 평안남도, 수백 km구간의 강하천정리(노동신문, 07.06, 4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비해 강하천 정리 사업을 강력히 추진 중임
 - 방대한 토량을 처리해 수백km 구간의 강하천을 정리했으며, 수천 개소의 사방야계 공사를 통해 큰물과 산사태 피해 최소화 기반을 마련함
- (위치) 평안남도

□ 함경북도, 사방야계공사 마무리(노동신문, 07.31, 4면)

- (내용) 함경북도에서 수백 개소의 사방야계공사를 성공적으로 결속함
 - 길주군, 연사군, 명천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토지 유실 방지와 산림 보호를 위한 공사 계획을 면밀히 세워 제기일 내에 공사를 완수함
- (위치) 함경북도

□ 평안북도, 섬지구 영구화제방공사 중(노동신문, 08.02, 2면)

- (내용)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일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섬지구 영구화제방공사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음
 - 압록강안의 섬지구들에 대한 영구화제방공사와 최대 규모의 온실농장 건설이 병행해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위치) 평안북도

□ 함경남도, 단천지구광업총국 검덕지구 복천 통수능력제고 사업중(노동신문, 08.24, 4면)

- (내용) 단천지구광업총국에서 검덕지구의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복천의 물 흐름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강하천 정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최근 3개월 동안 약 40km 구간의 하천을 정리해 통수 능력을 개선했으며, 중기계 가동률을 높여 현재까지 수십만㎡ 규모의 강파닥 파기를 진행함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 전국 각 급 당조직, 자연재해 예방 대책 추진 중(노동신문, 08.29, 1면)

- (내용) 재해성기후에 대비해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5개년계획의 성과적 완결을 담보하기 위한 전국적인 자연피해 최소화 사업이 전개됨
 -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피해 위험요소와 불량개소들을 찾아 퇴치하는 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함
 - 자강도당위원회에서는 도급 일군들을 위험개소들에 파견해 정황을 항시적으로 감시하게 하며, 주민들을 미리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식량과 필수품을 보장

-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시, 군들에서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필수 구조장비와 기재들의 준비상태를 재확인하고 상황발생 시 즉시 동원가능 태세 강구
- 황해남, 북도당위원회에서는 저수지 수위와 비내림량을 실시간 감시하며 배수문과 하천제방의 안전상태를 점검해 농경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주력함

- (위치) 전국

□ 함경북도, 길주군 하천정리공사 중(노동신문, 09.08, 5면)

- (내용) 함경북도 길주군에서는 올해 현재까지 수십 km 구간의 하천 정리를 완료해 백수 십만㎥에 달하는 성토 실적을 거둬
- 설계 요구를 철저히 준수해 그 어떤 무더기비에도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시공 지도를 강화했으며, 지난 7월 중순까지 하천바닥파기와 제방성토공사를 성공적으로 결속함
- 바닥파기와 성토 작업이 완료되는 순차대로 장식입히기 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하천의 면모를 일신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 담보를 마련함

- (위치) 함경북도 길주군

□ 평안북도, 강하천 정리 완료(노동신문, 10.17, 5면)

- (내용) 평안북도에서 올해 수백 km 구간의 강하천을 정리하고 물 통과 능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둬
- 신의주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10여 km에 달하는 제방 성토와 장식공사 등을 성공적으로 결속함
- 운산군과 구성시에서는 중기계와 운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여러 강하천 정리를 본때 있게 추진했으며, 창성군에서는 읍 지구의 위험개소를 제거하고 수십리 구간의 강하천을 정리함

- (위치) 평안북도

□ 양강도, 삼수군 주요강하천 정리와 사방야계공사 완료(노동신문, 10.21, 5면)

- (내용) 양강도 삼수군에 큰물 피해 위험도가 높은 주요 강하천들의 정리공사와 사방야계공사를 결속함

- (위치) 양강도 삼수군

□ 평안남도, 증산군 사방야계공사 완료(노동신문, 11.02, 4면)

- (내용)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야계공사를 최악의 상황까지 예견한 과학적이고 수자적인 작전 밑에 성공적으로 결속함

- (위치) 평안남도 증산군

□ **함경남도, 단천시 해안방조제 공사 결속(노동신문, 11.05, 5면)**

- (내용) 년차별 목표에 따라 진행해온 해안방조제 공사를 성공적으로 결속함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 **평안북도, 운산군 강하천정리 공사중(노동신문, 11.19, 5면)**

- (내용) 당의 국토관리정책에 따라 강하천정리공사를 꾸준히 밀고 나가며 큰물 피해 방지를 위한 담보를 마련함
 - 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중기계와 대형화물 자동차들을 현장에 집중 배치해 불과 몇 달 사이에 백수십만㎡의 강바닥 파기를 진행함
- (위치) 평안북도 운산군

□ **함경남도, 강하천 정리중(노동신문, 11.27, 4면)**

- (내용)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고 연 백수십km 구간의 강하천을 번듯하게 정리하는 성과를 거둠
 - 허천군에서는 굴착기를 비롯한 중기계들을 만가동하여 높아진 강바닥을 파내고 제방에 방석을 입히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
 - 정평군에서는 여러 하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역량 편성 및 작업 분담을 실시
 - 락원군에서는 하천의 최대 물량과 흐름 속도 등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바닥 파기, 제방 쌓기, 장식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면적의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함
- (위치) 함경남도

□ **자강도, 압록강과 장자강정리공사(노동신문, 11.29, 5면)**

- (내용) 자강도에서 압록강과 장자강 정리공사에 역량을 집중하여 수백만㎡의 강바닥 파기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둠
- (규모) 수백만㎡ 강바닥 파기
- (위치) 자강도



3404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전민동)

Tel 042-866-8326 Homepage <http://lhri.lh.or.kr>

LH 토지주택연구원(Land and Housing Research Institute)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설 연구원으로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결합한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정책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국내 최고의 토지·주택·도시 분야의 종합연구기관입니다.

